10월31일 Market Index

코스피 2277.99 (-32.56)
코스닥 796.10 (-21.02)
금리(국고채 3년) 4.085 (-0.004)
환율(원·달러) 1350.50 (-0.40)

metro® 경제

구독료: 월 20,000원 / 1부 1,000원 등록번호 서울 가50111 독자센터 (02)721-9861

매일 아침, 나를 키우는 메트로

2023년 11월 1일 수요일

김포, 서울시로 편입 "시민이 원해" 與 총선용 해석 경계 04

삼성전자, 영업익 264% 급증 반도체 적자, MX·DP가 방어

〈모바일경험〉 〈디스플레이〉

3분기 매출 67.4조 영업익 2.4조
반도체·DS부문 여전히 적자 늪

MX사업 매출 30조… 실적 견인
디스플레이 사업, 영업익 1.9조

삼성전자가 실적 개선을 본격화했다. 반도체가 저조했던 대신, 모바일과 디스플레이가 선전했다. 연말부터는 더 큰폭으로 회복을 기대했다.

삼성전자는 3분기 매출 67조4000억원에 영업이익 2조4300억원 실적을 31일 확정 공시했다. 〈관련기사 3면〉

전년 동기와 비교하면 매출은 12.21%, 영업이익은 77.57% 낮은 숫자로 여전히 글로벌 경기 침체 영향을 피하지는 못했다. 다만 전분기와 비교하면 매출은 12.33%, 영업이익은 264.04%나 급증하며 '바닥'을 완전히 벗어난 모습이다.

◆ 반도체 대신 MX·디스플레이 선전

기대됐던 반도체, DS부문 실적은 큰 반등을 확인하긴 했지만 여전히 큰 적자를 피하지는 못했다. 매출 16조4400억원에 영업손실이 3조7500억원이었다. 적자폭이 전분기(4조3600억원)대비 6000억원 가량 줄긴 했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이었다. 시스템LSI와 파운드리 모두 실적 개선폭이 크지 않았다.

삼성전자 서초사옥의 모습. /뉴시스

메모리 매출은 10조5300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는 31% 떨어졌지만 전분기보다는 17% 늘었다. 고부가 제품 확대와 가격 상승 등으로 적자폭도 줄였다. DS부문에서 비중은 64%로, 전년 동기(66%) 대비 소폭 줄었다.

여전한 반도체 부진 속에서 모바일, MX사업부가 선전하며 실적을 견인했다. 매출이 30조원으로 전체 매출 중 절반 가까이를 채웠고, 영업이익도 3조3000억원으로 DS부문 적자를 거의 메우는 수준이었다. 전년 동기와 비슷한 수준, 전분기보다도 각각 17%, 8.5% 개선했다. 전 제품군에서 판매 호조를 보였고, 플래그십 비중 확대로 매출 및 수익성도 확보했다는 설명이다.

디스플레이 사업, SDC는 기대를 넘는 수익을 거두며 실적 개선에 큰 힘을 더했다. 매출액이 8조2200억원으로 전년 동기와 비교하면 13% 줄었지만. 수익성을 극대화하며 영업이익은 예년 수준인 1조9400억원을 되찾았다. 주요 고객사 플래그십 출시와 대형 패널에서 원가 개선 등 효과다.

하만도 의미있는 실적을 냈다. 역대 분기 최대인 매출 3조8000억원에 영업이익 4500억원을 거뒀다. 전년 동기와 비교하면 각각 5%, 45% 늘었다. 전장 수주 확대 영향이 컸다.

TV와 가전은 경기 침체가 지속되는 상황에서도 선방했다. VD 및 가전 사업이 매출 13조7100억원으로 전년 동기와 비교하면 7% 낮았지만, 영업이익이 3800억원으로 52%나 늘며 큰폭으로 수익성 개선 노력을 확인했다. 대신 전분기와 비교하면 매출 5%, 영업이익은 반토막이 났다. 글로벌 TV 수요 감소와 함께 생활가전 성수기 효과 감소가 이유로 지목됐다. 〈3면에 계속〉

/김재웅 기자 juk@metroseoul.co.kr

YouTube 유튜브〈메트로신문〉 동영상 제공

윤석열 대통령이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2024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지출 23조 줄여 재원 확보 약자보호·성장동력에 투입"

尹 '2024 예산안 시정연설'
건전재정 운영 기조 재확인
미래세대에 빚 넘겨주지 않을 것

윤석열 대통령이 윤석열 정부의 재정 운용 기조는 건전재정이라고 재확인하며 이를 통해 마련된 재원을 "국방·법치·교육·보건 등 국가 본질 기능 강화와 약자 보호, 미래성장동력 확보에 더 투입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31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2024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통해 "건전재정은 단순히 지출을 줄이는 것이 아니고, 국민의 혈세를 낭비없이 적재적소에 효율적으로 쓰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관련기사 6면〉

윤 대통령은 "건전재정은 대내적으로는 물가 안정에, 대외적으로는 국가 신인도를 유지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며 특히 미래세대에게 감당하기 어려운 빚을 넘겨주지 않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국제통화기금(IMF)이 윤석열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를 '옳은 방향'이라고 호평했으며, 국제신용평가사들도 대한민국의 국가신용등급 유지에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재정 건전화 노력을 꼽았다고 전했다.

이에 윤 대통령은 "2024년 총지출은 2005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인 2.8% 증가하도록 편성해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했다"며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총 23조원 규모의 지출을 구조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모든 재정사업을 제로 베이스에서 검토해 예산 항목의 목적과 취지에 맞지 않는 지출, 불요불급하거나 부정 지출이 확인된 부분을 꼼꼼하게 찾아내서 지출 조정을 했다"며 "경제가 어려울 때일수록 어려움을 더 크게 겪는 서민과 취약계층, 사회적 약자를 더욱 두텁게 지원하겠다"고 부연했다.

이와 관련 윤 대통령은 4인 가구 생계급여 지급액 184만4000원으로 인상, 발달 장애인 1대 1 전담 서비스 제공, 자립준비청년 수당 매월 10만원씩 25% 인상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군 초급간부 단기복무장려금 및 병 봉급 35만원 인상, 전국 하천 홍수 조기 경보망 확대, 개발원조 ODA 예산 규모 6조5000억원 확대, 인공지능(AI)·바이오·사이버 보안·디지털플랫폼 정부 구축을 위해 4조4000억원 투자 등도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R&D(연구개발) 예산은 2019년부터 3년간 20조원 수준에서 30조원까지 대폭 증가했으나 미래성장동력 창출을 위해 질적 개선과 지출 구조조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많았다"며 "이번 예산안에는 첨단 AI 디지털, 바이오, 양자, 우주, 차세대 원자력 등에 대한 R&D 지원을 대폭 확대했다"고 밝혔다. 이어 "중소기업들이 자금 여력 부족으로 투자하기 어려운 기술 개발 분야와 인공지능, 머신러닝, 자율주행 등의 딥테크 분야에 대한 R&D 투자도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R&D 예산은 향후 계속 지원 분야를 발굴해 지원 규모를 늘릴 것이지만, 일단 이번에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마련한 3조4000억원은 약 300만 명의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을 더 두텁게 지원하는 데 배정했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연금·고용·교육 3대 개혁을 언급하며 여야 의원들의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특히, 교권보호 4법에 동의한 야당과 회계공시를 수용한 양대 노총에도 감사의 뜻을 전했다.

/박정익 기자 pathfinder@

대한항공, 아시아나 합병 안갯속

EU에 시정조치안 제출 일정연기 요청

아시아나 화물 매각 결론 못내
이달 초 이사회 재소집 예상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 작업이 또다시 늦춰지면서 시장의 우려가 확산하고 있다.

대한항공이 기업결합 심사에 유독 까다로운 잣대를 들이대 온 유럽연합(EU) 집행위(EC)에 제출할 시정조치안 핵심 쟁점으로 떠오른 '화물사업부 매각' 여부를 아시아나항공 이사회가 결론을 내지 못하면서다. 대한항공은 당초 10월 중 시정조치안을 EC측에 제출하려고 했으나 아시아나항공 화물사업 매각 문제가 이사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연기되면서 관련 내용을 담은 시정조치안의 EU 집행위 제출도 어렵게 됐다.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에 대한항공 국제선 여객기가 이륙준비를 하고 있는 모습 /뉴시스

31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아시아나항공 이사회는 지난 30일 오후 2시부터 화물사업 매각 여부를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하고 오후 9시 30분쯤 정회했다. 아시아나항공은 이사회 속개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으며 11월 초 이사회를 재소집할 것으로 보인다.

아시아나항공 이사회가 결론을 내지 못한 이유는 일부 사외이사가 배임, 노동조합 반발 등을 우려해 화물사업 매각에 반대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앞서 사내이사 2인 중 한 명인 진광호 안전·보안실장(전무)은 일신상의 사유로 지난 29일 사의를 표명해 출석하지 않았다. 진 이사는 안건에 반대 혹은 기권을 투표할 예정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전날 이사회에는 원유석 아시아나 대표(사내이사)와 배진철 전 한국공정거래조정위원장, 박해식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윤창번 김앤장 법률사무소 고문, 강혜련 이화여대 경영대학 명예교수 등 총 5명이 참석했다. 5명 중 3명이 찬성하면 승인되는 구조다.

〈2면에 계속〉 /양성운 기자 ysw@

버스티비 yap TV 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

▲ 국민의힘, '김포' 서울 편입 추진… 부동산 업계 '들썩'
▲ 박진, 이집트 외교장관 통화… 이·팔 분쟁에 우리 국민 안전 당부' /사진 뉴시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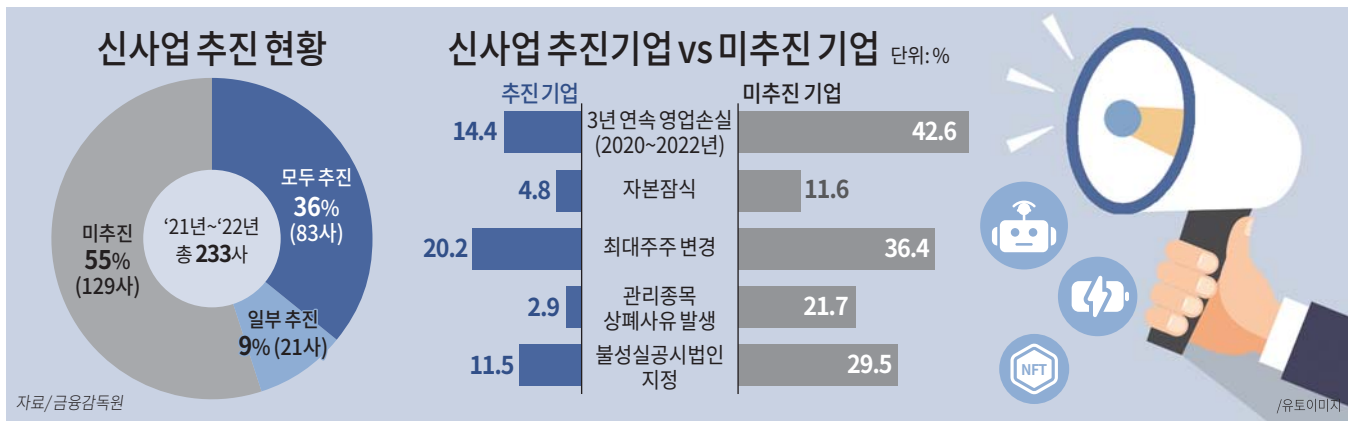
▲ 국회, 정치개혁·연금특위 6개월 연장… 내년 4월말까지 활동
▲ 병무청, 병역판정 정확성 높인다… 최신 의료장비 확보

▲ 정찰위성 3차 발사 10월 시한 넘긴 북… 기술 결함 해결 중
▲ 통일부 "북, 제재로 외화벌이 차질… 공관 유지 어려워" /사진 뉴시스

2차전지·로봇 등 추진 한다더니… 신사업 절반이상 '허위'

금감원, 신사업 진행상황 공시 점검

285개사, 주요업종 사업목적 추가
이중 129곳, 55% 추진내역 전무
사유 역량부족·경영환경 변화 등
추진 104곳 중 47곳 관련매출 발생



2차 전지와 신재생에너지, 로봇 등 증시에서 인기를 끌었던 테마사업에 새로 진출하겠다고 발표한 상장사 가운데 절반 이상은 추진 내역이 전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들은 최대주주 변경이나 자본 잠식 등 부실한 곳이 다수였으며, 테마성 허위 신사업으로 주가를 끌어올리고 주식을 팔아치우는 등 부정거래에 나선 정황도 적발됐다.

31일 금융감독원이 2023년 반기보고서에서 신사업 진행상황 공시 등을 중점 점검한 결과, 최근 3년간 증시에서 이슈된 주요 테마업종을 사업목적으로 추가한 회사는 총 285개사다. 이 가운데 55%인 129개사의 경우 추진내역이 전무했다.

점검 대상은 최근 3년(2021년 1월 1일~2023년 6월 30일) 동안 정관에 사업목적을 추가나 삭제, 수정한 내역이 있는 상장사 1047곳이다. 코스피 326개사, 코스닥 721개사다.

주요 테마업종은 ▲메타버스 ▲가상화폐·대체불가능토큰(NFT) ▲2차전지 ▲인공지능 ▲로봇 ▲신재생에너지 ▲코로나 등이다. 2차전지와 신재생에너지 관련 사업목적 추가 회사가 각각 125개사, 92개사로 가장 많으며, 메타버스와 가상화폐·NFT의 경우 관련주 급등시기인 2021년 말에서 2022년 초에 사업목적 추가가 집중됐다.

전체 285개사 중 129개사는 추진내역이 전혀 없었다. 주요 미추진 사유로는 ▲신사업 추진 역량 부족 ▲경영환경 변화 ▲사업 타당성 결여 등을 기재했다.

추가한 테마업종이 많은 회사일수록 사업 추진 비율은 급감했다. 1개 업종을 추가한 상장사의 사업 추진 비율은 46.6%며, 4개 이상을 추가한 경우 사업 추진 비율은 0%였다.

사업 추진 현황이 존재하는 104개사 중 47개사는 해당 사업과 관련한 매출이 발생했다. 다만 다른 사업부문과 구분해 관리할 정도의 유의미한 매출은 4개사에 그쳤다.

사업 미추진 기업은 추진 기업 대비 재무·경영 안정성이 낮았고, 내부통제 등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노출된 기업이 많았다.

최근 3년 연속 영업손실인 곳이 43%에 달했으며, 자본잠식인 곳도 12%였다. 회사의 최대주주가 변경되는 전·후 과정에서 해당 사업목적을 추가한 경우가 36%며, 22%는 횡령·배임이나 감사(검토)보고서 미제출, 감사의견 거절 등으로 관리종목 지정되거나 상폐사유가 발생했다.

이와 함께 일부 기업은 신사업 발표 직후 주가가 급등하자 최대주주 관련자가 전환사채(CB) 전환 후 주식을 매도하고 사업 추진은 철회하기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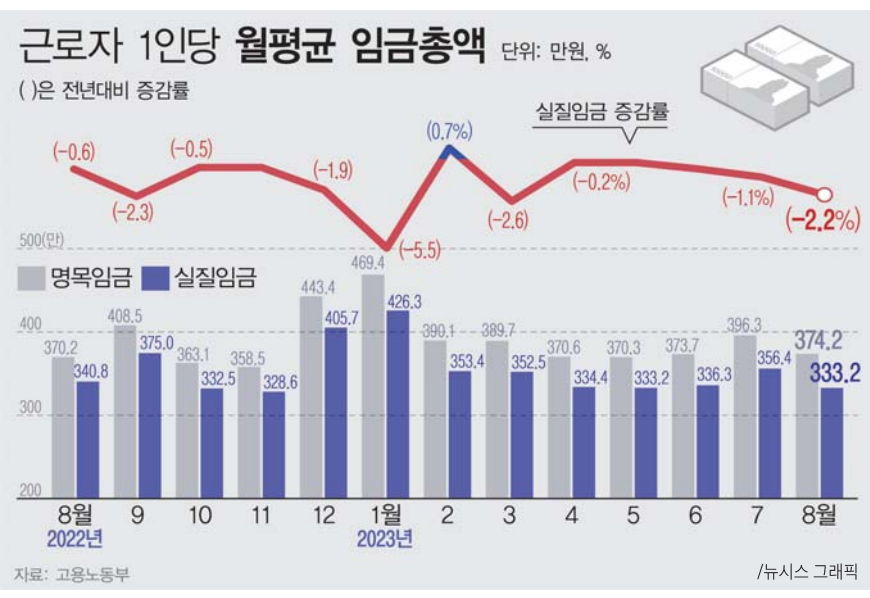
금감원은 "투자자는 관련 공시를 통해 회사가 신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재무·경영 안정성, 내부통제 역량을 갖추고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투자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며 "향후 제출되는 정기보고서를 통해 실제 사업 추진 여부나 경과 등을 주기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금감원은 또 "허위 신사업 추진 관련 불공정거래 혐의가 포착된 종목에 대해서는 철저한 조사를 실시하고 혐의 적발시 엄중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안상미 기자 smahn1@metroseoul.co.kr

8월 실질임금 6개월째 '마이너스'… 전년대비 2.2%↓

고용노동부, 9월 사업체노동력조사
5개월來 가장큰폭 하락한 333만원
분기 기준으로 5개분기 연속 감소



근로자 실질임금이 5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내려앉았다. 올해 8월 기준 333만 원으로, 연중 가장 낮은 수준까지 떨어졌다.

고용노동부가 31일 발표한 '2023년 9월 사업체노동력조사 결과'에 따르면 8월 근로자 월평균 실질임금은 전년동월에 비해 2.2% 감소한 333만2000원을 기록했다. 이는 3월(-2.6%) 이후 최대 폭 하락이다.

실질임금은 물가상승분을 반영해 산출한 지표로, 명목임금을 소비자물가지수로 나눈 뒤 100을 곱해 산출한다. 이는 임금근로자의 실제 구매력을 보여준다.

실질임금은 올해 3월 감소에 이어 4월(-0.2%), 5월(-0.2%), 6월(-0.6%), 7월(-1.1%), 8월(-2.2%) 등 6개월 연속 줄어들었다. 또 최근집계인 8월 수치는 5월 수치(333만2000원)와 함께 올해 들어 최저 수준을 보였다.

또 지난해 4월부터 올해 8월까지 17개월분 가운데 올해 2월(+0.7%)을 제외한 16개월분이 모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분기 기준으로는 지난해 2분기부터 올해 2분기까지 다섯 분기째 줄고 있다. 올해 3분기(7~9월)에도 감소했을 가능성이 크다.

연간 기준 실질임금 역시 지난해(-0.2%)에 이어 2년째 하락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향후 발표될 9~12월분에서 큰 폭의 상승 반전이 없는 한 2년 연속 감소가 불가피하다. 연간 실질임금은 2018년부터 2021년까지 매해 늘어난 바 있다.

8월 월평균 명목임금은 지난해 같은 달보다 1.1% 오른 374만2000원으로 집계됐다.

한편 올해 9월 말 기준 종사자 1인이상 사업체 종사자는 1990만7000명으로 전년동월 대비 1.6% 증가했다.

종사상 지위별로, 상용근로자 수가 1.4%, 임시·일용근로자가 3.6%, 기타 종사자(판매실적에 따라 수수료만 받는 종사자, 업무 습득 위한 무급여 종사자 등)가 0.4% 늘었다.

산업별로,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4.7%), 숙박 및 음식점업(+4.9%),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3.4%) 등에서 종사자 수가 늘었다. 반면 건설업(-1.5%), 교육서비스업(-0.7%), 전기·가스·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1.3%) 등은 감소했다.

고용부는 "돌봄·의료서비스 수요 등으로 보건 및 사회복지업 증가폭이 확대되는 등 대부분 산업에서 증가세를 지속했다"고 설명했다. 또 "숙박·음식점업과 제조업은 전월보다 증가폭이 축소됐으나 증가를 이어갔다"고 밝혔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

>> 1면 '대한항공, 아시아나 합병'서 계속

아시아나 총 부채 12조 더 지연땐 재무위험 가중

아시아나항공은 "지난 10월 30일에 열린 이사회는 일부 이사 간 이해충돌 이슈 등에 대한 의견 합치가 이루어지지 않아 안건 의결에 들어가지 못하고 잠시 정회됐다"며 "이사들의 일정을 조율해 11월 초에 정회된 이사회를 다시 열고 최종 결론을 내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한항공은 EC 측에 제출할 시정조치안 제출 시간을 연기해 달라는 양해를 구하고 일정을 재검토할 계획이다. 여기에 아시아나항공 이사회를 설득하는 작업을 병행할 방침이다.

대한항공 공시에 따르면 시정조치안에는 ▲유럽 4개 노선에 대체 항공사(remedy taker)가 진입하기 위한 대한항공의 지원 방안과 진입 허가 동의서(Entry Commitment Agreement) 체결 ▲신주인수계약 거래종결 후 아시아나항공의 화물사업부 분할 방안이 담겨 있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조만간 합리적인 의사결정이 내려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시정조치안 제출 관련해서는 EC 측에 양해를 구하고 일정을 재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결합심사가 차일피일 미뤄지면서 채권단(산업은행)도 심리적 부담이 확대되고 있다. 이미 3조6000억원의 공적자금을 투입한 상태에서 다른 인수 주체를 찾는 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올해 상반기 기준 아시아나항공의 총부채는 12조원, 부채비율은 1741%에 육박한다. 양사의 기업결합이 늦춰질수록 영업 환경은 물론 재무 위험도 커질 수밖에 없다.

항공업계 관계자는 "기업결합 심사가 3년가량 이어지면서 기업은 물론 산업계 전반에 부담이 확대되고 있다"며 "합병 작업이 장기화 될 수 록 우리 항공업계 경쟁력이 악화되는 만큼 장기적으로 서로 득이 될 수 있는 결론을 내길 바란다"고 말했다.

/양성운 기자 ysw@

오비 이어 하이트도 소주·맥주 가격 6%대 인상

9일부터 참이슬·켈리·테라 등

오비맥주에 이어 하이트진로도 맥주, 소주 등 주류 제품들의 출고가를 인상했다.

하이트진로는 주정 및 공병 가격 인상 등의 이유로 다음달 9일부터 소주 제품인 '참이슬 후레쉬'와 '참이슬 오리지널' 출고가를 6.95%(80원) 인상한다고 31일 밝혔다. 또, 맥주 '켈리'와 '테라'의 출고가도 6.8% 인상하기로 했다.

소주 제품의 경우 360㎖ 병과 1.8L 미만 페트류가 인상 대상이다. 농어촌 중심의 소비가 많은 담금주를 포함한 1.8L 이상의 페트류 제품과 일품진로 등은 이번 인상에서 빠졌다.

맥주 '켈리'와 '테라' 출고가도 같은 날부터 평균 6.8% 인상한다. 판매 비율이 높은 500㎖ 캔맥주의 경우 인상 대상에서 제외했다. 최근 출시한 한정판 제품인 '테라 싱글몰트', '필라이트 로우칼로리'도 인상 품목에서 제외됐다.

가성비가 중요한 발포주 '필라이트' 계열 제품은 소비자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판매 비중이 높은 355㎖캔과 1.6L 페트 품목은 인상률을 최소화했다.

하이트진로 측은 "연초부터 소주의 주원료인 주정 가격이 10.6% 인상되고 신병 가격은 21.6%나 인상되는 등 원부자재 가격, 물류비, 제조경비 등 전방위적으로 큰 폭의 원가 상승 요인이 발생했으나, 정부의 물가안정 노력에 발맞추고 소비자들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선에서 인상률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오비맥주는 '카스'와 '한맥' 출고가를 6.9% 인상한 바 있다. 롯데칠성음료는 맥주 제품 '클라우드'의 가격 인상을 검토하고는 있지만 구체적인 계획은 없다고 전했다.

/신원선 기자 tree683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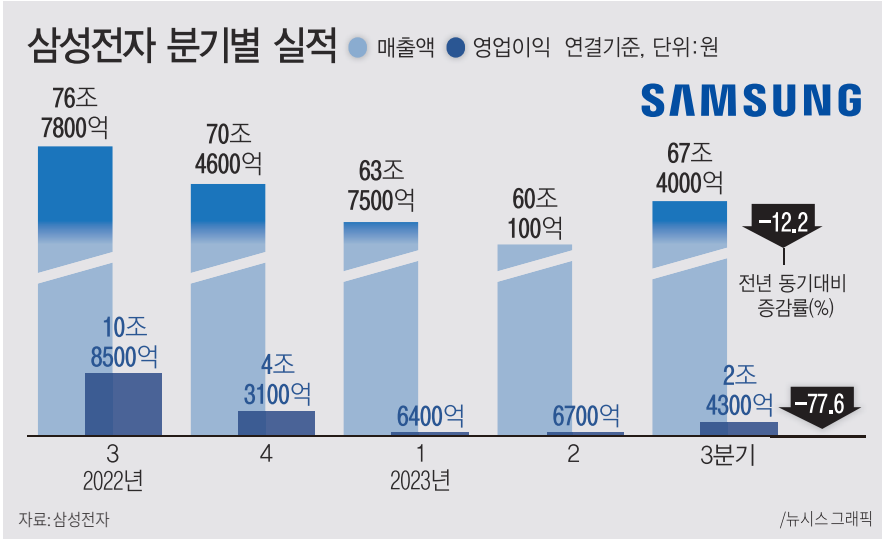
반도체사업 적자탈출 속도… HBM 등 초격차 리더십 관건

반도체 적자폭 크게 줄여
고부가가치 제품 경쟁력 집중
연말 흑자전환 기대감 표출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이 3분기 적자 탈출에 속도를 붙였다. 연말부터는 흑자 전환에 더욱 가까워질 것으로 기대된다. HBM 등 고부가가치 제품 리더십을 탈환하는 게 관건이다.

31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 DS부문은 3분기 영업적자 3조7500억원을 기록했다. 올해 누적 적자는 12조7000억원에 달한다.

반도체 시장이 여전히 저조했던 탓이다. 그나마 삼성전자는 갤럭시Z폴드·플립5가 인기를 끌면서 MX 사업부문에서 높은 실적을 기록했지만, 전세계적인 전방산업 침체는 여전하다. 수요도 아직까지는 지지부진하다는 게 중론이다. SK하이닉스와는 달리 D램 흑자 전환에도 실패한 것으로 추정된다.



앞서 SK하이닉스와 미국 마이크론이 각각 1조7000억원, 2조원 수준 적자를 밝힌 바 있다. TSMC 역시 3분기에 시장 전망을 넘어서긴 했지만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25%나 줄었다고 공개했다.

대신 삼성전자는 반도체 적자폭을 크게 줄이는데 성공했다. 삼성전자 영업적자가 2분기(4조3600억원)에는 1분기(4조5800억원)보다 2200억원 줄어드는데 그쳤지만, 3분기에는 6000억원이나 감소했다. 증권가 전망치도 충족했다.

메모리 시장이 정상화하는 신호로 해석된다. HBM과 DDR5 등 고부가 제품 판매가 늘어나면서 D램 가격이 상승, 수익률이 크게 개선됐다는 설명이다. 특히 LLM을 중심으로 한 인공지능(AI) 반도체 시장 수요 급증으로 HBM과 같은 AI 가속기와 관련한 제품군에서는 공급 부족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다. 삼성전자 파운드리도 고성능컴퓨팅(HPC) 중심으로 역대 최대 분기 수주를 달성했다고 소개했다.

앞으로도 이같은 추세는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삼성전자는 고객사 재고가 정상 수준으로 떨어졌다며, 가격 상승폭도 확대될 것으로 예상했다.

다른 반도체 기업들도 같은 입장을 보이고 있다. SK하이닉스와 마이크론은 물론, TSMC와 인텔 등 기업들이 연말 실적 상승에 입을 모았다. DDR5 규격 확대 열쇠를 쥐고 있는 인텔이 시장 기대치를 훌쩍 넘은 실적을 발표하면서 기대감도 커졌다.

다만 경쟁이 치열해지는 상황, 삼성전자는 고부가가치 제품을 중심으로 경쟁력을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최근 들어 HBM3를 본격적으로 출하하기 시작했다며, 내년 상반기에는 HBM3E 양산으로 이어간다고 밝혔다. 생산 규모도 올해보다 2.5배 이상 늘린다. 고성능 14나노급 D램을 기반으로 만들어 상품 경쟁력도 높다고 자신했다.

아울러 위기속에서도 투자를 지속한 덕분에 평택캠퍼스 3기를 초기 가동 중이라며 선단공정을 적극 도입하고 다양한 차세대 인터페이스 제품 등 소비자 니즈를 충족하는 제품을 출시하겠다고 약속했다.

파운드리에서는 게이트올어라운드(GAA)와 3나노 경쟁력을 내세웠고, 어드밴스드 패키지 사업에서는 HBM과 2.5D 패키징을 아우르는 턴키 주문 등을 수주했다며 내년 본격적인 사업 확대를 예상했다.

회복이 느린 낸드플래시도 업계에서 유일하게 싱글스택으로 160단 수준을 달성했다며, 300단대인 9세대 V낸드를 출시하면서 자연스럽게 경쟁력을 높이고 수익성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김재웅 기자 juk@metroseoul.co.kr

'S23·플립5' 등 프리미엄 스마트폰 실적 효자

신제품 효과 주효… 실적 견인
내년 AI기술 탑재 스마트폰 예고

삼성전자 MX(모바일경험) 사업부문이 프리미엄 폴더블폰 신제품 효과로 어려운 업황 속에서도 3분기 실적을 견인했다.

삼성전자는 31일 올해 3분기 실적발표 콘퍼런스콜을 개최했다. 특히 MX 사업부는 폴더블 신제품과 갤럭시S23을 앞세워 3분기 실적 '효자'로 급부상했다.

◆ '역성장' 속 견조한 실적 올린 MX

삼성전자 MX·NW(구 IM) 사업부는 3분기 연결기준 매출 30조원, 영업이익 3조3000억원을 거뒀다고 공시했다. 전년 동기 매출은 6.9% 감소했지만 영업이익은 1.9% 증가했다.

시장분석업체 한국IDC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올해 국내 스마트폰 출하량은 약 280만대로 전년 동기 대비 13.2% 감소했다. 두 자릿수 하락세가 지속되는 시장에서 삼성전자는 신제품 폴더블 기기인 '갤럭시Z플립5·폴드5'를 앞세워 실적을 끌어올렸다. 지난해 갤럭시Z4 시리즈를 발매한 시점보다 2주 정도 빠르게 발매한 갤럭시Z플립5·폴드5는 사전판매량(102만대)를 기록하며 '국내 기준 역대 최고'라는 타이틀을 획득했다.

삼성전자는 향후에도 폴더블 스마트폰 시장이 성장할 것으로 예측했다. IDC도 올해 글로벌 폴더블폰 출하량은 전년대비 50% 증가한 2200만대로 관측하고 있어 플래그십 폴더블 시장이 4분기에도 실적을 견인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더불어 올 초 발매한 플래그 스마트폰 라인인 갤럭시S23의 시리즈도 판매 모멘텀을 유지해 매출 상승에 일조했다.

삼성전자 측은 "폴더블·태블릿 신모델 판매가 호조를 기록했다"며 "주요 제품군 플래그십 비중 확대 등으로 매출·ASP 상승 및 리소스 효율화로 견조한(전 분기 대비) 두 자리 수익성을 확보했다"고 말했다. 이어 "다음해 경기 회복세에 맞춰 플래그십 출하량은 두 자릿수 성장을 목표로 잡았다"고 밝혔다.

다니엘 아라우조 삼성전자 MX(모바일 경험) 사업부 상무는 "2024년 폴더블폰 시장은 전 지역 성장세가 전망된다"며 "플래그십 내에서의 비중도 계속 확대될 것으로 보고, 젊은 세대와 여성을 중심으로 고객 기반을 확대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어 "노트북이나 태블릿 등 타 제품군으로의 폴더블 확산에도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덧붙였다.

◆ 플래그십 주력하면서 중고시장 활성화도 검토

컨퍼런스콜을 통해 플래그십 스마트폰 판매를 재차 강조했지만 삼성전자는 다각도로 수익 창출을 노리고 있다.

특히 삼성전자는 국내에도 '리뉴드폰(Re-Newed)'을 출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리뉴드폰은 삼성전자가 품질을 공식 인증하고 직접 판매하는 '중고 스마트폰'으로 소비자는 성능이 보증된 중고폰을 신제품 대비 15~50%까지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다. 강봉구 삼성전자 한국총괄 부사장도 지난 27일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리뉴드폰 출시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기존에는 리뉴드폰을 영국, 프랑스, 미국 3개 국가에 선보였다"며 "국내 시장 상황을 지켜보고 있으며 리뉴드폰 국내 활성화 시기를 비롯해 어떤 스마트폰 시리즈를 리뉴드폰으로 낼 것인지에 대해서는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이 외에도 삼성전자는 생성형 인공지능(AI) 기술을 탑재한 스마트폰을 내년에 선보일 예정이다. 외부 클라우드에 접속하지 않고 기기 내에 생성형 AI 기능을 탑재하는 온디바이스 방식으로, 본격적인 'AI 스마트폰' 시대를 준비하기 위한 포석을 깐 셈이다.

갤럭시Z플립5, 폴드5 /손진영 기자 son@

아라우조 MX사업부 기획그룹장은 "향후에도 스마트폰이 AI의 가장 중요한 액세스 포인트일 것"이라며 온디바이스 AI 기술 등을 준비 중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AI 기술의 중요성과 가능성을 단말기에서 새로운 경험으로 구현하기 위해 노력 중"이라면서 "고객들이 사용하는 핵심 기능에 AI를 적용하고, 사용자 패턴과 선호도를 기반으로 최적화해 더욱 의미 있고 혁신적인 경험을 내년부터 제공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허정윤 기자 zelkova@

〉〉 1면 '삼성전자 영업익… '서 계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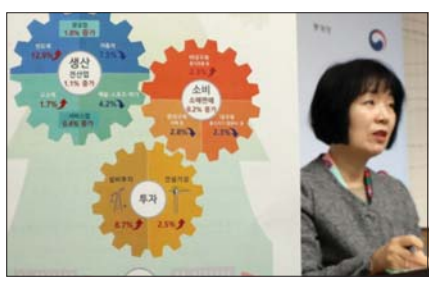
반도체산업 회복세… 생산·소비·투자 '트리플' 증가

통계청 9월 산업활동 동향
전월比 반도체 생산 12.9% 증가
"광공업·제조업 전반 회복 흐름"

지난달 국내 산업생산과 소비, 투자가 모두 늘며 4개월 만에 이른바 '트리플 증가'를 기록했다. 특히 반도체 생산이 전월에 비해 큰 폭으로 증가했다,

통계청이 31일 발표한 '2023년 9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전산업 생산(계절조정·농림어업 제외)은 전월 대비 1.1% 늘었다. 전산업 생산은 지난 7월(-0.8%) 잠시 주춤한 이후 8월에 2.0%, 9월에 1.1% 등 두 달째 증가세를 유지했다.

반도체 생산이 12.9% 증가하며 제조업은 물론, 전산업 생산 증가를 견인했다. 반도체 생산은 지난 7월에 전월 대비 2.5% 줄어든 이후 8월(13.5%)과 9월에 두 자리수 증가폭을 나타냈다.


김보경 통계청 경제동향통계심의관이 3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9월 산업활동동향'을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석유정제(14.6%), 기계장비(5.1%) 등의 생산도 늘었다. 반면 의약품(-13.1%)과 자동차(-7.5%), 1차금속(-4.8%) 생산은 8월에 견줘 감소했다.

제조업 재고율도 113.9%로 8월에 비해 10.4%포인트(P) 내렸다. 기계장비(-9.0%)와 반도체(-6.7%), 1차금속(-2.7%) 등이 재고를 크게 덜었다.

서비스업 생산은 0.4% 증가했다. 도·소매업이 1.7%, 숙박·음식업이 2.4%를 기록했다. 예술·스포츠·여가(-4.2%), 정보통신(-0.7%) 등은 전월대비 줄었다.

김보경 통계청 경제동향통계심의관은 "광공업과 제조업이 전반적으로 회복 흐름을 보이고 있다"며 "기저효과를 감안하더라도 3분기 들어 회복세가 강해졌다"고 밝혔다.

소비(소매 판매)는 음·식료품과 화장품 등에서 판매가 늘며 소폭(0.2%) 증가했다. 7월(-3.2%)과 8월(-0.3%)에 2개월 연속 내림세를 보인 이후 3개월 만에 증가로 돌아섰다.

설비투자는 전월에 견줘 8.7% 늘었다. 이는 지난해 8월 이후 13개월 사이 최대 증가폭이다. 기계류(7.3%)와 운송장비(12.6%) 등이 증가를 이끌었다. 설비투자는 그러나 작년동월에 비해서는 5.7% 감소했다.

김 심의관은 "재화부문 소비는 여전히 주춤한 상태다. 설비투자 역시 작년과 비교하면 낮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경기 상황을 보여주는 동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는 0.1p 내려 4개월 연속 하락세를 보였다. 반면 향후 경기상황을 보여주는 선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는 0.1p 올랐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

전폭적 투자 기조 지킨다
HBM3 출하 등 수익 강화

◆ 투자 지속, 연말 회복 기대

삼성전자는 올해 위기 속에서도 3분기에만 11조4000억원을 투자하며 연말까지 누적 53조7000억원을 미래에 쏟아부을 계획이다. 연간 최대 규모, 올 초 약속했던 것처럼 전폭적인 투자 방침을 지킨다는 방침이다.

삼성전자는 연말부터 회복세가 더 가파를 것이라는 기대도 숨기지 않았다. 글로벌 IT 수요가 점진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전망하며, 특히 '저점'이라는 인식과 AI붐으로 인한 고부가가치 제품 공급난으로 메모리 가격 상승폭 확대에 더해 HBM3 등 본격 출하로 수익성도 크게 회복될 것으로 봤다./김재웅 기자 juk@

김포, 서울시로 편입 "시민이 원해"… 與 '총선용' 해석 경계

의원입법 형태로 편입 절차 방침
광명·구리·하남 등 '서울 광역권'
與 "지역민 등 요구 있을 때 검토"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만희 사무총장, 윤 원내대표, 유의동 정책위의장. /뉴시스

경기 김포시의 서울 편입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힌 국민의힘이 31일 광명·구리·하남 등을 편입하는 '서울 광역권' 문제에 대해 "나머지 지역은 지역민들이나 지역의 요구가 있을 때 검토할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김포 서울 편입이 내년 총선을 대비한 전략이라는 해석을 경계하는 모양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 직후 취재진과 만나 김포시 서울 편입 당론에 대해 "김포를 서울로 편입하는 문제는 김포시민들이 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김포시장을 비롯한 김포에서 공적 책임을 맡고 있는 분들이 서울 편입 주장을 했다"면서 "당에서 여러 가지를 판단한 결과 김포를 서울시로 편입하는 것이 지역주민들을 위해 바람직하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의원입법 형태로 편입 절차를 밟을 방침이다. 윤 원내대표는 김포시 서울 편입을 위한 특별법에 대해 "시작 단계다. 법안이 발의되면 정상적인 법안 심사 과정을 거쳐야 할 것"이라며 "정책위원회에서 검토할 것으로 안다. 아무래도 의원입법 형태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앞서 김기현 대표는 전날 경기 김포시 고촌읍 김포한강차량기지에서 진행한 '해결사! 김기현이 간다-수도권 신도시 교통대책 마련 간담회'에서 김포시의 서울 편입 당론을 전하면서 "(김포뿐 아니라) 서울과 경계 하고 있는 주변 도시 중 출퇴근과 통학을 서울과 직접 공유하는 곳들은 서울로 편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진행하려 한다"고 밝혀 관심을 끌었다.

특히 국민의힘 지도부가 김포시뿐 아니라 서울과 생활권이 겹치는 광명·구리·하남 등 서울 주변 경기도 도시를 서울시로 편입하는 '메가시티' 서울을 고려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여당의 행보가 내년 총선을 대비해 '수도권 위기론'을 타개하기 위한 전략이란 해석이 나왔다.

다만 국민의힘은 김포시 서울 편입 당론 추진이 '총선용'으로 비춰지는 데 조심스러워 하는 기색이다.

윤 원내대표도 '메가시티' 서울 구상에 대해 "현재 단계에서는 김포를 우선적으로 생각하고 있다"며 "나머지 지역은 지역민들이나 지역의 요구가 있을 때 검토할 생각이다. 지역민들의 요구가 있어야 한다"고 일축했다.

김 대표도 윤석열 대통령의 2024년도 예산안 시정연설 후 기자들과 만나 '메가시티' 서울 구상에 대해 "서울 주변 도시의 경우 주민들의 의사를 존중해서 생활권과 행정구역이 일치되도록 하는 것이 우리 국민들을 위한 길"이라며 "주민들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해서 처리를 하는 것이 옳다는 원론적 입장"이라고 선을 그었다.

당에서도 김포시의 서울 편입은 '김포시 지역 주민의 염원'이라는 데 방점을 찍고 있다. 주민들의 요청을 거절할 수 없으며, 총선을 앞뒀다고 해서 주민의 의사를 무시할 수는 없는 것 아니냐는 입장이다.

게다가 경기도가 경기부특별자치도(경기북도)를 추진하면서 김포시에서는 '경기북도보다는 서울시가 낫다'는 여론이 나온 것도 당론 추진의 이유로 보인다.

김포시는 경기북부 도시와는 한강을 사이에 두고 떨어져 있으며, 남부 도시는 인천에 막혀 인접해있지 않다. 이에 '김포시는 섬이냐'는 지적이 나왔고, '서울로 편입해 교통난 등을 해결하자'는 의견이 제기됐다는 것이다.

윤 원내대표 역시 총선 전략이라는 해석에 대해 "지역민들 숙원을 당에서 선제적으로 챙기겠다는 것"이라며 "선거용 전략이라기보다는 선거를 앞두고 지역민들의 여러 가지 전국적인 요구사항들을 정부(여당) 입장에서 응답하는 게 의무"라고 강조했다.

또 그는 교통 문제 해결을 선행하지 않고 도시 통합을 언급했다는 비판에는 "편입과 교통 문제를 다 같이 해결해야 한다"며 "교통망 문제는 관련 부처에서 검토하고 있고, 서울 편입도 지역에서 분출된 것이라 당에서 적극 검토하겠다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서예진 기자 syj@metroseoul.co.kr

고금리에 서울 아파트 거래 급감 매매물건 쌓여 시장 '숨고르기'

9월거래량 3358건… 전달比 12.8%↓
10월 매물량 7.8만건 '역대 최다' 기록
매수자들 관망세에 부동산 시장 '주춤'

집을 사려는 사람들의 관망세가 이어지면서 아파트 거래가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송파구 아파트 단지. /뉴시스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거래 급감으로 집을 내놓은 물건이 쌓이고 있다. 최근 고금리 지속과 정부의 대출 조이기 등이 아파트 매매시장에도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온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매수자들의 관망세로 매매 물건이 쌓여 부동산 시장의 '숨고르기' 국면이 이어질 수 있다고 전망한다.

31일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아파트 거래량은 3358건으로, 전월(3849건) 대비 12.8%(491건) 감소했다. 9월 아파트 매매거래 신고 기한(30일)이 아직 남아 있지만, 이달 서울 아파트 매매 신고가 1091건인 점을 감안할 때 내림세를 보일 것으로 분석된다.

서울의 아파트 거래량은 지난해 6월(1063건) 이후 계속 1000건을 밑돌았다. 올해 1월(1411건) 네 자릿수로 반등했고, 지난 4월(3186건)부터 3000건 이상 거래량이 유지되고 있다.

권역별로는 노원구와 송파구가 257건을 기록하면서 지난달 가장 많은 아파트 매매거래가 이뤄졌다. 강남구(195건), 강서구(180건), 강동구(180건), 성동구(178건), 영등포구(176건), 양천구(175건), 성동구(168건), 구로구(143건), 서대문구(141건)가 뒤를 이었다. 중저가 아파트들이 모여 있는 단지와 정주 여건이 양호한 강남권 지역 중심으로 수요가 양분됐다.

부동산 시장 선행지표인 거래량이 주춤하는 모습을 보이는 가운데 아파트 매물은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 아실에 따르면 이달 서울 아파트 매매 물건(이날 기준)은 7만8406건으로 집계되면서 2020년 10월 집계 이래 역대 최다 기록을 경신했다. 지난 1일 매물량(7만2154건)과 비교하면 약 1개월 만에 8.7%(6252건) 증가했다. 연초 매물량(5만513건)과 비교하면 55.2%(2만7893건) 증가했다.

업계에서는 고금리 상황이 이어지면서 수요자들의 이자 부담이 늘면서 선뜻 매수에 나서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한다. 매도인과 매수인 간 희망가격의 격차가 좁혀지지 않는 상황도 이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당분간 거래가 끊기고 매물이 쌓이는 현상이 지속될 것이란 예상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고금리 여파가 이어지면서 내년 초까지 집값 조정 양상이 나타날 수 있고 매도자와 매수자 간 힘겨루기로 시장이 '숨고르기' 국면에 들어갈 것이라고 내다봤다

박원갑 KB국민은행 수석부동산전문위원은 "대출 속도 조절, 금리 상승, 급매물 소진, 역전세난 등으로 집값 상승률이 둔화하고 있다"면서 "시장에 상승 기대심리도 있기 때문에 당분간 소강 국면 속에 매도자와 매수자 간 힘겨루기가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대환 기자 kdh@

1~9월 국세수입, 전년대비 50조 감소

기업실적 부진에 법인세 20% 줄어

올해 1~9월 국세(稅)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0조 원 넘게 덜 걷힌 것으로 집계됐다. 기업 영업이익 부진 속에 법인세 수입이 20% 이상 줄고, 부동산 거래 감소 등으로 소득세 수입도 15% 가까이 감소한 영향이다.

31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9월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올해 9월까지 누계 국세수입은 266조6000억 원으로 전년동기에 비해 50조9000억원(-16.0%) 줄었다.

세목별로, 소득세(84조6000억 원)가 1년 전보다 14조2000억 원(-14.4%) 감소했다. 지난해 11월~올해 7월 주택매매량이 18.9%, 순수 토지 매매량 역시 34.6% 각각 감소했다. 이 결과 정부의 양도소득세 수입이 줄어들었다.

법인세(71조9000억 원)는 전년보다 23조8000억 원(-24.9%) 덜 걷혔다. 기업 실적 부진과 8월 중간예납 납부세액 감소 등이 반영됐다.

부가가치세(54조9000 억원)는 수입 감소 및 세정지원 기저효과 탓에 6조2000억 원(-10.2%) 줄었다. 1~9월 수입액이 지난해 대비 12.6% 줄면서 관세(5조4000억 원)가 2조8000억 원(-34.6%) 덜 걷혔다. 또 상속증여세(11조1000억 원)가 7.3% 감소했고, 증권거래세(4조9000억 원)가 5.8% 줄었다. 이밖에 유류세 인하 연장 등으로 교통세(8조2000억 원) 수입이 5.6% 줄었다.

다만 기재부는 세정 지원에 따른 기저효과(10조2000억 원)을 고려하면 실질적 세수입은 40조7000억 원 줄어든 수준이라고 밝혔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

캠코 '새출발기금' 예산 집행률 9.2%

예산 15조 중 1조3912억만 집행
전체 신청액 4조6220억에 불과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의 채무조정 프로그램 '새출발기금'의 집행률이 10개월(지난해 10월~올해 8월)간 전체 예산(15조원)의 9.2%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8월까지의 약정 완수율은 56.3%를 넘기면서, 낮은 예산 집행률이 새출발기금의 과도한 심사 기준 때문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일각에서는 새출발기금의 낮은 예산 집행률이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채무조정 수요 감소에 따른 것이라는 분석도 나왔다.

새출발기금에 채무조정이 신청된 전체 채무액은 시행 직후 10개월간 4조6220억원에 그쳐 시행 1년차 예산인 15조원 대비 31%에 불과했다. 전체 신청금액 중 8월까지 채무조정이 인가된 금액은 1조3912억원(29.8%)이다. 채무조정을 신청한 인원은 3만5803명이었으며, 동기간 채무조정이 인가된 인원은 2만167명으로 신청자 중 56.3%가 해당 기간 내에 채무조정을 마쳤다.

/안승진 기자 asj1231@

KB금융그룹
국민의 평생 금융파트너
World EXPO 2030 BUSAN, KOREA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KB국민은행이 함께 응원합니다
도서관이 없어 마음껏 책을 읽지 못하는
아이들을 위하여 시작한 KB작은도서관 프로젝트가
어느덧 108곳에 작은 도서관을 건립하였습니다
마을에 새로 들어선 작은 도서관은
아이들뿐만 아니라 어르신들의 소통 공간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아이들의 꿈과 마을 어르신들의 정이 함께 어우러져
행복한 웃음이 넘치는 곳
올해도 KB작은도서관은 8곳에 건립될 예정입니다
늘 곁에, 더 가까이
KB국민은행
영월 '월담' 작은도서관
KB국민은행
KB작은도서관이란?
KB작은도서관은 평소 책을 접하기 어려운 문화 소외지역 주민들이 문화 활동을 누릴 수 있도록
쾌적한 독서 공간을 제공하고 다양한 독서 문화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도서관 조성 사업입니다

KB국민은행

尹 만난 이재명 "민생 위한 정책" 당부… 막힌 정국 풀리나

국회 시정연설 사전환담

尹 "오랜만입니다" 李 미소 뿐
김진표 "5부 요인 한자리 처음
정치권, 여야 떠나 민생 해결해야"

윤석열 대통령이 31일 2024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에 앞서 국회 의장실에서 김진표 의장 등 5부요인을 비롯해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여야 지도부와 환담을 시작하기 전 이 대표와 인사하고 있다. /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이 31일 국회 시정연설 사전환담에서 제1야당 대표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만났다. 비록 민주당이 제안한 '여·야·정 대표 회동'이나 '영수회담'이 아닌 김진표 국회의장이 주재한 자리였으나, 정치권이 일으키는 각종 정쟁으로 꽉 막힌 정국을 풀어낼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지 관심을 모은다.

지난해 5월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정부여당과 야당은 서로 공방을 벌이며 바람 잘 날이 없었다. 최근 여야가 정당 현수막에서 정쟁을 일으키는 문구를 철거하는 등 '신사협정'을 맺으며 자제하는 분위기를 조성했지만, 민주당이 30일 의원총회에서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 ▲고(故) 해병대 채 상병 사건 수사 외압 ▲감사원 정치감사 ▲윤석열 정부 방송장악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를 추진한다고 밝히면서 정기국회 막판 여야 공방을 예고하고 있다.

정부·여당이 반대하는 노랑봉투법(노조법2·3조 개정안)과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도 야당이 밀어붙여 파열음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의장 주재 사전환담에서 김진표 국회의장, 김영주·정우택 국회부의장,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이재명 민주당 대표,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 이정미 정의당 대표 등 국회 측 인사와 함께 환담을 나눴다. 윤 대통령은 환담장에서 이 대표와 악수를 나누면서 "오랜만입니다"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말 없이 미소만 지었다.

김 의장은 사전환담 공개발언에서 정치권이 갈등을 멈추고 민생경제 해결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제가 의장이 되고나서 이렇게 대통령, 여야 당 대표·원내대표, 5부 요인이 한자리에 모인 것이 처음인 것 같다"면서 "경제가 고물가·고금리·고환율로 매우 어렵다. 그래서 국민에게 희망을 드리기 위해선 정치권이 여야를 떠나서 첫째, 둘째, 셋째도 민생경제 해결이라는 특단의 각오를 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에 "어려운 민생을 저희가 해결하고 신속하게 조치해 드려야 할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국회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린다"면서 "저희들도 민생의 어려움에 대해서 계속 현장을 파고들고 경청하면서 국회에도 저희들이 잘 설명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정부에서 예산안을 편성한 입장에서 국회에서 언제든 요청하시는 자료와 설명을 아주 성실하게 잘 해드리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후 비공개로 진행된 환담에서 이재명 대표는 "민생 현장이 너무 어려우니 정부부처는 이런 점에 좀더 신경쓰며 정책을 집행해달라"고 민생에 주안점을 둔 것으로 알려졌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민생 앞에 여야가 없다. 민생이 어려운 만큼 예산안은 법정기한 내에 처리돼야 한다"며 "낭비성 예산, 퍼주기 예산은 과감히 정리하고 약자복지를 두텁게 하고 서민경제를 위한 예산을 강화하자"며 협치와 민생에 중점을 뒀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시정연설 관련 브리핑을 열고 "대통령께서 상임위원장 간담회에서 주신 말씀은 앞으로 국정 운영과 정책 입안 과정에 잘 반영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국회와 야당을 존중하고 국정을 전환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면서 "말이 아니라 실천과 행동을 보여주길 바란다. 정부여당이 하는 것에 따라 달려있는 것으로 알겠다"고 했다. /박태홍 기자 pth7285@metroseoul.co.kr

尹 "취임 후 가장 편안하고 기뻐… 국회 의견 경청할 것"

상임위원장단·여야 원내대표 간담회

홍익표 "야당 협치 문제 아쉬움 커"
윤재옥 "통합 위해 헌법적 가치 존중"

윤석열 대통령은 31일 국회에서 2023년도 정부 예산안 시정연설을 계기로 국회 상임위원장단 및 여야 원내대표와 간담회를 가졌다. 지난 5월 윤 대통령과 여야 원내대표, 상임위원장단 회동 논의가 정국 급랭으로 무산된 지 5개월 만이다.

윤 대통령은 "오늘 국회에 와서 의원들과 많은 얘기를 하게 돼 취임 이후 가장 편안하고 기쁜 날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회 접견실에서 진행된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국회는 오늘로 세 번째 왔지만 상임위원장들과 다 같이 뵙는 것은 오늘이 처음인 것 같다"면서 "정부의 국정운영, 또는 국회의 의견 이런 것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잘 경청하고 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에 앞서 발언을 한 김진표 국회의장은 "우리 경제를 둘러싼 대내외 경제 상황이 참으로 엄중하다"며 "이럴 때일수록 국회와 정부가 굳게 손을 잡고 국민들에게 힘을 모으는 모습을 보여드려야 된다. 그래야 국민들에게 작은 희망이라도 품을 수 있게 해드릴 수 있는 것 같다"고 했다.

특히 김 의장은 "오늘 간담회가 우리 국민들에게 '대화와 타협의 정치가 시작됐다'는 사실을 알리는 뜻깊은 신호탄으로 받아들여지면 좋겠다"면서 "통즉불통(通則不痛)이라는 말이 있다. 소통하면 국민이 아프지 않게 된다는 말씀"이라고 말했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 발언이 끝난 후 "대통령께서 우리 야당에게 섭섭한 것도 있으시겠지만, 우리 야당의 입장에서는 안타깝게도 대통령께서 국회를 좀 존중하는 문제, 그 다음에 야당과 협치하는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아쉬움이 큰 부분도 있다"면서 윤 대통령의 연이은 법률안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등을 지적했다.

또 홍 원내대표는 "재정건전성과 관련해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한 것 아닌가 하는 게 야당과 또 일부 상당수 국민의 생각이다. 든든한 버팀목이 되는 국가 재정적 역할을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요청했다. 윤 대통령은 이 대목에서 고개를 끄덕거렸다.

홍 원내대표는 "대통령의 책임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불행한 사건이 몇번 반복됐다"며 "이태원 참사, 오송 참사에 대해 좀 더 대통령께서 따뜻한 손을 내밀어 주셨으면 좋겠다. 현장에서 그분들과도 소통하고 말씀을 좀 들어달라"고 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금 우리 국민들은 여야가 분열의 정치에서 통합의 정치로 나아가길 바라고 있다"며 "통합의 정치, 국민 통합을 위해서는 대통령께서 늘 강조하시는 헌법적 가치를 존중하고 실현하는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과거에는 종교가 국민 통합의 구심점이었지만 탈종교 시대를 맞이해서 종교를 대신할 수 있는 것은 헌법적 가치"라며 "여야가 격렬한 논쟁을 벌일 때조차도 헌법적 가치를 중심으로 통합의 끈을 놓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홍 원내대표가 야당에 대한 존중과 배려를 요구한 데 대해 "깊이 인정하고 실천하겠다"며 "여야가 지금까지는 오월동주(吳越同舟)의 관계였다면 이제는 같은 배를 타고 가는 동주공제(同舟共濟)의 관계를 이루기를 바란다"고 화답했다.

이날 오전 10시51분 시작된 간담회는 낮 12시13분까지 80여분간 이어졌다.

이어서 윤 대통령과 참석자들은 국회 사랑재로 이동해 낮 12시18분부터 오후 1시22분까지 약 1시간 가량 오찬을 했다. 오찬은 국회 측의 제안에 따라 질 바이든 여사 등 명사들이 찾은 유서 깊은 사찰인 진관사에서 준비했다. /서예진 기자 syj@

김한길 "청년 1인가구 위해 정책적 관심·배려 필요"

〈국민통합委 위원장〉

'청년 1인가구 대응 특별委' 출범식
1인 가구 700만 중 청년 30% 차지
현실적·내실있는 정책 발굴 요청

김한길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 위원장이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청년 1인가구 대응 특별위원회' 출범식에 참석해 특위 위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

김한길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 위원장이 "청년 1인가구가 좀 더 건강하고 안정적인 환경에서 살아가며 더 나은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정책적 관심과 배려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김한길 위원장은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청년 1인가구 대응 특별위원회' 출범식에 참석해 "현재 1인 가구 수는 700만을 훨씬 넘어섰고, 그중 청년 1인 가구가 약 30%를 차지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위원장은 "청년 1인가구는 부모의 품을 떠나 당당한 성인으로서 홀로서기를 선택했다는 점에서 칭찬과 격려를 받아야 한다"며 "동시에 경제적 어려움이나, 범죄의 피해자가 될 수도 있다는 불안감 등 청년 1인가구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많은 청년들이 여러 가지 다른 이유로 청년 1인가구로 살아가고 있다"며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는 말도 있지만, 사실 고생은 젊어서나 늙어서나 안 할수록 좋은 게 사실"이라고 했다.

김 위원장은 "노인이든 젊은이든 나이 자체가 벼슬이나 주홍 글씨가 돼서는 안 되고, 될 수도 없다"며 "청년 1인가구 대응 특위에서 청년 1인가구들의 진지한 목소리를 경청하고 활발한 논의의 장도 마련해서 현실적이고 내실 있는 정책을 발굴해 달라"고 당부했다. /박정익 기자 pathfinder@

김건희 여사, '적십자 바자'서 에코백 기증

"소외된 이웃에 손길 전하고자 방문"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31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2023 적십자 바자 행사에 참석, 재활용품 부스에서 구입한 옷을 담은 '바이바이 플라스틱' 에코백을 받고 있다. /뉴시스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2023 적십자 바자' 행사에 참석해 관계자와 자원봉사자들을 격려했다.

적십자사 명예회장인 김 여사는 31일 올해로 40주년을 맞은 적십자 바자 개최를 축하하고 바자 부스를 둘러봤다.

김 여사는 주한외교대사 부인들이 각국의 민예품, 특산품 등을 판매하는 부스와 재활용품 판매 부스를 찾아 물품을 살펴보고 구매했다.

아울러 김 여사는 구입한 물건을 담아갈 수 있도록 '바이바이 플라스틱' 에코백을 기증했다.

지난 1984년 시작한 바자는 대한적십자사 수요봉사회와 기업들의 사회공헌으로 마련된 다양한 물품을 판매, 수익금과 기부금을 사회취약계층 지원과 재난구호활동 등에 사용하고 있다.

대통령실은 "김 여사는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소외된 이웃에게 사랑의 손길을 전하기 위해 행사장을 찾았다"고 설명했다. /박정익 기자

지구를 위한 그린플루언서 SK ie technology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SK도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더 나은 지구와 인류의 미래를 위한 행동,
World EXPO 2030 BUSAN의 시작!
WAVE

[이 작품은 다음 키워드를 기반으로 SK이노베이션과 AI가 함께 그린픽쳐입니다]
#전기차 부품 핵심 기술 #배터리분리막 #안전함 #세계를 움직이는

작품명 **안전한 기술이 타고 있어요**

SK아이이테크놀로지의
CES* 혁신상 수상에 빛나는 배터리 분리막 기술력이
전 세계 전기차를 안전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CES (The International Consumer Electronics Show)

Hi SK아이이테크놀로지의 **그린픽쳐**

SK innovation SK energy SK geo centric SK on SK enmove SK incheon petrochem SK trading international SK ie technology SK earthon

현대건설, 힐스테이트 더웨이브시티 분양
분양가상한제 적용… 합리적 가격 돋보여

Advertorial Corner

시흥시 정왕동 시화MTV 거북섬 일대
지하3~지상35층 12개동 1796가구
전용 60~85㎡ 오피스텔 84~119㎡

힐스테이트 더웨이브시티 조감도. /현대건설

현대건설이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시화 멀티테크노밸리(MTV) 거북섬 일대에 '힐스테이트 더웨이브시티'를 분양한다고 31일 밝혔다.

힐스테이트 더웨이브시티는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일원에 위치하며, 지하 3층~지상 35층, 12개동, 전용면적 60~85㎡ 공동주택 851가구, 전용면적 84~119㎡ 오피스텔 945실, 총 1796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현대건설은 공동주택 851가구만 먼저 분양에 나선다. 타입별 가구수는 공동주택 ▲60㎡ 326가구 ▲85㎡A 175가구 ▲85㎡B 350가구로 구성된다. 4베이(Bay) 판상형 구조(일부 가구) 및 남향 위주의 배치로 채광과 통풍이 우수하다.

현대건설은 분양가가 합리적으로 책정돼 높은 가격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점이 돋보인다고 설명했다. 단지가 위치한 시화MTV는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으로 기존 주택 가격보다 저렴한 수준에 공급돼 수요자들은 상대적으로 적은 부담으로 내 집을 마련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올해 7월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지 않는 시흥 은행동에서 분양됐던 '시흥 롯데캐슬 시그니처'의 3.3㎡당 평균 분양가가 블록별로 각각 1921만원, 1908만원이었던 것과 비교해 힐스테이트 더웨이브시티는 약 500만원 저렴한 1410만원으로 책정됐다.

힐스테이트 더웨이브시티가 들어서는 거북섬 일대는 상업, 주거, 관광시설을 복합적으로 갖춘 수도권 최대의 해양레저복합도시로 조성 중이다. 단지 바로 앞에는 국내 최대 규모의 인공서핑장 '웨이브파크'가 위치해 있고, 다양한 해양 액티비티를 즐길 수 있는 글로벌 레저 쇼핑 시설 '보니타가'도 자리잡고 있어 쉽게 이용이 가능하다. 해양 테마시설 '해양생태과학관(2024년 예정)', '아쿠아펫랜드' 등 대규모 국비사업이 진행 중이다.

단지 바로 맞은 편에 시화나래 유치원과 초·중학교가 위치해 있어 도보 통학이 가능한 만큼 학부모 수요자들의 선호도가 높은 우수한 교육환경도 자랑한다.

분양 관계자는 "비규제지역 내 공급돼 청약진입 장벽도 낮기 때문에 내 집 마련을 원하는 수요자들의 문의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전했다.

/김대환 기자 kdh@

연 13% 이상 금융상품 등장
은행권, 고금리 미끼로 수신 경쟁

당국, 과도한 수신 경쟁 우려
조달비 상승땐 제2금융 타격

까다로운 우대금리 조건 많아
가입 전 실질 금리 확인 필요

주요 은행들이 돈을 유치하기 위해 고금리 상품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 서울시내 시중은행 ATM기. /뉴시스

주요 은행이 자금 유치를 위한 고금리 경쟁을 펼치고 있다. 채권시장 경색으로 자금 조달이 힘들어지면서 돈을 유치하기 위한 전략이다. 일부에선 연 13% 이상의 금융상품도 등장했다. 하지만 고금리 금융상품 대다수가 우대금리 조건이 까다롭다. 금융당국은 과도한 수신경쟁을 우려해 은행권에 자제를 당부한 상태다.

31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시중은행·지방은행은 지난해 하반기 유치한 고금리 금융상품의 만기를 앞두고 자금 확보를 위해 최고 연 13%에 달하는 고금리 금융상품을 경쟁적으로 출시하고 있다.

대규모 예·적금 만기에 따른 자금 이탈을 막고, 타 은행으로부터 새 고객을 끌어오기 위한 전략이라는 게 금융권의 분석이다.

은행권은 지난해 말 '레고랜드 사태' 이후 이어진 채권시장 경색에 당국 요청에 따라 은행채 발행을 최소화하고 고금리 상품 수신으로 자금을 유치한 바 있다. 해당 상품들의 만기가 다가오는 만큼 자금난을 피하기 위해 경쟁적으로 자금 조달에 나서고 있다.

그러나 고금리 금융상품 중에는 충족하기 어려운 조건을 걸고 우대금리를 제공하는 '미끼 상품'이 많아 가입에 앞서 자신이 적용받을 수 있는 실질 금리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현재 가입기간 1년 이하의 금융상품 중 최고 금리를 제공하는 상품은 전북은행이 판매하는 'JB슈퍼씨드 적금'이다. 기본 연 3.60%, 최고 연 13.60%의 금리를 제공한다. 10%포인트(p)의 금리는 추첨을 통해 우대금리로 제공하며, 적금을 12개월 유지했을 때 우대금리 대상자가 될 확률은 약 2.2% 안팎이다.

광주은행의 '광주은행제휴적금with유플러스닷컴'은 기본 연 3%, 최고 연 13%의 금리를 제공한다. 주 은행 계좌를 통해 납입금을 자동이체 납부할 경우 0.5%포인트(p), 제휴통신사에서 판매하는 특정 요금제를 신규 가입하고 유지해야 9.5%p의 우대금리를 각각 적용받을 수 있다.

우리은행의 일일적금 상품 '데일리워킹 적금'은 기본 연 1%, 최고 연 11%의 금리를 제공한다. 우리은행이 제공하는 만보기 앱을 통해 측정한 걸음 수가 입금일 기준 1만보 이상일 경우에만 당일 납입금에 한해 연 10%p의 우대금리를 적용한다.

부산은행의 '너만 Solo 적금'은 가입기간에 따라 기본 연 2.50%의 금리를 제공하고, 최고 금리는 9.00%다. 가입기간 중 혼인신고가 성사될 경우 5.00%p, 혼인신고 대상자가 동일 상품 가입자일 경우 0.50%p 등 최대 6.5%p의 우대금리를 조건부로 제공한다.

수신 경쟁 과열이 대출금리 상승을 불러올 수 있는 만큼 금융당국은 은행의 과도한 수신 경쟁을 우려하는 모습이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25일 전국 10개 시중은행 부행장과 '은행권 자금 조달·운용 간담회'를 열어 시장금리 상승폭을 상회하는 과도한 수신 경쟁 자제를 당부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은행 간 수신 경쟁이 과도해질 경우 대출금의 원천이 되는 조달 비용까지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수신 경쟁 과열로 조달 비용이 상승할 경우 이미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제2금융권에 막대한 타격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안승진 기자 asj1231@metroseoul.co.kr

DL이앤씨 성수동 '아크로 서울포레스트' 하이엔드 아파트 선호도 3회 연속 '1위'

보증금 20억, 월세 4500만원
올해 서울 아파트 임대료 최고

아크로 서울포레스트. /DL이앤씨

DL이앤씨는 서울 성수동에 위치한 '아크로 서울포레스트'가 올해 최고가 임대료를 기록했다고 31일 밝혔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7월 아크로 서울포레스트 전용 264㎡(47층)가 보증금 20억원, 월세 4500만원에 임대차 계약이 체결됐다. 올해 서울 아파트 최고 임대료(월세 기준)며 2년 전에 비해 월세가 1800만원 오른 가격이다.

DL이앤씨는 올해 서울에서 월세 기준 2000만원 이상 아파트 임대차 계약 27건 중에 무려 11건이 아크로 서울포레스트에서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매매가 또한 주목할 만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7월 아크로 서울포레스트의 전용 198㎡가 95억원에 팔린 데 이어 한 달만에 99억원에 거래되며 신고가를 경신했다. 이는 종전 거래가(55억2000만원) 대비 70% 이상 오른 가격이다.

DL이앤씨는 아크로의 독보적 가치와 위상은 아파트 브랜드 선호도 평가에서도 나타난다고 강조했다. 부동산 빅데이터 플랫폼 다방이 지난달 11일부터 24일까지 전국 10~50대 남녀 1만7168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2023년 하이엔드 아파트 브랜드 선호도 설문'에 따르면 전체 인원의 41.7%가 가장 살고 싶은 브랜드로 아크로를 선택했다고 발표했다. 남녀 성별 상관없이 전 연령대에서 선호를 받으며 3회 연속 1위를 차지했다.

DL이앤씨 관계자는 "아크로는 역세권, 학군 등 전통적인 부동산 평가 지표를 넘어 지역의 변화를 주도하고 서울 부촌의 지도를 바꾼 브랜드로 인정받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고객의 다양한 니즈를 반영해 최고의 하이엔드 주거 브랜드로서 위치를 공고히 할 것"이라고 전했다.

/김대환 기자

우리銀, 내년 인도에 2개지점 추가 개설

푸네·아마다바드 지점 예비인가
인도 전역에 총 5개 지점망 구축

우리은행이 최근 인도 중앙은행으로부터 푸네, 아마다바드 지점 개설 예비인가를 획득해 2024년 상반기 중 개점할 예정이라고 31일 밝혔다.

지난 2012년 첸나이 지점을 시작으로 2017년 구르가온(델리), 뭄바이 지점을 개설한 우리은행은 이번 예비인가를 계기로 내년까지 인도 전역에 총 5개의 지점망을 구축하게 된다.

푸네는 인도 서부 자동차산업벨트의 핵심도시로 인도 및 외국적 자동차의 생산 공장과 포스코, LG전자 등 다수의 한국계 자동차부품 협력업체가 진출해 있어, 우리은행은 한국계 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에 적극 나설 예정이다.

아마다바드는 세계 최대 석유화학단지이자 인도 수출 점유율 1위 항만 지역으로, 224개의 대형 산업단지와 26개의 SEZ(경제자유구역)가 자리잡고 있다. 우리은행은 이곳 현지 우량기업을 대상으로 활발한 영업을 펼칠 예정이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인도는 세계 공급망 재편의 최대 수혜지역이자 초대형 신흥 성장국가로 글로벌 대기업 및 국내기업의 대규모 투자가 이루어지는 곳"이라며 "이번 예비인가 획득을 계기로 우리은행은 인도 경제와 동반성장하며 아시아 넘버원(No.1) 글로벌 금융사 도약의 계기로 삼겠다"라고 말했다.

/이승용 기자 lsy2665@

카뱅, 중신용대출 금리 최대 0.75%p ⬇

중저신용대출 비중 30%달성 노력

카카오뱅크가 중저신용자를 대상으로 한 '중신용대출' 금리를 최대 0.75%포인트(P) 인하한다고 31일 밝혔다. 중저신용자는 신용평점이 KCB 기준 860점 이하인 차주다.

카카오뱅크 관계자는 "이달 초 중신용대출의 금리를 인하한데 이어, 추가로 금리인하를 단행했다"며 "연속적으로 금리를 인하해 중신용대출의 금리는 연 4.05%로 낮아졌다"고 말했다.

중신용대출상품은 연소득 2000만원 이상으로, 재직기간이 1년이상이라면 가능하다. 최대한도는 1억원이다.

한편 카카오뱅크는 지난 2017년 7월 이후 꾸준히 중저신용자를 대상으로 중신용대출을 공급해 누적 9조5655억원을 달성했다. 올해들어 공급한 금액은 2조4549억원이다.

카카오뱅크 관계자는 "남은 기간까지 중저신용자, 금융이력부족자 등 금융소외계층을 대상으로 대출을 공급하겠다"며 "중저신용대출 비중 목표치인 30% 달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나유리 기자 yul115@

BNK부산은행
금융소비자 보호지수 2년 연속 '우수 기업'

BNK부산은행은 한국능률협회컨설팅(KMAC)이 발표한 '2023년도 한국의 금융소비자보호 지수' 지방은행 부문에서 2년 연속 우수 기업으로 선정됐다고 31일 밝혔다.

부산은행은 금융소비자의 긍정적인 체험을 위해 ▲CX익스프로러(고객패널) 제도 ▲금융소비자보호 영업점 통합컨설팅 제도 ▲시니어 서포터즈 제도 ▲이동점포 ▲어르신 전용 상담센터 등을 운용하고 있다.

/안승진 기자

일감 쏟아지는 조선업계 '안전보건경영' 노 젓는다

건조물량 늘며 안전관리 역량 집중

HD현대重 자회사 안전조직 개편
삼성重 화재 등 비상상황 대응 훈련
한화오션 자동화 스마트 야드 구축

국내 조선업계의 건조 물량 확대에 따라 안전사고에 증가 우려도 함께 커지고 있어 작업 시 안전관리가 업계의 주요 사항으로 떠오르고 있다.

3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2022년 기준 선박건조 및 수리업의 사망만인율(노동자 1만 명당 산업재해 사망자 수)은 3.68%로 집계됐다. 이는 제조업 평균 1.27%의 3배에 달하는 수치다.

이에 조선업계는 산업재해를 줄이고 ESG 경영에 발맞춰 나가기 위해 안전보건경영을 전개 중이다. 조선업계는 안전보건 경영을 위한 부서를 별도로 구성해 스마트 관제 시스템, 안전위험 경보제도 실시, LNG 실증설비 비상상황 대응 계획 수립 등 기술 측면의 안전 점검과 교육을 통해 안전 문화 확산에 힘을 쏟고 있다.

조선소는 업무 공간의 특성상 위험 요소가 곳곳에 도사리고 있다. 높은 곳이나 복잡한 배관이나 기계 설비 사이 등 밀폐된 공간에서 작업을 진행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 이 외에도 조선소에는 다양한 유형의 산업재해가 발생한다. 추락, 충돌, 넘어짐, 화재와 폭발을 비롯해 무리한 동작과 자세로 인한 근골격계 질환 등의 위험 상황이 발생하기 쉽다.

각 사마다 현장 사고 예방을 위해 나설 수밖에 없는 이유다. HD현대중공업 노사는 현장 안전 점검 활동을 펼친다. HD현대중공업 노사는 선박 건조 도크와 건조 중인 선박 내부 등 야드 곳곳을 돌며 직접 중대재해 위험 요소를 살피고 불안전한 작업에 대한 개선을 지시하는 등 안전 관리에 집중한다.

더불어 HD한국조선해양을 비롯한 HD현대중공업의 조선 자회사는 각 사별로 안전 조직을 개편해 전문 담당 인원을 배치했다. 관리감독자, 안전지킴이, 안전요원 3중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설비 측면에서도 CCTV, AI 기술을 접목한 스마트 관제 시스템을 운영한다.

삼성중공업은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통해 사업장의 안전과 보건, 자율적 재해예방 활동 강화를 위해 노사위원회를 구성해 산업재해를 줄이기 위한 안건을 심의한다. 특히 LNG 실증설비가 늘어나면서 설비 시운전을 진행해 화재·폭발 인명사고 등 발생 가능 가능한 비상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자위소방대, 비상 대응훈련을 시행 중이다.

한화오션의 경우에는 전 구성원의 안전과 보건을 위한 'HSE경영 방침'을 실천한다. 이를 통해 한화오션은 자동화 기반의 스마트 야드를 구축해 안전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차현정 기자 hyeon@metroseoul.co.kr

포스코 노사, 임단협 잠정 합의안 도출

기본임금 10만원 인상 등 전년도 상회
최종 타결시 전후방 산업 긍정적 영향

창사 55년 만에 첫 파업의 긴장감이 고조됐던 포스코 노사가 31일 임금 및 단체협상 잠정 합의안 도출에 성공하며 최악의 상황에서 벗어났다.

31일 포스코 노사에 따르면 포스코 복수노조 중 대표교섭노조인 한국노총 포스코노동조합(포스코노조)는 이날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 조정회의에서 회사측이 제시한 안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합의안의 주요내용은 ▲기본임금(Base-Up) 10만원 인상(자연상승분 포함 17만원 수준) ▲주식 400만원 지급 ▲일시금(비상경영 동참 격려금) 250만원 ▲지역상품권 50만원 ▲격주 4일 근무제도 도입 ▲경영성과급제도·직무급제 도입·복리후생 재설계 등을 위한 TF구성 등이며, 이번 잠정합의안은 전년도 수준을 상회한다.

앞서 포스코 노사는 지난 5월 24일 상견례 후 10월 5일까지 총 24차례 교섭을 진행했으나, 노사의 이견이 커 교섭이 결렬됐다. 이후 노조는 결렬 선언 이후 중앙노동위원회 조정신청, 조합원 대상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노조는 지난 28일부터 양일간 쟁의행위에 대한 찬반 투표를 진행해 가결한 바 있다. 만약 중노위에서 협상이 결렬돼 '조정 중지' 결정이 나온다면 포스코노조는 쟁의권을 획득해 1968년 창사 이후 55년 만에 첫 파업에 돌입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향후 잠정합의안 수용 여부를 묻는 조합원 찬반투표에서 과반수가 찬성하면, 포스코 노사는 올해 임단협 교섭을 최종 타결하게 된다.

포스코 관계자는 "어려운 회사 여건에도 불구하고 임단협 교섭의 조속한 타결을 위해 예년 대비 높은 임금인상률을 제시했다"며 "잠정합의안 조합원 투표 절차까지 원만하게 마무리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포스코 임단협 교섭이 원만하게 타결될 경우 안정적인 철강재 공급을 통해 자동차·조선·건설 등 전후방 산업과 산업계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양성운 기자 ysw@

HD현대오일뱅크, 年 12만t 규모 바이오원료 추가 확보

코린도그룹 등 구매계약 체결

HD현대오일뱅크가 친환경 바이오원료 구매계약을 잇달아 체결해 바이오 사업 추진을 가속화하고 있다.

HD현대오일뱅크는 코린도그룹, LX인터내셔널과 각각 연간 4만톤, 총 8만톤 가량의 PFAD(Palm Fatty Acid Distillates, 팜잔사유) 구매 계약을 체결했다고 31일 밝혔다. PFAD는 팜유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부산물로 산도가 높아 전 세계 소수의 바이오디젤 공장에서만 원료로 사용할 수 있다.

올해 말 연산 13만톤 규모의 바이오디젤 공장 상업가동을 앞둔 HD현대오일뱅크는 이번 계약을 통해 안정적인 바이오원료 공급망을 확보했다. HD현대오일뱅크는 PFAD 외에도 사용하고 버려지는 식용유를 재활용해 바이오디젤 공장의 원료로 사용할 계획이다.

주영민 HD현대오일뱅크 대표이사(왼쪽)와 승범수 코린도그룹 의장이 인도네시아 코린도 그룹 사옥에서 열린 PFAD 공급 계약 체결식해서 기념 촬영하고 있다.

HD현대오일뱅크와 코린도그룹은 바이오원료 공급뿐 아니라 목재 가공 부산물인 우드펠릿 등의 바이오매스를 활용하고 산림 조성 사업을 통한 탄소저감 방안에도 협력한다.

주영민 HD현대오일뱅크 사장은 "양사의 사업 분야가 다른 만큼 다양한 시너지가 기대된다"라며 "적극적으로 공동사업 기회를 모색해 가자"고 밝혔다.

HD현대오일뱅크는 LX인터내셔널과도 PFAD구매계약을 체결했다. LX인터내셔널은 지난 2009년 인도네시아 팜 농장 사업에 진출해 팜 사업을 회사 신성장동력의 한 축으로 성장시켰다.

/차현정 기자

YouTube
유튜브〈메트로신문〉 동영상 제공

폭스바겐 2023년형 ID.4 /폭스바겐코리아

'440km' 고효율 질주… 편의기능 아쉬워

자동차 시승기

폭스바겐 'ID.4'

초기모델 대비 전비 10% 개선
휠베이스 2765㎜… 공간감 극대화

폭스바겐 ID.4가 쿠페형인 ID.5와 함께 브랜드를 대표하는 모델로 자리 잡았다. 올들어 9월까지 폭스바겐 전기차 판매량은 53만1500대, 이중 ID4와 ID5가 16만2100대나 채웠다. 2023년형 ID.4도 흥행에 한몫했다. 가격은 그대로면서 주행거리를 전비를 10%나 늘리고 상품성도 개선했다. 국내에 수입되는 유럽 전기차 중에서는 보조금도 가장 많다. 1년여 만에 운전석과 조수석에서 앉아 경기도 가평 일대 100km를 달려봤다.

새로운 ID.4는 전비에서 압도적인 성능을 보여준다. 지난해 출시됐던 초기 모델은 최대 주행거리가 405km에 불과했지만, 연식변경 모델은 구동 시스템과 배터리 개선으로 440km나 달릴 수 있게 됐다. 전비를 기준으로 하면 5.1km/kWh 수준인데, 실제로는 더 효율이 높다.

직관적인 회생 제동 시스템이 실 전비 향상에 큰 도움이 됐다. 주행 모드가 에코와 노멀, 스포츠 등 3가지, 노멀모드에서는 내연기관차와 같이 브레이크를 밟기 전에는 따로 회생 제동을 걸지 않는다. 덕분에 내리막길을 포함해 가속이 필요 없는 구간에서는 변속기를 B모드로 바꾸면 된다. 반대로 스포츠모드에서는 가속페달을 떼자마자 회생제동이 시작되는데, 덕분에 전기차 특유의 긴 제동거리를 최소화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주행성능은 초기 모델 그대로다. 최고출력이 204마력, 최대토크도 31.6kg·m에 달하지만 폭발적인 가속력 대신 부드럽게 속도를 올리며 안정적으로 달려준다. ID.4가 스포츠 모델이 아닌 만큼 전비를 위한 세팅이라는 설명이다.

내부 공간감도 극대화한다. ID.4는 겉으로 보기에는 골프보다도 작은 소형차 느낌이지만, 실제 휠베이스는 2765mm로 준중형 수준이다. 2열 레그룸도 예상보다 훨씬 널찍하고, 2열을 접으면 1500L 이상 실을 수 있는 적제공간도 확보했다.

보급형 전기차인 만큼 아쉬운 부분도 없지는 않다. 브레이크를 깊이 밟아야 제동력이 제대로 작동하는 등 답력에 이질감이 다소 느껴졌고 아직 무선 안드로이드 오토와 애플 카플레이를 지원하지 않는 점도 분명한 단점이다.

/김재웅 기자 juk@

현대로템, ESG 종합평가 'A' 등급 획득

현대로템이 3년 연속으로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종합평가 A등급을 획득했다.

현대로템은 한국ESG기준원(KCGS)이 발표한 2023년 상장기업 ESG(환경·사회·지배구조) 평가에서 통합 A(우수) 등급을 받았다고 31일 밝혔다. 이로써 현대로템은 2021년부터 3년 연속 ESG 종합평가에서 A 등급을 획득했다.

현대로템은 올해 사회 부문에서 A+(매우 우수) 등급을 부여받았고, 환경과 지배구조 부문에서도 각각 A 등급을 따냈다.

현대로템 관계자는 "선순환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개선 노력을 인정받았다"며 "앞으로도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전사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양성운 기자 ysw@

LG전자, '모오이' 오브제컬렉션 2종 선봬

LG전자가 31일 네덜란드 디자인가구 브랜드 '모오이'와 협력한 오브제컬렉션 2종을 출시하고 200대 한 정 판매한다.

모오이(Moooi)는 토끼 형태의 램프, 실제 크기로 갓을 쓴 말 등 마치 예술작품을 연상시키는 디자인의 제품으로 유명한 프리미엄 라이프스타일 브랜드다.

LG전자는 라이프스타일 올레드 TV 포제, 테이블형 공기청정기 에어로퍼니처 등 2종에 모오이의 디자인 정체성을 녹인 에디션을 국내 시장에 출시한다.

'LG 오브제컬렉션' 모오이 에디션 /LG전자

/김서현 기자 seoh@

KT "3년내 매출 1000억 정조준… B2B시장 집중 공략"

초거대 AI '믿음' 공개 온라인 설명회
총 4종, 경량부터 초대형모델까지
기업 규모·목적 등 완전 '맞춤형'
AICC·지니TV 등 기존 AI 고도화

KT가 31일 초거대 AI '믿음(Mi:dm)'의 출시를 발표했다. (왼쪽 두번째부터) KT AI/BigData 사업본부 최준기 본부장, KT AI2XL 연구소 배순민 소장, '매스프레소' 이용재 대표, '업스테이지' 김성훈 대표, KT SW개발본부 조성은 본부장. /KT

KT가 2000억개 규모의 파라미터(매개변수) 초거대 인공지능(AI) '믿음'을 공개했다. KT는 기업간거래(B2B) 시장을 집중 공략해 3년 내 1000억원 이상의 매출을 달성한다는 목표다.

31일 KT는 온라인 기자설명회를 열고 거대언어모델(LLM)AI '믿음(Mi:dm)'의 출시 계획을 발표했다. 믿음 모델은 총 4종으로 경량 모델부터 초대형 모델에 이르기까지 기업의 규모와 사용 목적에 맞게 완전 맞춤형(FFT)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최준기 AI·빅데이터 사업본부장은 "믿음으로 B2B 시장을 공략, 초거대 AI 대중화 시대를 열겠다"며 "시장 조사 과정에서 수렴한 '나만의 모델 구축', '쉬운 구축 과정', '저렴한 비용' 등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반영했다"고 강조했다.

KT는 믿음의 강점으로 AI풀스택을 앞세웠다. AI 풀스택은 AI 반도체, 클라우드 등 인프라부터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AI 응용 서비스까지 모두 구축 비용을 낮추고 기업별 맞춤형으로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에 KT클라우드와 믿음의 기업전용 AI 클라우드팜(Mi:dm CloudFarm)을 패키지로 제공해, 별도 개발 및 학습 인프라가 없어도 합리적인 비용으로 초거대 AI를 활용한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도록 했다.

◆조(兆)단위 자체 파운데이션 모델 개방

KT는 초거대AI 활용을 원하는 모든 기업에게 믿음 파운데이션 모델(AI 기초모델)을 개방한다. 조(兆)단위 데이터의 사전 학습을 완료한 자체 파운데이션 모델이라는 점이 차별점이다.

파운데이션 모델이란 방대한 데이터셋으로 학습한 초거대 AI 핵심 기반 모델을 말한다. 오픈 AI사의 자연어 처리 모델 GPT가 대표적이다. 공개된 파운데이션 모델이 있다면 누구나 미세조정(Fine-Tuning)을 거쳐 원하는 AI 응용서비스를 만들 수 있다. 이를 위해 KT는 '믿음 스튜디오'를 열고 기업 고객이 자사 수요에 맞춰 AI 모델을 미세조정(파인튜닝)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최 본부장은 "몇 변의 클릭만으로 원하는 거대언어모델(LLM)을 배치하고 자사의 데이터를 가지고 파인 튜닝을 할 수 있다"며 "전문 모델을 원하는 기업은 풀 파인 튜닝까지 가능하다"고 말했다.

배순민 AI2XL 연구소장은 "KT가 자체 LLM을 통해 다양한 사업 영역에 파운데이션 모델 믿음을 업데이트한 결과, 생산성이 빠르게 향상됐다"며 "기존에 할 수 있는 일이 몇십가지였다면, 몇백가지로 늘었다"고 설명했다.

◆ 비용 30% 가량 저렴… 환각도 27% 줄여

특히 믿음의 장점은 타사 모델 대비 30% 이상 비용을 절감했다는 점이다. 그래픽처리장치(GPU) 학습 비용을 약 27% 줄인 KT클라우드의 하이퍼스케일 AI 컴퓨팅 서비스, 추론 비용을 50% 절감한 리벨리온의 신경망처리장(NPU) 인프라 등 AI 풀스택을 효율적인 AI 개발 환경을 위한 맞춤형 통합 패키지로 함께 제공할 예정이다. 또 기업의 부담을 덜기 위해 요금체계도 기존의 토큰 단위의 과금이 아닌 '인스턴스' 과금 체계를 적용한다.

KT는 신뢰성을 높이는 데에도 주력했다. KT는 생성형 AI의 가장 큰 문제점인 '환각 답변(할루시네이션)'을 해결하기 위해 '신뢰 패키지(Reliable Package)'를 제공한다. 3가지 기술이란 ▲도식화된 복합한 문서를 정확히 이해할 수 있게 변화하는 '다큐먼트 AI(Document AI)' ▲목표 도메인과 문서에 최적화된 최신 정보르르 찾아내는 딥러닝 기술 '서치 AI(Search AI)' ▲원문에 근거한 응답만 생성하도록 강화학습을 적용한 '팩트가드 AI(FactGuard AI)'를 적용했다. 믿음은 이를 통해 환각 현상을 일반 생성형 AI 서비스 대비 최대 70% 줄였다.

◆B2B시장 집중… 3년 후 9000억 성장 전망

KT는 이번 믿음 출시를 계기로 65만 기업고객 대상으로 한 B2B 사업에 집중한다. 이후 글로벌·제조·금융·공공·교육 5대 영역으로 초거대 AI 사업 영역을 확장하고, 업스테이지·콴다 등 스타트업과 개방 생태계를 구축해 글로벌 시장 공략도 본격화한다.

현재 국내 프라이빗 LLM 시장 규모는 3000억원 수준으로 3년 후에는 9000억원까지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KT는 믿음을 통해 3년 후 프라이빗 LLM 영역에서 매출 1000억원 이상을 거둔다는 목표다. 기업 전용 LLM 사업화에서는 업스테이지, Math-GPT와 협력한다. 교육 영역에서는 콴다, 에누마와 기업용 업무 개인비서 영역에는 비아이매트릭스 등 다양한 AI 스타트업들과 믿음을 활용한 AI 사업 모델을 공동 개발해 서비스를 제공한다. 목표는 3년 뒤 프라이빗 LLM 시장에서 연 1000억원 이상의 매출 달성이다.

실제 출시 이전부터 금융권, 지자체, 기업솔루션 등 100개 이상의 기업과 기관에서 믿음을 활용하기 위해 KT와 논의 중이다. 이날 설명회에선 KT가 기업은행에 믿음을 적용해 만든 신뢰도 높은 전문 상품지식 제공 서비스를 선보이기도 했다.

콴다를 운영하는 매스프레소의 이용재 대표는 "KT와 함께라면 글로벌 확장에 자신이 있다"며, "매스 지피티(Math-GPT) 구축을 통해 글로벌 교육 생태계를 주도하겠다"고 밝혔다.

KT는 동남아 시장을 시작으로 글로벌 시장도 공략한다. 지난 22일엔 태국 자스민 그룹과 함께 국산 초거대 AI 믿음을 활용한 태국어 대형언어모델 구축 및 동남아 공동 사업화 협력 추진을 밝히며 글로벌 시장 확장 가능성을 증명했다.

김성훈 업스테이지 대표는 "KT 인프라를 활용한 비용절감과 최적화 측면에서 B2B 확장에 경쟁력이 있다"며 "KT와 함께 기업 전용 LLM시장을 개척하겠다"고 말했다.

최준기 KT AI·빅데이터사업본부장은 "B2B의 경우 기업고객 니즈를 정확히 이해하는 컨설팅 과정, 기존 레거시 시스템과 연계해 완결적으로 목표를 달성할 수 있게 하는 딜리버리 과정이 필수"라며 "KT는 자체 LLM과 노하우를 갖고 종합적으로 가장 나은 품질의 B2B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혔다.

한편, KT는 믿음 출시를 계기로 AICC와 지니TV, AI통화비서 등 기존 AI 서비스를 고도화할 계획이다. 또 무선서비스, 차량용인포테인먼트(IVI), 로봇 등에도 초거대 AI를 적용한 사업화를 계획하고 있다. /구남영 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

내 손안의 게임… 전자업계, 게이밍족 '공략'

고도화 기술 '핸드헬드 게이밍 PC'
레노버, 휴대용 게이밍 PC '리전 고'
에수스, 지난 5월 ROG 엘라이 공개

국내 전자업계가 게임산업 하드웨어 시장 공략.

국내 전자업계가 가파른 성장세를 기록하고 있는 게임산업의 하드웨어 시장 공략을 위해 신제품 개발과 출시를 이어가고 있다. 플레이스테이션과 닌텐도와는 OS를 공유하지 않고 별도로 고도로 발전한 기술을 탑재한 핸드헬드 게이밍 PC가 시장에 속속 나오고 있다.

31일 업계에 따르면 레노버가 11월 1일 G마켓을 통해 휴대용 게이밍PC '리전 고'를 국내 공식 출시한다. 이는 레노버의 첫 '콘솔 게임 기기'다. 2년 전 처음 설계에 착수한 리전 고는 유연한 게이밍 인터페이스와 하드웨어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했다. 후면에 킥스탠드가 배치된 본체와 화면 양 쪽 분리형 컨트롤러는 다양한 게임 환경에 대응 가능하다. 함께 출시되는 리전 글래스는 마이크로 OLED 기술이 적용됐다.

레노버에 앞서 에이수스도 지난 5월 'ROG 엘라이(Ally)'를 출시했다. 최신 라이젠 Z1 시리즈 시스템 온칩(SoC)을 사용하며, 최대 8개의 '젠4' 기반 CPU 코어, 'RDNA 3' 기반 12CU 그래픽 구성으로 현 세대 고성능 콘솔 이상의 성능을 낸다. 이처럼 전자업계가 게임산업에 진출하는 것은 과거와 달리 게임의 위상과 시장이 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성장했기 때문이다.

글로벌 시장 조사 기업 뉴주가 지난 9월 공개한 '글로벌 게임 시장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PC, 콘솔, 모바일 등 게임 시장 전체 매출은 1877억 달러(약 254조 원), 게이머(소비자)의 수는 34억 명으로 추산 된다. 한국 시장 규모는 지난해 기준 삼정KPMG 추산 약 22조 7000억원에 이른다. 엔데믹(풍토화)와 3고 사태가 이어진 후 신작 출시와 업데이트 등이 지연 되며 게임업계 전반이 침체 됐음에도 불구하고 직전해 대비 8.5% 성장했다.

전자업계는 그동안 고사양 게임에 최적화된 PC와 노트북 등으로 게임 산업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했지만 최근 게임 기기로 영역을 눈을 돌렸다.

뉴주에 따르면 글로벌 콘솔 시장 651억 달러(약 75조원)로 전년 대비 7.4%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모바일 게임 시장이 0.8%, PC게임이 1.6%에 그치는 것과 비교된다. 콘솔시장만이 높은 성장세를 이어간 데에는 직전해 불황 등으로 지연한 콘솔 대작 게임들이 잇따라 출시 되고 포화 상태에 이른 모바일 시장에서 탈피하려는 게임사들의 움직임 탓이다.

다만 최근 전자업계의 콘솔 시장 진출은 우회로를 타고 있다. 스태티스타(Statista)의 조사에 따르면 국내 콘솔 기기 판매량은 2022년 50만 대를 기록하였으며 2027년까지 연평균 성장률 8.0%로 68만 대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데 여기서 99.4%에 달하는 기기가 바로 소니의 플레이스테이션, 닌텐도의 닌텐도, MS의 Xbox다. 그럼에도 전자업계가 과감히 뛰어드는 데에는 기술 발전과 미래 기술 선점을 위한 작업이다.

이들은 출시하는 핸드헬드 게이밍 PC를 온라인 소프트웨어 유통 네트워크인 스팀(Steam) 등과 연동해 PC에서 즐겼던 게임들을 모두 이동 중에도 즐길 수 있도록 한다. /김서현 기자 seoh@

SKT, 6.5조 글로벌 양자센싱 시장 진출

'양자 라이다' 개발 기술 활용

SK텔레콤이 2030년 6조5000억원 규모로 성장이 예상되는 양자 센싱 시장에 진출한다. 13년간 축적한 양자 기술력과 AI(인공지능)컴퍼니의 AI 역량을 융합해 차별화된 양자 센싱 시스템을 선보인다는 계획이다.

SK텔레콤은 부산항만공사와 함께 양자 센싱 기술이 적용된 양자 라이다(LiDAR)를 활용해 부산항만 보안 관제 실증을 완료했다고 31일 밝혔다. 양사는 양자 라이다를 활용해 부산 감천항 제2부두에서 부두 침입 및 밀항 방지를 위한 관제 시스템을 성공적으로 운영했다.

양자 센싱은 레이저를 목표물에 비춘 후 반사되는 빛을 감지해 사물과의 거리 및 물성을 감지하는 기술이다. SK텔레콤은 빛의 최소 단위인 단일 광자 단위로 인식하는 SPAD(단일 광자 포토 다이오드) 기술을 자체 개발해 적용했다.

SK텔레콤이 개발한 양자 라이다는 광자 단위 인식이 가능하기 때문에 도로 위의 타이어나 어두운 밤 검은 옷을 입은 보행자 등 빛의 반사도가 낮은 물체를 정확하게 탐지할 수 있다. /구남영 기자

금감원, 카카오모빌리티 이중계약 의혹 조사

연간 3000억 규모… 분식회계 부인

금융감독원이 카카오모빌리티의 가맹사 이중계약에 의한 매출 부풀리기 의혹을 조사하고 있다. 그 규모는 연간 3000억 원에 이른다. 이에 카카오모빌리티는 '가맹 계약'과 '업무 제휴 계약'은 별개의 계약이라며 분식회계 의혹에 대해 전면 부인했다.

31일 카카오모빌리티는 입장문을 통해 "국내 대형 회계법인 여러 곳으로부터 매년 투명한 회계감사를 받아왔고, 지정 감사인을 포함한 모든 감사인으로부터 재무제표에 대해 적정 의견을 받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현재 금감원은 카카오모빌리티의 가맹택시 사업을 문제삼고 재무제표 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카카오모빌리티가 제공하는 가맹계약과 업무제휴계약이 사실상 하나의 계약이라는 의심이다. /구남영 기자

JUNO GOLF
PREMIUM GOLF STUDIO
경험해보세요
김준호 프로의
레슨 과학
미국, 호주 등 골프 선진국의
레슨 노하우를 국내에서!
초고속 카메라 데이터분석의
프리미엄 레슨과학!
김프로
Par 4
432m
PREMIUM
GOLF STUDIO
김준호 프로
■유튜브: 주노골프
■인스타그램: juno_kim_44
■주노프리미엄골프스튜디오 070-4243-9238
KPGA 프로 / 전) 국가대표 및 상비군 주장 / 중앙대학교 스포츠과학부 졸업(골프전공) / 미국 Brian Mogg 골프스쿨 3년 수료 / 호주 Ryde Paramatta Club 대표선수(4Y) / 미국 호주에서 다년간 골프 레슨

"할인없인 투자 못해"… 몸값 낮춰 IPO 막차타는 바이오株

올해 기업공개(IPO) 막차를 타는 바이오주들이 혹독한 증시 한파로 속앓이를 하고 있다. 기업 가치평가를 제대로 받을 수 없는 상황이지만 투자 혹한기가 계속되면서 언제 새로운 기회가 올지 가늠하기도 쉽지 않은 탓이다. 특히 기존 투자자들의 엑시트 압박과 기업의 생존을 위해 공모가를 대폭 낮추면서도 증시 입성을 강행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큐로셀 공모가, 희망가比 33%↓
예상가 536억서 40% 줄어 320억

상반기 바이오·의료 투자액 3665억
전년 6758억 대비 절반 수준 줄어

"투자자 탈출 위해 공모가 낮춰
살아남기에 급급… 안타까운 결과"

◆몸 값 낮춰서라도 IPO 강행

31일 업계에 따르면 큐로셀은 지난 30일 장 마감 이후 수요예측 결과를 반영한 최종 공모가를 2만원으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당초 제시한 희망 공모가 범위 2만9800~3만3500원의 하단보다 33% 내린 수준이다.

큐로셀은 국내 최초로 설립된 CAR-T 개발 전문기업으로 올 하반기 바이오 IPO 시장의 대어로 꼽혔던 종목이다. 160만주 전량을 신주로 발행, 공모가 상단 기준 536억원을 끌어모을 것으로 기대가 컸다. 하지만 실제 공모 자금은 40%가 줄어든 320억원에 그칠 전망이다.

김건수 큐로셀 대표는 "바이오기업들이 유독 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신규 상장 바이오 기업으로서는 올해 가장 큰 규모의 공모를 마무리하게 됐다"며 "국내 최초로 CAR-T 치료제 개발을 시작하며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고 있는 큐로셀만의 기술력과 노하우를 기반으로 상장 후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혁신적인 항암면역세포 치료제 전문 기업으로 도약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다른 바이오 기업들의 상황도 다르지 않다. 지난달 코스닥 시장에 입성한 에스엘에스바이오는 희망 공모가 밴드 8200~9400원을 제시했지만 기관투자자 대상 수요예측을 거치며 하단보다도 한참 낮은 공모가 7000원으로 상장했다. 에스엘에스바이오는 현재 4315원에 거래 중이다.

지난 8월 상장한 큐리옥스바이오시스템즈 역시 희망 공모가를 1만3000~1만6000원으로 제시했으나 하단인 1만3000원으로 상장했으며 파로스아이바이오 역시 희망 공모가(1만4000~1만8000원)의 하단에서 공모가격이 결정됐다.

◆공모가 할인 요구 높아져

기업들이 이렇게 몸 값을 낮추면서도 증시 입성을 강행하는 이유는 살아남기 위해서다. 특히 시장에 발 묶인 기존 투자자들의 엑시트를 위해 공모가 할인 압박도 이어지는 상황이다.

증권업계 한 관계자는 "연구개발(R&D)를 전문으로 하는 바이오 기업은 대규모 자금을 오랜 시간 투자해야 하고, 이를 회수하는데 시간이 걸리는 특징이 있다"며 "기술수출로 인한 현금흐름 개선도 쉽지 않은 상황에서 투자 회수가 불확실한 바이오 투자를 꺼리게 되고 바이오 기업은 더욱 어려워지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 바이오 업종에 대한 VC 투자는 크게 감소한 상태다. 한국벤처캐피탈협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바이오·의료 업종 투자금액은 3665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6758억원 대비 절반 수준으로 줄어들었다. 코로나19가 한창이던 지난 2021년 상반기(8066억)와 비교하면 55% 가량 줄어든 규모다.

VC업계 관계자는 "요즘 같은 상황에서는 기존 투자자들의 탈출을 위해 공모가를 낮게 써낼 수 밖에 없다"며 "데스밸리를 넘고 살아남는데 급급한 기업의 입장에선 기존보다 한참 낮은 밸류를 감안하더라도 IPO에 기댈 수 밖에 없는 입장이 맞물린 안타까운 결과"라고 설명했다.

업계 관계자들은 일단 공모자금으로 급한 불을 끈 이후 시장에서 기업 가치를 올리는 편이 현명하다고 조언했다. 올해 상장을 강행한 한 바이오 기업 대표는 "내년에 증시 상황이 나아질지 알 수 없고 투자 받기도 어려운 환경에서 사업을 계획대로 이어가기 위해서는 공모 자금에 기댈 수 밖에 없었다"며 "기술에 자신이 있는 기업의 경우엔 밸류를 낮춰서라도 일단 상장을 강행하고, 시장이 결국 기업의 가치를 알아줄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라고 말했다.

/이세경 기자 seilee@metroseoul.co.kr

예탁결제원

의무보유등록 상장주식 48곳 3.5억株 내달 해제

한국예탁결제원은 두산로보틱스 등 의무보유등록된 상장주식 총 48개사 3억5188만주가 다음달 중 해제될 예정이라고 31일 밝혔다.

의무보유등록은 일반투자자 보호를 위해 최대주주 등이 소유한 주식을 일정 기간 동안 한국예탁결제원에 처분이 제한되도록 전자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시장별로 보면 유가증권시장이 6개사 1억2329만주이며, 코스닥시장은 42개사 2억2859만주다.

총 발행주식수 대비 해제 주식수 상위 3개사는 에이치피오(69.61%), 삼성에프엔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69.24%), 한화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67.14%) 등이다.

의무보유등록 해제 주식수 상위 3개사는 이스트아시아홀딩스인베스트먼트리미티드(7200만주), 삼성에프엔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5352만주), 한화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4740만주)다.

/원관희 기자

영풍제지 쇼크에… 증권가 '리스크 관리' 발등에 불

연일 하한가… 10일만에 83%↓
키움증권, 증거금률 40% 방치에
미수금 4939억, 상반기 순익 초과

영풍제지가 거래 재개 이후 연속 하한가를 기록하면서 키움증권의 손실이 늘어나고 있다. 키움증권이 낮은 증거금률을 방치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증권사들은 일제히 증거금률을 상향 조정하는 등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31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시세조종 의혹을 받고 있는 영풍제지가 거래가 재개됐던 지난 26일부터 4일 연속 하한가를 기록하고 있다. 이날 종가 기준으로 전장보다 29.93% 떨어진 8170원에 마감하면서 1만원대까지 붕괴됐다. 이에 따라 키움증권의 미수금 규모도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다.

/키움증권

영풍제지는 지난 18일 주가가 전 거래일보다 29.96% 가량 급락하면서 거래가 정지됐다. 이후 26일 거래가 재개됐지만 연속 하한가를 기록하면서 주가가 급락하기 직전이었던 17일 종가보다 83.11% 떨어졌다. 이에 따라 타 증권사보다 영풍제지의 증거금률을 낮게 설정했던 키움증권의 미수금 손실 규모도 늘어나고 있다. 현재 키움증권이 공시한 영풍제지 미수금 규모는 4939억원으로 키움증권의 상반기 순이익인 4258억원을 초과한다.

앞서 우도형 IBK투자증권 연구원은 "영풍제지의 거래가 재개된 후 총 4거래일 하한가를 간다면 미수금 손실액은 최대 3550억원 수준이 될 것"이라며 "미수금 관련 최대 손실액도 3550억원 수준으로 생각되지만, 고객의 변재에 따라 미수금은 추후 추가적으로 회수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다만 4월에 발생한 키움증권의 차액결제거래(CFD) 관련 손실 800억원이 아직 전체 회수가 되지 못한 점을 감안하면 미수금 회수 기간은 더 길어질 수 있다고 판단했다.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앞서 지난 7월까지 한국투자증권, NH투자증권, 미래에셋증권 등의 증권사들은 영풍제지의 증거금률을 100%로 상향 설정했다. 하지만 키움증권은 영풍제지의 증거금률을 40%로 계속 유지하면서 대량 미수금이 발생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상반기 개미(개인 투자자)들의 '빚투(빚내서 투자)'가 늘면서 증권사 차원의 리스크 관리가 언급됐던 만큼 증거금률을 조정하는 추세"였다며 "투자자들의 니즈가 있음에도 투자자분들의 위험 관리를 위해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증시 약세에 따라 증권시장의 안정성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영풍제지 사태가 겹치자 증권가들은 다시 한번 리스크 관리에 집중하고 있다. 지난 24일 삼성증권은 포스코홀딩스, 한미반도체, 레인보우로보틱스 등 18개의 종목의 위탁증거금률을 100%로 설정했으며, 미래에셋증권과 KB증권도 각각 19개, 85개 종목의 증거금률을 100%로 상향 조정했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이후였던 26일 기준 신용거래융자 잔고는 17조4791억원으로, 지난 9월 20조원을 도달했던 것에 비하면 크게 줄어든 규모다.

/신하은 기자 godhe@

한국투자증권

4억 달러 외화채권 발행

한국투자증권은 4억 달러(약 5400억원) 규모의 외화채권 발행에 성공했다고 31일 밝혔다.

당초 예정액보다 1억달러를 증액 발행하며 최근 최근 금융시장을 둘러싼 불확실성과 우려를 불식시키고 높은 수준의 조달 경쟁력을 드러냈다.

한국투자증권이 이번에 발행한 외화채권은 3년 만기 구조로 미국 3년물 국채 금리에 235bp(1bp=0.01%포인트) 가산 스프레드를 더한 금리 조건으로 확정됐다. 최초 발행 예정액은 3억 달러였다. 그러나 전일 진행된 수요예측 과정에서 170여개 기관으로부터 26억5000만달러에 달하는 유효주문이 몰리며 최종 4억달러로 증액 발행하게 됐다. 금리도 최초 가이던스 대비 25bp 가량 낮은 수준이다.

이러한 흥행은 수요예측에 앞서 적극적인 로드쇼를 통해 다각화된 비즈니스 포트폴리오와 회사의 안정성에 대한 투자자들의 신뢰를 끌어낸 점이 주효했던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투자증권은 지난 25일부터 27일까지 홍콩, 싱가폴 등지에서 50여 기관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대면로드쇼를 진행했다. 이번 외화채권 발행은 씨티그룹글로벌마켓증권, HSBC, 나틱시스은행(NATIXIS), KIS 아시아가 주관했다.

/안상미 기자 smahn1@

바닥 찍었나… 서학개미, 테슬라株 2억 달러 '줍줍'

해외주식 Click

테슬라

6개월 만에 개인투자자 순매수 1위
수익 추종 ETF 3427만 달러 사들여

서학개미(해외주식에 직접 투자하는 국내 투자자)들의 관심이 다시 테슬라로 쏠리고 있다. 서학개미들은 3분기 부진한 실적과 전기차 시장의 정체로 인해 테슬라의 주가가 하락세를 이어가자 바닥에 근접한 것으로 판단, 저가 매수의 기회로 삼고 있다.

31일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지난주(10월 24~30일) 서학개미들은 테슬라를 1억9824만달러 어치를 사들였다. 테슬라의 하루 주가 수익률을 1.5배 따르는 디렉시온 데일리 테슬라 불 1.5배(TSLL)에도 3427만달러가 몰렸다.

서학개미는 지난 5월부터 9월까지 테슬라를 순매도해 왔으나 10월 들어 순매수로 전환했다. 이에 따라 테슬라는 월간 기준으로 약 6개월 만에 서학개미 순매수 1위 자리를 탈환했다. 이같이 테슬라가 다시 서학개미들의 관심을 끈 것은 주가 하락 때문이다. 테슬라 주가는 지난 18일 240달러대로 하락하더니 19일 220달러대, 20일 210달러대로 급락세를 이어가다가 26일 200달러 아래로 추락했다. 이날에는 4.8% 급락한 197.36달러로 마감, 지난 5월26일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테슬라의 주가 하락 배경에는 3분기 '어닝쇼크'가 있다. 테슬라의 3분기 매출은 233억5000만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9% 증가했지만 시장 전망치인 241억달러에 못 미쳤다. 게다가 순이익은 18억5000만달러로 작년보다 44% 급감했다.

테슬라의 3분기 실적 부진은 지난해 말부터 시작된 가격 인하 정책의 영향이 큰 것으로 보인다.

/원관희 기자 wkh@

울산 현대, 4번째 '우승별' 거머쥔 원동력은 '소통·리더십'

창단 첫 2년 연속 K리그1 우승 달성
홍명보 감독·소속 구성원 '팀워크'
강력한 리더십 등 바탕으로 '성과'
정기선 사장, 리더덕목 존중·소통 강조

29일 오후 울산시 문수축구경기장에서 열린 프로축구 하나원큐 K리그1 울산 현대와 대구FC의 경기에서 2-0으로 승리를 거두며 2023 시즌 우승을 확정지은 울산현대 선수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프로축구 하나원큐 K리그1 울산 현대와 대구FC의 경기에서 홍명보 울산 현대 감독이 기뻐하고 있다. /한국프로축구연맹

지난해 '만년 2인자'라는 오명을 벗은 울산 현대가 2년 연속 K리그1 우승을 달성하며 4번째 '우승별'을 가슴에 새겼다.

울산 현대는 모기업인 HD현대의 든든한 지원을 바탕으로 전북현대의 아성을 무너뜨리며 승승장구하고 있다. 특히 아산 정주영 현대 창업자에 이어 정몽준 아산재단 이사장으로 이어온 남다른 스포츠 사랑은 현재의 울산 현대를 완성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됐다. 이같은 현대가의 정신은 정몽준 이사장의 장남이자 현대가 3세인 정기선 HD현대 사장으로 이어지고 있다.

◆2년 연속 K리그1 우승… '소통 리더십'

해를 거듭할 수록 더욱 견고해지고 있는 홍명보 감독의 울산현대와 정기선 사장의 HD현대는 닮은 점이 있다. 바로 리더들이 소속 구성원들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이어나가며 강력한 리더십이 공존하고 있다는 점이다.

우선 올해 K리그1에서 2년 연속 우승을 차지한 울산현대는 올 시즌을 앞두고 전력누수로 인한 부담감을 안고 시작했다. 지난 시즌 팀 내 득점 2위이자 공격포인트 2위 레오나르도가 원소속팀 산둥 타이산(중국)으로 복귀으며 공격수 아마노 준은 라이벌팀인 전북현대로 이적했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울산 현대가 2연패를 달성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을 내놨다.

그러나 홍명보 감독은 최악의 상황을 돌파할 수 있는 리더십을 발휘했다. 홍 감독은 상대팀을 완벽하게 분석한 뒤 기막힌 용병술로 팀의 상승세를 이끌었다. 공격수 주민규는 올해 15골을 터뜨리며 득점 2위에 이름을 올렸고 수비수 김민혁은 29경기에 출전하면서 상대 공격을 완벽하게 차단했다.

또 홍명보 감독은 팀 분위기 반등을 위해 선수들과 적극적인 소통을 이어갔다. 평소에도 격의 없는 대화로 분위기를 이끌어온 그는 "경기에서 질 경우 다음 경기를 어떻게 준비할지 선수들과 함께 방법을 찾는다"며 "팀이 졌다고 개인적인 감정으로 화를 낸 적이 없다. 다음을 어떻게 준비할지 이야기하는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팀이 흔들려도 빠르게 회복할 수 있는 건 감독과 선수들이 문제와 해결방안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다는 뜻이다.

정기선 사장은 소속 구성원과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과거 노동집약적이었던 조선업계의 첨단기술에 속도를 높이며 체질개선을 이끌어 내고 있다.

정 사장은 기업 문화 변화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HD현대의 경영 이념인 창조적 예시, 적극 의지, 강인한 추진력을 계승하면서 기업 문화 지향점으로는 세상을 이끄는 혁신, 두려움 없는 도전, 서로에 대한 존중, 모두를 위한 안전을 강조했다. 정 사장은 지난 2월 10일 그룹 계열사 최고 경영진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탑팀 워크숍'에서 HD현대 리더의 덕목으로 '존중'과 '소통'을 강조한 바 있다.

정 사장은 지난 2월에는 최근 입사한 HD한국조선해양 신입사원 10명과 함께 식사와 티타임을 갖고 'CEO와 MBTI토크'를 진행하기도 했다. 또 정 사장은 사내 복지 확대에도 힘을 싣고 있다. 최근 HD현대는 경기도 판교의 신사옥에서 사내 어린이집을 개원했는데 만 0세부터 5세까지의 자녀를 둔 임직원이라면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했다.

직원들이 유연근무제를 채택하거나 귀가가 늦어진 경우에도 등하원 시간을 조정할 수 있게 했고, 아침, 점심, 간식은 물론 저녁까지 친환경 식재료로 만든 하루 네끼 식사를 무상 제공하는 등 세심한 복지에 나서고 있다.

또 정사장은 강력한 리더십으로 기업의 경쟁력 확보에도 집중하고 있다.

정 사장은 HD현대가 최근 글로벌 친환경 선박 시장은 물론 향후 수소, 메탄올, 암모니아 등 친환경 선박 포트폴리오를 다변화하면서 미래 원천기술 확보에 집중할수 있도록 전면에서 이끌고 있다.

HD현대는 미래선박, 수소연료전지, 디지털, 헬스케어 등 4대 미래사업 분야와 청정수소, 화이트바이오 등 자회사의 신사업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HD현대는 '퓨처빌더(미래 개척자)'로서 재생 에너지와 더 스마트한 인프라로의 전환을 주도하고 있다. 그 중심에는 정 사장이 있다.

리더의 소통과 강력한 리더십을 바탕으로 HD현대와 울산 현대의 미래에 대한 기대감은 높아지고 있다.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디지털 광고 솔루션으로 최적화 앞장"

인터뷰
제이슨 반스 퍼브매틱 CRO

SSP·오픈랩 등 다양한 솔루션 갖춰
韓서 공급 경로 최적화 '액티베이트'

제이슨 반스(Jason Barnes) 퍼브매틱 아시아 태평양 지역 최고 수익책임자(CRO). /퍼브매틱

과거 광고는 텔레비전에서, 신문에서 또는 길거리에서 불특정 다수를 향해 일방적으로 전달됐다. 노인 의료기 광고가 어린이 소비자에게 수신되고, 고급 냉장고 광고가 10대 청소년에 닿았다. 시대가 변했다. 초개인화 한 휴대전화는 물론 IPTV까지 보급되며 프로그래매틱 광고(Programmatic Ad)로 불리는 기술은 이용자의 특성과 관심사를 면밀히 분석한 인공지능(AI)으로 그에 가장 필요한 광고와 정보를 전달한다. 이러한 기술의 중심에 독립형 애드테크 기업 퍼브매틱(PubMatic)이 있다.

지난 25일 메트로경제가 제이슨 반스(Jason Barnes) 퍼브매틱 아시아 태평양 지역 최고 수익 책임자(CRO)를 만났다. 제이슨 반스는 25년 이상 디지털 광고·제품 분야에서 근무한 전문가로 2014년 퍼브매틱에 합류했고 전세계 18개 지사 12개 데이터 센터 중 아시아 태평양 지역인 호주, 중국, 인도, 일본, 한국 및 싱가폴 등에서 팀을 관리하고 있다.

반스 CRO는 퍼브매틱을 "독립적인 기술 회사"라며 "미래를 위한 디지털 광고의 공급망을 제공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최근 우리는 SSP(Sub-Side Platform)기업이라고 소개하는 대신 기술 회사라고 기술회사라고 이야기 하고 있다"며 "지난 2년 동안 우리는 더 이상 SSP와 퍼블리셔들만 다루는 데에서 벗어나 에이전시, 브랜드, 데이터 회사 전반을 관리하는 기업으로 거듭났다"고 설명했다.

퍼브매틱은 디지털 광고를 둘러싼 여러 주체에 대한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하고자 한다. ▲퍼블리셔 ▲앱 개발자 ▲CTV/OTT 퍼블리셔 ▲바이어 총 4개 주체에 각각 필요한 최적의 솔루션을 갖고 있다.

특히 지난 16일 한국 시장에 공개한 공급 경로 최적화(SPO) 솔루션 '액티베이트(Activate)'는 가장 자랑하고픈 솔루션이다. 액티베이트는 광고 구매자가 퍼브매틱 프로그래매틱 플랫폼 상에서 프리미엄 동영상 및 CTV 인벤토리에 직접 액세스 할 수 있도록 공급 경로를 최적화한 솔루션으로 단일 플랫폼 상에서 거래할 수 있는 데다 직접 프로그래매틱 프라이빗 마켓플레이스(PMP) 또는 프로그래매틱 보장형(PG)으로 비즈니스를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해 효율성을 높였다. 이밖에 퍼브매틱은 SSP, 오픈랩, 커넥트, 컨버트 등 다양한 솔루션을 갖고 있다.

/김서현 기자 seoh@

바쁜 셀러위해… 결제·배송 위탁서비스 활발

블랙프라이데이·광군제 소비자 대응
빠른배송·간편결제 등 해외직구 준비
초보셀러들 이용 쉽게 전담CS팀 갖춰

블랙프라이데이에 미국인들이 오픈런을하고있다. /게티이미지코리아

11월이면 열리는 해외 직구 최대 성수기인 '블랙프라이데이'와 중국 '광군제'를 앞두고 직구 소비자를 응대해야 하는 셀러들의 준비가 분주하다. 미국 최대 쇼핑 행사인 블랙프라이데이는 1년 중 가장 큰 폭의 세일이 이뤄지는 만큼 다양한 품목의 직구 수요가 급증하는 대목이기 때문이다.

어도비의 마케팅 분석 솔루션 '어도비 애널리틱스(Adobe Analytics)'에 따르면 지난 해 블랙프라이데이 기간 동안 전자상거래 매출은 전년 대비 2.3% 증가한 91억2000만 달러(약 12조 2025억원)로 집계됐다.

유통업계는 고물가·고금리 여파로 소비심리가 위축된 만큼 합리적인 가격과 혜택을 강조한 제품들에 더 많은 직구 수요가 몰릴 것으로 보고 관련 제품들을 다양하게 소개할 수 있게 준비중이다. 셀러들도 차별화된 제품 소싱, 빠른 배송 시스템, 편리한 결제 및 정산 시스템 등을 갖춰 안정적으로 해외 직구 최대 성수기를 맞을 준비에 나서고 있다.

이에 소규모로 운영되는 셀러 특성상 내부에서 모든 업무를 진행하기 보다 간편한 해외 송금 및 결제를 돕는 핀테크 기업과 글로벌 물류를 제공하는 스타트업 서비스 등을 이용하는 것이 운영 효율화를 높이는 대안이 되고 있다.

31일 업계에 따르면 글로벌 외환 토털 솔루션 기업 센트비가 제공하는 법인 대상 해외 결제 서비스 '센트비즈'도 도움이 된다. 센트비즈는 은행 대비 최대 70%가량 낮은 수수료와 최대 1일 이내의 빠른 결제, 간편하고 안전한 거래 방식을 통해 모든 사업자의 외환 거래를 지원하는 서비스다.

언제 어디서나 24시간 결제가 가능하고, 최초 1회 기업 등록과 엑셀파일을 활용한 단체 수취인 정보 등록으로 반복되는 대량 결제 업무도 빠르게 처리 가능해 인적·물적 리소스가 부족한 중소·영세 기업이나 개인 셀러들이 효율적인 업무를 위해 센트비즈를 찾고 있다.

또한 고객 전담 CS팀을 갖추고 있어 처음 거래를 시작하는 셀러들도 즉각적인 피드백을 통해 어려움 없이 결제할 수 있다. 실제로, 올해 상반기 개인 셀러를 포함한 센트비즈의 신규 고객사 수는 전년 동기 대비 약 10배 증가했다.

윤규현 센트비 B2B 그로스실장은 "은행을 통한 대금 결제 시에는, 셀러들이 직접 정산 금액과 수취은행 및 계좌 정보 등의 자료를 모두 챙겨 은행에 방문해야 한다. 하루에도 몇 번씩 은행에 방문하던 한 셀러는 센트비즈를 통해 업무 부담을 줄일 수 있었다고 고마운 마음을 전하기도 했다"며 "특히 최근 셀러들 사이에서 해외 무역 대금 결제 시 센트비즈 이용 편리성이 입소문 나면서 문의가 늘고 있다"고 말했다.

글로벌 종합 물류파트너 콜로세움을 이용하는 고객들의 만족도도 높다. 올해 초 콜로세움이 공개한 '2023년 정기 고객만족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에 이어 80% 이상이 만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콜로세움은 국내·외 36개소로 구성된 물류센터 네트워크를 통해 지역과 물성에 제한 없는 온디맨드 물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종합 물류 기업이다. 급변하는 이커머스 환경에 맞춰 새로운 물류 서비스를 개발하고 자체 통합 물류솔루션 'COLO'의 기능을 고도화하며 물류 업계를 선도하고 있다.

/최빛나 기자 vitna@

"김치냉장고 뚜껑형, 스탠드형보다 전기요금 적게 나와"

소비자원, 6개 제품 시험평가 결과
저장온도성능 품질 전제품 우수
설치 주변 온도따라 절감 차이 커

〈제품 형태별 에너지소비량 비교〉 (단위: ㎾h/월, 원, kg)

제품 형태	월간 소비전력량	연간 전기요금	연간 CO_2 배출량
스탠드형 평균	15.5	29,800	79.2
뚜껑형 평균	8.9	17,100	45.6

〈주위온도 별 연간 전기요금 비교〉 (단위: 원)

제품 형태	주위온도 상승 시 연간 전기요금 증가액 (증가배율)		
	16℃→25℃	25℃→32℃	16℃→32℃
스탠드형 평균	8,800 (1.5배)	14,400 (1.5배)	23,200 (2.2배)
뚜껑형 평균	6,700 (1.7배)	8,500 (1.5배)	15,200 (2.6배)

/소비자원

김치냉장고는 스탠드형보다 뚜껑형 제품의 전기요금 절감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김치냉장고 설치 장소에 따라 전기요금 차이도 컸다.

31일 한국소비자원이 소비자 선호도가 높은 주요 브랜드 6개 제품의 에너지소비량, 김치 저장온도 성능, 소음 등 품질과 성능을 시험평가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시험평가 대상 제품은 스탠드형 3개(삼성전자 RQ48A94W1AP, 위니아 BDQ48HKLKCN, LG전자 Z492GBB171S), 뚜껑형 3개(삼성전자 RP22A3231Z3, 위니아 BDL22HKSXS, LG전자 Z222MTT151) 제품 등 총 6종이었다.

김치용기 내부 실제 저장온도가 설정온도에 맞게 유지되는 지 보는 저장온도성능 품질은 전 제품이 우수했고 에너지소비효율등급도 표시등급인 1등급과 일치했다.

하지만, 에너지소비량은 뚜껑형 제품이 스탠드형 제품의 절반 수준으로 같은 용량의 김치를 저장할 경우 에너지 소비가 적은 것으로 파악됐다.

뚜껑형 제품 월간소비전력량 평균은 8.9킬로와트시(㎾h)로 스탠드형 제품(평균 15.5㎾h) 대비 평균 42.6% 적었고, 제품별 월간소비전력량은 스탠드형 중에서는 LG전자 제품(14.3㎾h)이, 뚜껑형 가운데는 위니아 제품(8.5㎾h)이 가장 낮았다.

김치냉장고 설치 주변 온도 등에 따라 전기요금 절감 차이가 컸다.

김치냉장고 설치공간의 주위온도가 16℃→25℃로 상승 시 연간 전기요금은 평균 1.7배, 16℃→32℃로 상승 시엔 평균 2.6배까지 늘었다.

스탠드형과 뚜껑형 유효용량은 2배 이상 차이났으나 김치용기 저장용량은 유사했다. 김치용기 저장용량은 스탠드형(평균 159.1L)이 뚜껑형(평균 140.7L)의 1.1배(18.4L 차이) 수준으로 크지 않았다.

제품 구입 가격은 스탠드형(323만원~330만원)이 뚜껑형 제품(124만원~144만원)보다 2배 이상 비쌌다.

사용하지 않는 저장실의 전원을 껐을 때 절전 여부·수준을 확인한 결과, LG전자 스탠드형 제품의 경우 소비전력량이 줄지 않아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LG전자측은 기존 판매제품에 대해서는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통해 개선토록 조치했고, 향후 생산제품에 대해서는 시정조치를 완료했다. 소비자원은 이러한 이행사항에 대해 지속 점검할 계획이다.

소비자원은 "김치냉장고는 김치뿐만 아니라 다양한 식품을 저장하는 다목적 냉장고로도 활용되는 만큼 제품 구매 전 저장기능, 편의 사항 등 필요한 기능의 구비 여부를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metroseoul.co.kr

환경부, 중앙亞 물산업 수출 기반 마련

투르크메니스탄서 열리는
협력토론회에 대표단 파견

환경부가 11월1~3일(현지시간) 투르크메니스탄에서 열리는 '제16차 한국-중앙아시아 협력토론회(포럼)'에 대표단을 파견, 국내기업 물산업 수출의 초석을 다질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표단은 환경부를 비롯해 외교부, 산림청, 한국수자원공사, 국가철도공단 소속 80여 명으로 구성된다.

첫날인 1일에는 한국수자원공사, 한국물산업협의회와 함께 토론회(기후변화·환경보호 부문) 참석자들을 대상, 우리나라의 물관리 정책 및 기술을 공유한다. 또 중앙아시아 국가와의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한·중앙아 협력 토론회는 중앙아시아 5개국과 경제, 문화, 환경 등 분야에서 포괄적 협력관계 구축을 위해 2007년에 출범한 정례 다자협의체이다. 5개국은 투르크메니스탄과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이다. 이번 토론회는 △교통/물류 △보건/의약품 △기후변화/환경보호 △정보통신기술 △교육/과학 △관광 등 6개 주제로 진행된다.

2일에는 투르크메니스탄 상공회의소 회관에서 열리는 '제5차 한-투르크메니스탄 사업 협의회'에 참석한다. 이 자리에서 환경부는 우리나라의 선진 물 기술 및 물산업 현황을 소개하고, 투르크메니스탄 물관리위원회 등 현지 정부 기관과 면담할 예정이다. 아울러 통합물관리, 해수담수화 등 실질적인 협력방안을 모색하여 물산업수출을 위한 기반 마련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김구범 환경부 수자원정책관은 "투르크메니스탄은 대륙성 사막기후의 물이 부족한 국가"라며 "방문을 계기로 투르크메니스탄의 효율적 수자원 보존 및 관리를 위한 양국 간 협력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

산업부-호주, 에너지공급망·CCS 협력 강화

〈이산화탄소 포집·저장〉

한·호 에너지자원협력좆 개최
국경 간 이산화탄소 이동 협약

정부가 호주와 핵심광물, 천연가스, 이산화탄소포집·저장(CCS) 등 에너지 공급망 협력을 강화한다. 양국 간 이산화탄소 이동 협약에도 힘을 모은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1일 호주 시드니에서 호주 기후변화환경에너지수자원부와 '제32차 한·호 에너지자원협력위원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1980년부터 개최돼 온 양국 간 에너지·광물자원 분야 공식 협력 채널로 작년 한국에 이어 올해 호주에서 열렸다.

양국은 글로벌 에너지·자원안보 위기가 고조되는 상황에서 오랜 신뢰와 협력 관계를 바탕으로 에너지 공급망을 강화해나가기로 합의했다.

또 핵심광물, 천연가스, CCS, 수소 등 분야에서 협력 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

특히 이번 위원회를 기점으로 우리나라 최초로 국경 간 이산화탄소 이동 협약 체결 작업을 호주와 함께 준비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2030년 탄소배출량을 2018년 대비 40% 감축을 목표로하고 있어 이산화탄소 처리·저장소 확보가 필요한 상황이다.

우리 측 수석대표로 참석한 이호현 산업부 에너지정책실장은 호주 기후변화환경에너지수자원부 차관보, 산업과학자원부 차관보 등 면담을 통해 양국 간 CCS 협력 사업이 속도를 낼 수 있도록 국경 간 이산화탄소 이동에 필요한 절차의 신속한 추진을 당부했다. 또 우리 기업이 참여 중인 호주 가스전 사업의 시추 인허가 지연 등 우리 기업 애로 해소를 촉구했다.

이 실장은 부대행사로 열린 '제4차 한·호 신에너지 포럼', '한·호 수소·CCS 비즈니스 세미나' 등 행사에 참석해 에너지 안보와 기후위기 대응 차원에서 양국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호주의 대표적인 CCS 프로젝트인 쉐브론 사의 고르곤 현장을 우리 기업·기관과 함께 방문해 향후 우리 기업들과의 성공적인 CCS 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협업 방안 등을 논의했다.

한편, 이번 호주 방문을 계기로 양국 기관·기업들은 수소, CCS분야에서 총 5건의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세종=한용수 기자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지난 9월 13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장관회의 주요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韓 기업 해외투자·진출여건 마련할 것"

산업부, IPEF 6차 협상 연내 타결 목표
청정경제 협력·공정 경제환경 조성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협상이 연내 타결을 목표로 속도감 있게 추진된다. 정부는 역내 규범 선진화 등을 통해 우리기업의 안정적 해외 투자·진출 여건 마련을 목표로 협상을 진행 중이다.

31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 15~24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진행된 IPEF 6차 협상에서는 필라3(청정경제)와 필라4(공정경제) 분야에서 상당한 진전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필라3 협정을 통해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역내 청정경제 협력으로 온실가스 감축 기술과 청정에너지 관련 투자확대, 시장 형성 등을 도모한다는 방침이다. 또 필라4 협상에서는 공정한 경제환경을 조성해 무역·투자 환경의 투명성을 제고해 우리 기업의 해외 투자·진출여건을 개선한다는 목표다.

정부 대표단은 이들 분야를 포함해 필라1(무역) 분야에서도 연내 성과 도출을 목표로 협상을 진행 중이다. 정부는 필라1 협상에서 역내 규범을 선진화함으로써 안정적이고 투명한 기업환경을 구축한다는 목표다. 필라1 협정 내에는 개도국에 대한 기술지원·경제협력, 외국인의 통신·유통·건설 등 서비스 공급 관련 절차 합리화 등 서비스 국내규제 등 11개 세부 분야별 협정이 포함된다.

향후 7차 협상은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진행될 예정으로, 산업부는 전날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 주재 통상추진위원회를 열고 차기 협상 추진 계획을 논의했다.

IPEF는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의 경제적 영향력 확대를 견제하기 위해 미국이 주도하는 다자간 경제협의체로 2021년 10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첫 제안한 이후 작년 5월 출범했다. 팬데믹을 계기로 중요성이 커진 공급망 회복력 강화 등을 중심으로 역내 경제통상협력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

우리나라를 비롯해 미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브루나이, 말레이시아, 필리핀, 인도네시아, 인도, ,피지 14개국이 참여하며, 이들 나라와 우리나라 교역규모는 3891억달러로 총교역 규모의 39.7%를 차지한다.

/세종=한용수 기자

외국인력 특화훈련 4000명으로 대폭 확대

고용부, 4주 이상 직무·언어 교육 제공

정부가 인력송출국의 현지 직업훈련 실시 국가 수를 비롯해 비전문 외국인력(E-9) 특화훈련 인원, 외국인 재직자 훈련직종 수 등을 확대할 계획이다. 특히 특화훈련 대상 인원을 기존 500명에서 내년에 4000명 수준까지 대폭 끌어올릴 방침이다.

이성희 고용노동부 차관은 31일 전남 영암에 위치한 현대삼호중공업을 방문해 이 같은 정부 방침을 밝혔다. 이 차관은 이날 저숙련 외국인력 대상 직업훈련을 실시하는 조선사 6곳의 현장 애로사항 등을 수렴했다. 현대삼호중공업과 HD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현대미포조선, 한화오션, 대한조선이다.

고용부는 올해 비전문 외국인력(E-9) 특화훈련을 조선업 대상으로 처음 도입해 시범운영 중이다. 산업현장의 인력난 대응을 도모하기 위함이다.

6개 조선사는 비전문 외국인력(E-9) 특화훈련을 통해 협력업체 근로자에게 4주 이상의 직무·언어·문화 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고용부는 "올해 연말까지 500여 명을 대상으로 이같이 훈련할 계획"이라며 "내년에 훈련 인원을 4000여 명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외국인력 수요 분석을 고도화해 내년도 고용허가제(E-9) 도입 규모를 예년보다 이른 11월 중에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세종=김연세 기자

GORILLA
KAFFEE
170년 가업으로 이어 온 독일의 장인정신
최상급 원두를 위한 최적의 로스팅
COFFEE IS PLEASURE. WE MAKE THE BEST OF IT. THERE IS NOTHING BETTER THAN SOMETHING GOOD.
THAT'S WHY WE MAKE VERY GOOD COFFEE. ENJOYMENT WITHOUT FRILLS. OUS HOUSE BRAND GORILLA

전남도, 세계 자연유산 '갯벌' 보전… 9228억 사업계획 수립

갯벌 보전·관리 5개년 종합계획
체계구축·관광 활성화 등 4개 분야
2.7조 생산효과·1740명 고용창출

신안 증도 갯벌

전남도가 유네스코 세계 자연유산으로 지정된 전남 갯벌의 지속 가능한 이용과 효율적 보전·관리를 위한 '전남도 갯벌 보전·관리 5개년 종합계획'을 수립했다. 31일 전남도에 따르면 2024년부터 2029년까지 추진하는 종합계획은 '자연과 인간이 상생하는 전남 갯벌' 비전 실행을 목표로 마련됐다.2024년 준비 기간을 시작으로 2025년부터 2029년까지 9228억원 규모의 4개 분야 29개 사업계획을 수립했다.

4개 분야는 '갯벌 보전·관리 체계 구축', '갯벌 생태계 복원사업 체계 구축', '갯벌 생태관광 활성화', '갯벌 우수성 확보와 협력체계 구축'이다.분야별로 '갯벌 보전·관리 체계 구축'은 보성·순천 여자만과 신안·무안을 대상으로 추진한다.

국가해양생태공원 조성, 갯벌생명관 건립, 해양생태계 서비스 직불제 등 10개 사업에 5840억원을 들여 체계적 보전·관리체계 기반을 구축할 계획이다. '갯벌 생태계 복원사업 체계' 구축은 7개 시·군 29곳에 1660억원 규모의 갯벌 생태계 복원사업을 비롯해 5개 사업에 355억원을 투입해 친환경 자연 퇴적화, 자연습지 생태 모델화 사업 등 갯벌 유형별 생태계 복원을 추진해 어업의 지속성 등을 확보할 계획이다.

'갯벌 생태관광 활성화'도 추진한다. 전남 갯벌의 세계유산 축전, 탐조관광, 생태마을 지정 등 6개 사업에 245억원을 들여 전남 갯벌의 해양생태적 가치와 문화관광 자원을 연계한 갯벌 생태관광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갯벌 우수성 확보와 협력체계 구축' 분야는 전남 갯벌 농·어업유산 등재, 한국 갯벌도시 협력 네트워킹 구축 등 8개 사업에 88억원을 들여 전남 갯벌의 세계화와 가치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전남도의 갯벌 보전관리 종합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되면 지역 내 2조7216억원의 생산 효과와 약 1740명의 고용창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전남도는 내년 한 해를 단위 사업별 행정절차와 여자만 국가해양생태공원 조성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등을 철저히 준비하는 기간으로 정하고 본 사업은 2025년부터 예산투자계획을 마련해 실행력을 높일 계획이다.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전남도 갯벌 보전·관리 종합계획을 통해 전남 갯벌 보전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다양한 정책과제를 발굴해 전남 갯벌의 가치 증진과 지역 발전이라는 일거양득의 성과를 냄으로써 대한민국 갯벌 정책을 주도하겠다"고 말했다.

'한국의 갯벌'은 지난 2021년 7월 전남 갯벌을 중심으로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됐다.

전남도는 2022년 10월 해양수산부의 갯벌 세계자연유산 보전원을 신안에 유치했다.

/전남=양수녕 기자 ysn6313@metroseoul.co.kr

가덕도신공항, 시행령 개정 창원·거제시 개발 '청신호'

주변개발지역 10㎞ 이상 추가 확대
트라이포트 배후지역 기초법령 마련

가덕도신공항 건설 조감도.

경남도는 가덕도신공항 주변개발 예정지역을 반경 10㎞ 이상에서도 추가로 확대 지정할 수 있도록 한 '가덕도신공항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돼 창원·거제지역 개발에도 청신호가 켜졌다.

가덕도신공항법은 2021년 11월 5일 개정된 이후 경남도에서 1년 6개월 동안 해상 공항의 지리적 특수성 등을 반영해 줄 것을 지속해서 건의했다.

그 결과 올해 5월 16일 공항개발예정지역 반경 10㎞ 범위 밖에서도 주변개발 예정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신공항특별법이 제정됐으며 세부적인 지정 기준을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한 바 있다.

이후 경남도는 법 개정의 후속조치로 가덕도신공항 주변지역인 창원시, 거제시가 주변개발예정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시행령(안)을 마련하고 국토교통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건의해 왔으며 시행령 개정안이 30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것이다.

특히 이번 시행령 개정안 통과는 경남도에서 지난 2년간 지속적으로 추진해온 가덕도신공항 배후지역 개발을 위한 관련법의 개정이 마무리되고 트라이포트 배후지역의 개발을 위한 기초 법령이 마련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매우 크다. /경남=이도식 기자 metrobusan@

부산 의료서비스·관광자원, 몽골 전역 전파

부산경제진흥원, 다큐 촬영 지원

부산의 우수한 의료 서비스와 관광자원에 관한 다큐멘터리가 몽골 현지 방송을 통해 몽골 전역에 전파될 예정이다.

부산경제진흥원은 지난 21일~24일 몽골 주요 방송 관계자 38명을 초청해 부산의 의료기술과 관광자원을 담은 '부산 의료관광과 웰니스 자원' 다큐멘터리 촬영을 지원했다.

몽골 디지털개발부 오츠랄 니암오소르 장관이 인솔한 방문단은 부산의 의료기관과 웰니스 시설을 직접 방문하고 체험했으며, 이런 과정을 담은 다큐멘터리가 몽골 전역에 올해 안에 방송될 예정이다.

이번에 제작되는 다큐멘터리는 지난 7월 몽골 울란바토르에서 개최한 '부산 첨단 의료기술 홍보사업'의 후속 사업으로 부산경제진흥원과 몽골 Malchin TV가 함께 준비해왔다.

4일간 부산 탐방기를 담은 다큐멘터리는 부산을 찾는 몽골 관광객을 위해 부산의 첨단 의료기술을 소개하고 바다와 온천을 테마로 한 관광자원을 소개한다. 몽골 디지털개발부 오츠랄 니암오소르 장관을 비롯해 방송사 대표 등 방송 관계자 38명이 부산의 의료 기관과 웰니스 시설을 직접 방문, 체험하는 콘텐츠를 다큐멘터리에 담았다. /부산=이도식 기자

금감원-부산시, '해양금융컨벤션' 개최

해양금융 최신 동향·부산 발전전략

금융감독원은 31일 부산광역시와 공동으로 '2023 부산 해양금융컨벤션'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지난 2013년부터 매년 개최된부산 해양금융컨벤션은 해양금융 분야 최신 동향 및 해양금융 중심지 부산의 발전전략을 다루는 국제행사다. 2021년부터는 유사 성격의 부산 지역 해양금융 행사들과 통합 후 확대 개편해 부산 해양·금융위크 기간 중에 열고 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환영사를 통해 "해양산업을 지원하는 해양금융이 단순한 대출, 차입을 통한 일시적인 유동성 지원에서 벗어나 산업과의 긴밀한 관계를 토대로 국제적인 ESG 기준에 적합한 '맞춤형 종합금융서비스'로 변화되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 우리나라 무역의 99%가 해상운송을 통해 이루어지는 등 해양산업은 우리 경제에 매우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안상미 기자 smahn1@

섬진강, 연어회귀 늘어… 생태계 회복

전남해양수산과학원, 연어 방류
235마리 모천 회귀… 전년比 410%↑

섬진강이 연어 자원 회복을 통해 건강한 생태계를 품은 하천으로 다시 태어나고 있다. 전남도해양수산과학원은 우리나라 최남단 연어 산란장인 섬진강에 지난 10월 10일부터 어미 연어가 본격적으로 돌아오고 있다.

올해 섬진강으로 돌아온 연어는 지난해보다 이틀 늦었지만 10월 말까지 235마리로 파악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46마리보다 189마리(410.8%)나 증가한 것이다.

전남도해양수산과학원은 연어 자원 조성과 수생태계 보전을 위해 1998년부터 어린 연어를 방류하고 있다.

올해 돌아온 연어는 3~5년 전에 방류한 어린 연어가 북태평양 베링해와 알래스카 연안 등지에서 60~100㎝ 크기로 성장한 어미 연어다. 산란을 위해 태어난 고향 섬진강으로 모천 회귀한 것이다.

전남도 섬진강어류생태관이 포획한 연어. /전남도

섬진강어류생태관은 오는 11월30일까지 섬진강 연어 회귀량을 조사한다. 조사를 통해 연어 회귀율과 연령 등을 분석해 연어 연구와 방류에 활용할 방침이다. /전남=양수녕 기자

지역 이모저모

영주시

소 럼피스킨병 백신접종 총력

경북 영주시(시장 박남서)는 소 럼피스킨병(LSD)의 유입을 막기 위해 오는 11월 10일까지 소 사육농가 전체에 백신을 접종할 계획이다.

지난 10월 19일 충남 서산 한우농장에서 럼피스킨병(LSD)이 첫 발생한 이후, 경남과 경북지역을 제외한 6개 시·도, 22개 시·군에서 총 64건이 발생해 그 어느 때보다 차단 방역이 절실한 시기이다. 시는 럼피스킨병 백신이 31일 공급됨에 따라 접종지원 9개반을 편성해 관내에서 사육하고 있는 소 5만 7000두에 대해 이달 10일까지 백신 접종을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영주(경북)=김동국 기자 kdg7677@

창원시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자 모집

창원시는 취업 취약계층인 장애인에게 맞춤형 일자리 제공을 통한 사회 참여 확대 및 소득 보장 지원을 위해 11월 1일부터 15일까지 '2024년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 모집 인원은 일반형 일자리 159명(전일제 118명, 시간제 41명), 복지형 일자리 62명 등 3개 분야에서 총 221명이다.

장애인일자리사업은 만 18세 이상 창원시 거주 등록 장애인으로 미취업 장애인이 신청할 수 있으며, 참여를 희망하는 자는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 신청서 등 준비 서류를 지참해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창원(경남)=이도식 기자

김해시

울릉도 여객 노선 시민 할인

김해시와 ㈜대저해운은 포항~울릉도~독도 여객 노선의 운임을 김해시민을 대상으로 할인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관광상품 개발의 일환으로 이달부터 울릉도 방문 시 주중, 주말 할인율 적용 시 좌석에 따라 1만5,900원에서 최대 8만5,000원(편도 기준)까지 할인받을 수 있다. 김해시민이 관내 관광시설 이용 시 제공되는 할인 서비스 차원을 넘어 우리나라 대표 관광지인 울릉도 여행 시 직접적인 여행경비 부담을 줄일 수 있어 시민들이 체감하는 실질적인 효과는 상당할 전망이다.

/김해(경남)=장병호 기자 metrobusan1@

여수시

여수산단 작년 매출액 111.5兆

전남 여수국가산단의 작년 매출액은 111조5094억 원, 수출액은 521억불로 집계됐다. 이는 2021년 매출액 77조 9555억 원, 수출액 395억 불 보다 크게 늘어난 수치다.

또 2022년 여수산단의 지방세 납부액은 2017억 원으로 전년에 비해 779억 원이 증가했고, 국세 납부액은 9조 4095억 원을 납부한 것으로 조사됐다.

31일 여수시여수산단공동발전협의회(공발협)은 여수국가산업단지 정보체계 구축을 위해 2022년 산업 동향 및 각종 현황을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여수(전남)=전정신 기자 spirit@

"엄마의 자장가 처럼… 오늘도 잠 못드는 그댈 도와드려요"

식품업계, 숙면 제품 줄이어

hy '수면케어 쉼' 한달만에 100만병 '베스트셀러'

KGC인삼공사 체계적 수면관리 '더블 수면&스트레스케어' 선봬

깊게 잠들지 못하는 불면증을 겪는 사람들이 늘면서 국내 수면 관련 시장이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수면과 경제학의 합성어인 '슬리포노믹스(sleeponomics)'라는 신조어가 등장하는 등 숙면을 위해 지갑을 여는 소비자가 늘자 식품업계도 수면 시장 공략에 나섰다.

한국수면산업협회에 따르면 2011년 4800억원에 불과했던 국내 수면 관련 시장 규모는 2021년 말 기준 3조원대로 급성장했다.

수면장애 환자가 늘면서 시장이 성장한 것이다. 실제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자료를 보면 2021년 수면장애로 병원을 찾은 사람은 70만9233명으로 5년 전인 2016년 49만4915명보다 43.3% 늘었다. 작년에는 한해에만 116만3073명이 병원을 찾아 110만명을 넘어섰다.

hy가 출시한 기능성 음료 '수면케어 쉼'

더블 수면&스트레스케어 /KGC인삼공사

이에 hy는 수면 기능성 음료 시장이 본격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판단, 간편하게 음용할 수 있는 음료 형태 제품을 선보였다.

31일 업계에 따르면 hy가 지난 8월 23일 출시한 기능성 음료 '수면케어 쉼'은 출시 한 달만에 100만병 이상 판매되며 자사몰 베스트셀러에 진입했다.

'쉼'은 hy가 정신·육체적 건강에 신경쓰는 소비자들이 늘어남에 따라 지난 2월 선보인 기능성 음료 브랜드다. hy는 그동안 장 건강 중심의 발효유 제품을 주력으로 선보여왔지만, 쉼 브랜드를 통해 '멘탈 헬스케어'로 영역을 확장했다.

'수면케어 쉼'은 특허 프로바이오틱스와 아쉬아간다 추출물을 함유해 장 건강과 수면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게 제조했다. 아쉬아간다 추출물은 6000년 전부터 고대 인도 아유르베디에 기록된 식물유래 전통 원료다. 수면 관련 개별 인정형 소재 중 수면 후 개운한 정도의 척도인 '회복성 수면 점수'와 '심리적, 육체적 삶의 질 척도' 개선이 입증된 소재다.

KGC인삼공사도 아쉬아간다 추출물과 긴장 완화 성분인 테아닌을 동시에 섭취 가능하도록 설계한 멀티 PTP 제품 '더블 수면&스트레스케어'를 선보였다.

수면 기능성 제품 중 유일하게 스트레스까지 함께 체계적인 수면 관리가 가능하다. 제품은 공기, 온도, 습도, 빛에 민감한 연질캡슐과 정제 보호를 위해 각각 PTP 포장을 적용해 제품의 안전성과 휴대성을 모두 갖췄으며, 필요에 따라 스트레스로 인한 긴장케어와 수면케어를 따로 챙길 수 있어 복합적인 수면케어가 가능한 제품이다.

빙그레는 '릴렉싱 라떼(Re:LAX)'를 선보여 소비자들의 관심을 모았다. 커피와 맛과 향이 유사하지만, 릴렉스 콘셉트의 기능성 음료다. 치커리로 맛을 내 무카페인이며, 설탕 대신 감미료를 넣어 일반 라떼 제품보다 칼로리도 낮다. 온라인 채널과 일부 대형마트에서 판매 중이며 소비자들의 반응이 좋은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관계자는 "수면과 관련된 문제는 성별과 나이를 불문하고 모든 사람에게 많이 발생하고 있으며 그만큼 질 좋은 수면에 대한 관심도 또한 높아질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밖에 CJ제일제당의 계열사 CJ웰케어는 지난 4월 편안한 잠을 위한 건기식 '닥터뉴트리 슬립메이트 락티움'을 출시했으며 웅진식품은 스트레스로 인한 피로 개선과 긴장 완화를 돕는 액상형 영양제 '솔브앤고 피로&스트레스케어' 제품을, 농심은 '라이필'을 종합 건기식 브랜드로 육성하기로 하고 정신 건강과 대사증후군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제품을 꾸준히 선보일 계획이다.

업계 관계자는 "스트레스와 수면장애는 뗄 수 없는 관계이며, 스트레스는 정신 건강과 밀접하게 연관돼 있다"며 "멘탈 케어 시장이 지속 성장할 것으로 예상해 관련 제품 기획에 나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신원선 기자 tree6834@metroseoul.co.kr

현대그린푸드, 단체급식 매출 20% '껑충'

수주기업의 30% 가량 IT 기업
BBQ플래터 등 특화메뉴 인기

현대그린푸드가 연이은 단체급식사업 수주로 함박웃음을 짓고 있다.

현대백화점그룹 계열 종합식품기업 현대그린푸드는 최근 1년간 네이버·네오플 등 40여 기업의 단체급식사업(1일 3만식 규모)을 수주해 운영하고 있다고 31일 밝혔다.

이 기간 단체급식 매출은 20% 이상 늘었다. 기존 엄격한 위생관리 능력과 서비스 품질 그리고 식자재 소싱 역량에, 현대그린푸드만의 차별화된 단체급식 콘텐츠를 접목한 게 수주 확대로 이어졌다는 분석이다. 특히 눈길을 끄는 건 단체급식을 수주한 기업 중 30% 가량이 IT기업이었다는 점이다.

현대그린푸드가 운영 중인 단체급식사업장에서 '즉석 참치해체쇼'가 진행되고 있다. /현대백화점그룹

현대그린푸드가 운영 중인 전문 외식 브랜드의 인기 메뉴를 단체급식 특화메뉴로 선보여 고객사 젊은 직원들로부터 인기가 높다. 미국 스테이크 전문점 '텍사스 로드하우스'의 BBQ 플래터, 이탈리아 프리미엄 식문화 공간 '이탈리'의 뽀모도로 파스타, '한솔냉면'의 물냉면 등이 대표적이다.

현대그린푸드 관계자는 "최근 특화메뉴를 정기적으로 제공하는 것을 입찰 조건으로 제시하는 고객사가 늘고 있는 상황에서 더현대 서울·현대백화점 판교점 등에 입점한 인기 레스토랑 음식을 특화메뉴로 제공해 MZ세대 직원은 물론, 제주도 등 지방에 위치한 고객사 직원들로부터 뜨거운 반응을 얻고 있다"고 전했다.

고퀄리티 간편식 코너를 운영하고 있는 것도 기업들이 현대그린푸드를 선택하는 배경 중 하나다. 현대그린푸드는 저당·저열량·고단백질 등 특정 영양성분 섭취조절에 특화된 간편식 브랜드 '그리팅'을 제공하는 별도의 코너를 운영하고 있다. /신원선 기자 tree6834@

동원그룹, F&B 부회장에 김재옥 선임

홈푸드 축육부문 대표이사에 이영상

동원그룹이 2024년 대표이사급 인사를 단행한다고 31일 밝혔다. 발령일자는 11월 1일이다.

동원그룹은 동원산업 ESG 경영위원회 위원장을 맡아온 김재옥 사장을 부회장으로 승진시켜 동원F&B 부회장으로 선임했다. 김재옥 신임 부회장은 앞으로 동원F&B의 미래 신사업을 강화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동원그룹은 또 2015년 금천미트 인수 단계부터 축산물 유통 사업 이끌어온 이영상 동원홈푸드 축육부문 상품본부장(전무)을 동원홈푸드 축육부문 대표이사로 신규 선임했다.

이영상 신임 대표는 동원F&B, 동원홈푸드에서 영업, 마케팅 등을 경험한 식품 비즈니스 전문가로 B2B에 집중된 축육사업을 B2C까지 확장시켜 나갈 계획이다.

김재옥 동원F&B 부회장

이영상 동원홈푸드 축육부문 대표이사

한편, 동원시스템즈 소재사업부문 장성학 대표이사가 일신 상의 이유로 사임함에 따라 조점근 동원시스템즈 2차전지사업부문 대표이사가 소재사업부문 대표직을 겸임한다.

동원그룹 관계자는 "불확실한 비즈니스 환경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신사업을 육성하고 사업부문별 전문성을 강화하는 내용의 대표이사급 인사를 실시했다"고 말했다. /신원선 기자

세븐일레븐, 해외 유명 먹거리 총집합

美·日 등 5개국 현지상품 36종 선봬

세븐일레븐은 주요 해외 세븐일레븐과의 공고한 협력 관계를 통해 현지 편의점 인기 상품들을 직소싱해 선보인다고 31일 밝혔다. 이를 통해 타 브랜드와 구별되는 세븐일레븐 고유의 상품MD 운영 체계를 확립하고 가맹점의 매출과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본원적 경쟁력으로 삼는다는 계획이다.

세븐일레븐은 1927년 미국 댈러스에서 태동한 세계 최초의 글로벌 프랜차이즈 편의점 브랜드로서 현재 전세계 20개국, 8만5000여 점포가 운영 중이다. 하루 이용객만 6000만명이 넘는다.

세븐일레븐은 이 같은 글로벌 세븐일레븐 패밀리십을 활용해 미국, 태국, 대만, 베트남, 일본 등 5개국 현지 세븐일레븐의 인기상품을 선별해 총 36종의 히트상품을 선보였다. 국가별로는 대만 4종, 미국 3종, 태국 4종, 베트남 2종, 그리고 일본 23종이다.

대표상품으로는 ▲베트남 세븐일레븐이 자랑하는 전통 쌀국수 '비폰닭고기쌀국수' ▲태국 과자 판매 1위 새우과자 '오쿠스노' ▲대만 현지인들의 최애 먹거리 우육면을 컵라면으로 만든 '만한대찬' ▲일본여행 편의점 필수 구매 상품으로 잘 알려진 '랑그드샤화이트초코', '스트롱사와레몬' 등이 있다.

'블랙위메프데이' 개최

위메프, 11억 규모 혜택

위메프가 11월 쇼핑 시즌을 맞아 연중 최대 특가 행사의 막을 올린다.

위메프는 11월 1일부터 일주일 동안 '블랙위메프데이'를 개최한다고 31일 밝혔다.

3년 만에 재개하는 만큼 위메프는 적립 포인트와 할인 쿠폰 등의 혜택을 최대 규모로 제공할 방침이다.

특히 '블랙 포인트 리워드'는 기존 포인트 적립 혜택을 확장한 11억원 규모의 행사다. 행사 상품 10만원 이상 구매 시 선착순 2만 명에게 결제 금액 최대 50% 상당의 위메프 포인트를 지급한다. /이청하 기자 mlee236@

'CU머니' 론칭 한 달… 가입자 5만명 돌파

연령별 20대 26%, 30대 24% 순서

CU가 지난달 선보인 자체 선불 충전 간편 결제 서비스인 'CU머니'의 가입자 수가 론칭 약 한 달 만에 5만명을 돌파했다고 31일 밝혔다. CU머니는 CU의 커머스 앱인 포켓CU 내 모바일 카드에 현금을 충전하고 은행 계좌와 연동해 사용하는 간편결제 서비스다.

CU머니의 가입자 수는 론칭 일주일 만에 1만명을 쾌속 돌파했고 이후 매주 가입자 수가 주간 평균 172.2%씩 증가하며 이달 26일 5만명을 넘어섰다.

특히, CU머니에 대한 관심은 상대적으로 주머니 사정이 가벼운 20대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지난달 CU머니 전체 가입자의 연령대별 비중을 살펴보면, 20대가 26.4%로 가장 높았고 30대 24.5%, 10대 19.1%, 40대 17.6%, 50대 이상 12.4%의 순을 보였다.

20대의 이용률이 높은 이유는 최근 고물가 시대에 젊은층을 중심으로 짠테크 문화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CU머니를 통해 알뜰 소비와 함께 파격적인 혜택을 동시에 누릴 수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구매력이 가장 낮은 10대들의 가입 비중이 40대와 50대 중장년층의 비중을 넘어서는 것도 흥미로운 부분이다. 10대의 가입을 이끈 것은 'CU머니 패밀리'의 역할이 컸다. /최빛나 기자 vitna@

아모레퍼시픽, 3분기 마이너스 '늪' 美·유럽 등 글로벌 시장 '새판' 짠다

中 등 아시아 시장 매출 하락
주요 자회사 마케팅 투자 확대
"브랜드 코어 강화 작업 매진"

〈아모레퍼시픽 분기 실적〉

구분	22년 3분기	23년 3분기
매출액	10,218	9,633
영업이익	330	288
당기순이익	323	417

단위 : 억원 /아모레퍼시픽그룹

아모레퍼시픽이 국내와 중국에서 부진한 실적을 해외사업 다각화로 만회하겠다는 전략을 본격화하고 있다.

31일 아모레퍼시픽그룹에 따르면 아모레퍼시픽은 올해 3분기 연결 기준 9633억원의 매출액과 288억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해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은 5.7%, 영업이익은 12.7% 각각 감소했다고 밝혔다.

특히 아모레퍼시픽의 해외 사업은 미주, 유럽·중동(EMEA), 일본 등 해외 시장에서 매출 성장세를 보였으나 중국을 비롯한 아시아 시장에서 매출이 하락하며 전년 대비 4% 감소한 3177억원의 매출을 기록했다.

아모레퍼시픽에 따르면 35%의 매출이 성장한 미주 지역에서는 설화수와 이니스프리 등 핵심 브랜드가 선전했다. 설화수는 '6세대 윤조에센스'를 출시했고, 이니스프리는 멀티브랜드숍 채널을 통해 고객과의 접점을 확대했다.

유럽·중동(EMEA) 지역에서는 라네즈를 중심으로 매출이 41% 증가했다. 라네즈는 '워터뱅크'를 주제로 글로벌 캠페인을 진행해 인지도를 높였다.

라네즈는 글로벌 캠페인을 통해 한국, 미국, 중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태국 등 6개국 인플루언서와의 인터뷰 등 다양한 콘텐츠를 선보인 바 있다. 또 멕시코 세포라에 론칭하며 중남미 시장 진출을 위한 교두보를 마련하기도 했다.

이밖에 일본에서도 라네즈와 이니스프리의 매출이 확대되고 헤라와 에스트라 등 새로운 브랜드가 출시되면서 현지화 기준 전체 매출이 30% 이상 성장했다.

헤라는 앞서 지난 8월 일본 도쿄 대형 쇼핑몰 '스크램블 스퀘어'에서 브랜드 팝업 스토어를 운영해 현장을 방문하는 고객들이 브랜드 대표 제품을 체험하도록 했다. 지난 9월에는 일본 최대 규모 뷰티 정보 플랫폼이자 멀티브랜드숍 '아토코스메'에 공식 입점했다.

아모레퍼시픽 관계자는 "추가로 브랜드 팝업 스토어를 운영할 계획이고 온라인 채널 입점도 확장할 예정이다"라며 "일본 현지에서 뉴 럭셔리 메이크업 브랜드로 자리매김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니스프리·에뛰드·에스쁘아·아모스프로페셔널·오설록 등 주요 자회사들도 신제품 출시 및 마케팅 투자 등 미래 성장동력 확보에 주력할 방침이다.

에뛰드는 신제품 '베어꾸 컬렉션' 출시와 함께 '컬픽스 마스카라' 등 핵심 제품의 판매 호조로 전체 매출이 성장했다. 매출 확대 및 채널 수익 구조 개선으로 영업이익도 3배 성장했다.

오설록은 제주 티뮤지엄 및 티하우스의 방문객이 증가하며 오프라인 매출이 성장했다.

아모레퍼시픽 관계자는 "각 브랜드의 핵심 가치를 분명하게 하는 브랜드 코어 강화 작업에 매진하고 있다"며 "나아가 고객 공감 콘텐츠를 개발하고 엔진 상품을 강화해 브랜드 가치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청하 기자 mlee236@metroseoul.co.kr

KT&G가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 위치한 UNTAR 대학교에서 '상상 창업스쿨'의 최종 결선 행사인 IR 피칭데이를 지난 28일(현지시간) 개최했다. 사진은 본선에 진출한 참가자들이 최종 행사를 마치고 기념 촬영을 하는 모습 /KT&G

KT&G, 인니 등서 글로벌 'CSR' 활동

UNTAR 대학서 IR 피칭데이

KT&G가 한국과 인도네시아 수교 50주년을 기념해 대학생 창업지원 및 문화축제 개최, 교육환경 개선 등 다양한 글로벌 CSR 활동을 전개했다.

KT&G는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 위치한 UNTAR 대학교에서 '상상 창업스쿨'의 최종 결선 행사인 IR 피칭데이를 지난 28일 개최했다고 31일 밝혔다.

'상상 창업스쿨'은 KT&G의 현지 대학생 대외활동 커뮤니티인 'KT&G 상상유니브 인도네시아'가 운영하는 대학생 창업지원 프로그램으로 그동안 대학생 아이디어 공모전을 통해 예선에 진출하는 91개 팀을 선발했다. IR 피칭데이에서는 91개 팀 중 최종 선정된 15개 팀이 각자의 창업 아이디어를 발표했으며, 이들에게는 전문가의 피드백과 상금이 주어졌다.

앞서 전날에는 현지 대학생들에게 K-콘텐츠를 소개하는 '상상페스타'를 27일 열었다. 자카르타 주립대에서 열린 이번 행사는 현지 인기 가수의 라이브 콘서트를 비롯해 K-팝 보컬과 댄스, 전통무용 등 '상상유니브' 클래스 참가자들의 다채로운 공연들로 구성됐다. 한국문화 체험부스도 마련됐으며, 약 1000명이 넘는 현지 대학생이 방문해 한국문화 축제를 즐겼다.

'상상페스타' 행사장 내외부에는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응원하는 현수막과 배너 등이 설치됐다. 또, 행사 도중 부산세계박람회 홍보 영상이 상영되는 등 인도네시아 대학생들도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응원에 동참했다. /신원선 기자

hy, 변경구 대표 선임… 종합유통기업 '잰걸음'

변 신임 대표, 영업부문장 등 역임
다수 전략제품 기여… 기대감 고조

hy는 신임 대표이사로 변경구 부사장을 선임했다고 31일 밝혔다.

변경구 신임 대표이사(사진)는 2015년 영업부문장을 맡아 영업 현장을 총괄하며 판매 채널 경쟁력 향상을 위한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다. 2018년부터는 마케팅부문장으로서 '장케어 프로젝트 MPRO3' 등 다수의 전략 제품 론칭에 기여했다.

그동안 영업전략을 거쳐 영업부문장, 마케팅부문장, 투자관리부문장을 역임하며 폭넓은 실무 경험을 쌓아온 만큼 내부에서 기대하는 바가 크다.

올초 내홍을 겪으면서 메쉬코리아를 인수한 hy는 변경구 신임 대표이사 지휘 하에 종합유통기업으로 한걸음 더 나아갈 방침이다.

우선 유통 물류망을 강화하고 다양한 서비스를 론칭해 배송 카테고리를 확장할 것으로 보인다. 전국 곳곳에 뻗어있는 1만1000명 규모의 '프레시 매니저'와 메쉬코리아의 라이스마일 배송이 기대되는 지점이다.

또한, 다수의 전략 제품을 선보인만큼 향후 기능성 제품 출시에도 힘쓸 것으로 보인다. hy는 지난 2월 스트레스로 인한 긴장 완화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스트레스케어 쉼'을 출시했다. 이후 8월에는 후속 제품인 '수면케어 쉼'을 공개하는 등 케어 제품에 공을 들이는 모습이다.

글로벌 제품 판매에도 열을 올릴 전망이다. hy는 2021년 출시한 B2B(기업간 거래) 전문 브랜드 에치와이랩스를 통해 해외 기능성 프로바이오틱스 시장 진출을 위한 절차를 밟고 있다. 에치와이랩스 론칭 이후 미국 식품의약국 신규 기능성 소재 등록을 하는 등 해외 진출을 지속적으로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다.

'에치와이랩스 팻슬림'과 '에치와이랩스 스킨케어'의 로고와 상표 등을 한국 미국 캐나다 유럽 등 총 11개 국가에 최근 등록했다.

한편, 2018년부터 hy를 이끌어온 김병진 대표이사는 6년간의 임기를 끝으로 대표이사직에서 물러났다.

/신원선 기자 tree6834@

브릿지바이오, 'BBT-207' 첫 환자 투약

〈4세대 폐암 치료제 후보물질〉

임상 1/2상 돌입… 3단계 진행

비소세포폐암 치료 영역에서 전 세계적으로 차세대 치료제 개발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브릿지바이오테라퓨틱스가 자체 발굴한 'BBT-207'이 환자 대상 임상에 진입한다.

혁신신약 연구개발 전문 기업 브릿지바이오테라퓨틱스는 4세대 폐암 표적치료제 후보물질 'BBT-207'의 임상 1/2상 첫 환자 투약을 국내 삼성서울병원에서 개시했다고 31일 밝혔다.

브릿지바이오는 'BBT-207'을 4세대 표피성장인자수용체(EGFR) 티로신 인산화효소 억제제로 개발 중이다. 'BBT-207'은 비소세포폐암 환자에서 3세대 EGFR 저해제 치료 이후 내성으로 나타나는 C797S 양성 이중 돌연변이 등 다양한 돌연변이를 선택적으로 저해하는 기전을 갖는다.

이번 임상에서 브릿지바이오는 미국과 한국의 비소세포폐암 환자 중 3세대 EGFR 저해제 중 하나 이상으로 치료 후 질병이 진행된 환자 92명을 대상으로 약물의 효능과 안전성을 최초로 탐색한다.

무엇보다 BBT-207의 임상 1/2상은 총 3단계로 진행된다. 임상 1a상에 해당하는 용량상승시험을 통해 약물의 효력, 안전성 등을 평가해 '권장 용량 범위'를 결정한다.

임상 1b상에서는 '제2상 권장 용량'을 결정한다. 이후 임상 2상 단계의 용량확장시험에 진입하면 약물의 객관적 반응률 등을 측정해 약물의 항종양 활성을 탐색할 예정이다.

아울러 브릿지바이오는 혈액 속 종양 유전자를 통해 종양세포의 돌연변이 정보를 분석하는 액체생검 절차 등을 적용해 돌연변이별 환자군 데이터도 파악할 계획이다.

/이청하 기자

셀트리온, '정보보호 관리' 국제표준 인증

GMP 전반 'ISO 27001' 획득

셀트리온이 기술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정보보안 수준을 높이고 있다.

셀트리온은 핵심 기술 경쟁력을 취급하는 우수의약품제조품질관리기준(GMP) 전반에 대해 국제표준 인증 'ISO 27001'을 획득했다고 31일 밝혔다.

'ISO 27001'은 국제표준화기구(ISO)에서 제정한 정보보호 관리체계 관련 국제 인증이다. 정보보호 관리 영역 11개 분야와 133개 통제 항목에 대한 심사와 검증을 통과해야 한다.

셀트리온은 이번 'ISO 27001' 획득을 계기로 ▲국가핵심기술 보호 ▲ESG 경영기반 확보 ▲정보보안 신뢰성 증대 및 기업이미지 제고 ▲국내·외 규제기관 및 외부감사 대응력 확보 등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이청하 기자 mlee236@

지난 30일 인천 송도 셀트리온 본사에서 열린 'ISO 27001 인증 수여 행사'에서 (왼쪽)김상욱 셀트리온 정보보호담당장과 (오른쪽)임성환 영국왕립표준협회 코리아 대표이사가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셀트리온

GC녹십자웰빙, 'PNT 혈당케어' 출시

바나바잎 추출물 1.3㎎ 포함

불규칙한 생활습관, 과도한 당 섭취, 과식 등으로 인해 식후 혈당관리가 필요한 현대인들을 위해 GC녹십자웰빙이 신제품 'PNT 혈당케어'를 출시한다고 31일 밝혔다.

'PNT 혈당케어'는 식후 혈당 상승을 억제하는 기능을 한다. 특히 바나바잎 추출물 일일 섭취량 최대 권장량인 1.3㎎을 포함했다. 바나바잎은 식후 혈당상승 억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코로솔산을 함유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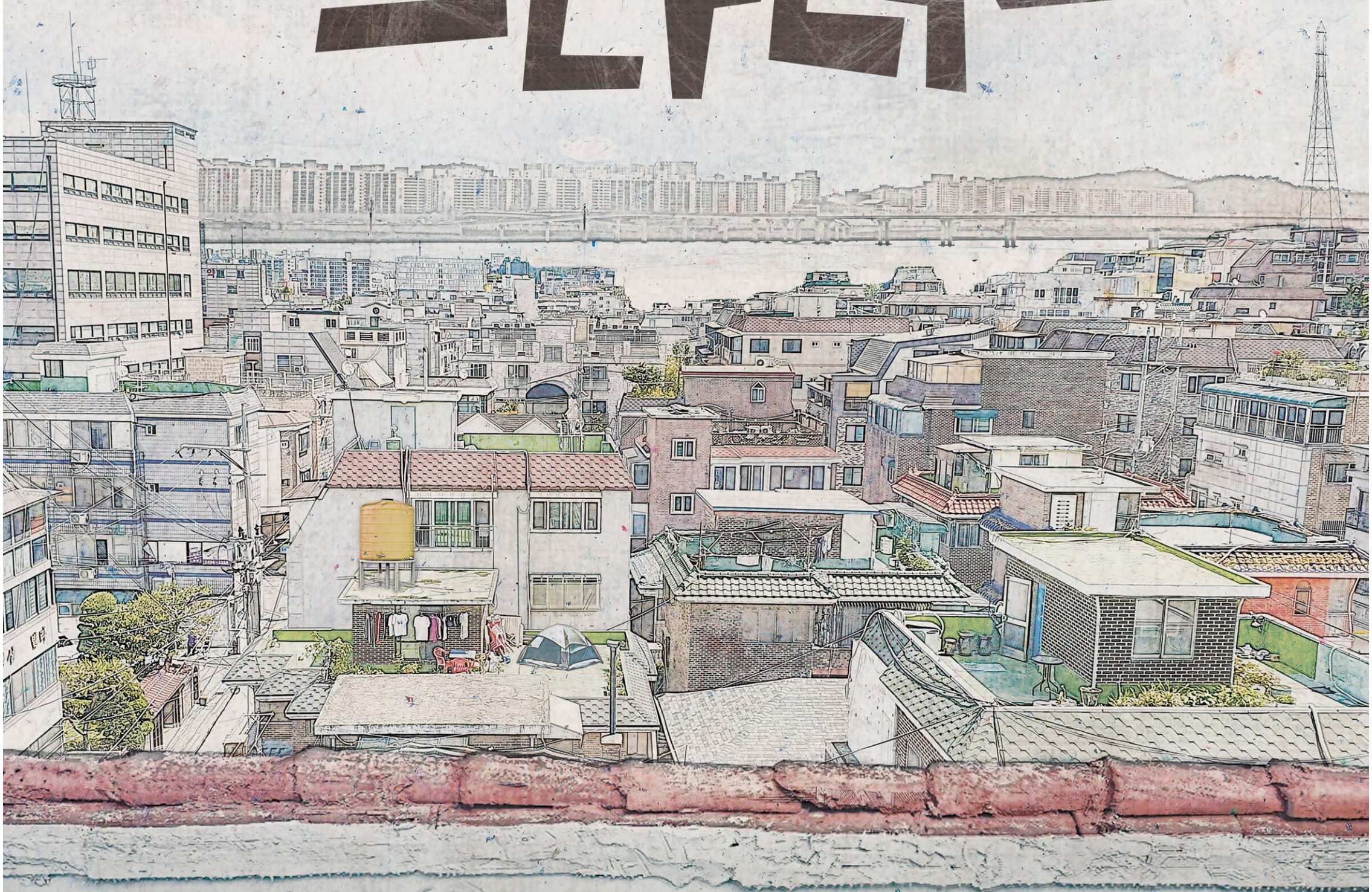
또 GC녹십자웰빙에 따르면 'PNT 혈당케어'는 셀렌, 크롬, 엽산, 아연, 비타민B6 등 6종의 기능성 원료도 배합되어 있어 면역 기능 유지와 체내 대사에도 효과적이다. 정제 사이즈를 작게 설계해 목넘김이 편한 것도 특징이다.

/이청하 기자

골때리는 그놈들이 돌.아.왔.다!

MUSIC DRAMA

망원동 브라더스



2022년 12월 1일 (목) ~ OPEN RUN 홍대 제이엘씨어터

원작 **<망원동 브라더스>** (나무옆의자 2013, 원작자 김호연) | 프로듀서 **황기현** | 각색·연출 **홍현우** | 음악감독 **김은지** | 조연출 **전예정** | 무대디자인 **이창원**
조명디자인 **김병철** | 무대제작 **(주) 빛나** | 디자인 **김리나** | 제작 **극단 지우** | 주최·주관 **극단 지우** | 기획 **이제이컴퍼니 · (주)브라더후드**

출연 **김준희 권오율 이호준 신정만 맹상열 김 현 황원상 오치운 강태수 김초록 김영규 신현규 양현석 한병수 박창희 정다운 김민성 이연우**

후원 나무옆의자 출판사 (주)이엘엔터테인먼트 제이엘컴퍼니 이제이컴퍼니 예매처 인터파크 네이버 예약

현대차그룹

‘협력사 온라인 채용박람회’ 개최

현대자동차그룹과 협력사가 자동차 산업의 새로운 채용 동반성장 모델을 구축하기 위한 ‘2023 현대자동차그룹 협력사 온라인 채용박람회’를 개최한다고 31일 밝혔다.

올해로 12회째를 맞이한 이번 박람회는 온라인 형태로 11월 1일부터 14일까지 약 2주간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행사는 현대차와 기아를 비롯해 현대모비스, 현대위아, 현대트랜시스, 현대로템, 현대엔지니어링, 현대오토에버, 현대케피코 등 9개 그룹사 관련 총 470여개의 협력사가 참가한다.

/양성운 기자 ysw@

임종룡 우리금융 회장, ‘사랑의 연탄 나누기’ 봉사

우리금융미래재단은 지난 30일 임종룡 회장이 그룹사 임직원과 함께 사랑의 연탄 나누기 자원봉사에 나섰다고 31일 밝혔다. 임종룡 회장(가운데)을 비롯한 우리금융 16개 그룹사 사회공헌 담당직원 30여 명은 서울시 성북구 정릉3동 이웃을 방문해 각 가정집 창고에 연탄을 쌓으며 따뜻한 관심과 사랑의 온기를 전했다. /우리금융미래재단

CJ프레시웨이, 건강한 식문화 조성 앞장

CJ프레시웨이는 천안시농협조합공동사업법인, 엔에프와 3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지역 단체급식소의 질 향상과 건강한 식문화 조성에 나선다. 김진중 CJ프레시웨이 급식SU장(중앙)과 홍승주 천안시농협조공법인 대표(왼쪽), 오승영 엔에프 대표(오른쪽)가 업무협약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CJ프레시웨이

에몬스, ‘한국품질만족지수’ 가정용 가구부문 1위

에몬스가 한국표준협회(KSA) 주관의 ‘2023 한국품질만족지수(KS-QEI)’ 가정용가구 부문에서 12년 연속 1위 기업에 선정됐다. 에몬스는 가정용 가구 부문 최고 점수를 획득했다. 에몬스 선혜영 원장(왼쪽)이 강명수 한국표준협회장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에몬스

지엠한마음재단, 지역사회 환경 개선 나서

지엠한마음재단코리아(이하 한마음재단)가 ‘벽화 그리기’ 봉사로 지역사회 환경 개선에 힘을 보탰다. 한마음재단은 인천광역시 부평구 일대에서 벽화 그리기 봉사활동을 펼치며 지역사회 환경개선 등 상생 가치 확대를 위한 활동을 펼쳤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벽화 그리기 봉사는 지엠드림즈 봉사팀과 부평구청, 한국조지메이슨대학 학생들과 협업으로 진행됐다. /지엠한마음재단코리아

LG화학, 잘피 복원사업 본격화… “지속가능 바다 조성”

여수 인근 해역에 5만주 이식
분기별로 해양생태 변화 조사

LG화학이 여수 앞바다에 바닷속 탄소흡수원 ‘잘피’ 5만주를 심고 지속가능한 바다 생태계 조성에 나선다.

LG화학은 31일 유관기관과 함께 여수 대경도 바다에 잘피 이식과 해양환경 연구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지난 6월 잘피 서식지 복원 및 연구 사업을 진행한다고 알린 지 4개월 만이다.

잘피는 바닷속에서 꽃을 피우는 해초류로 해양생물의 보금자리이자 바닷속 탄소흡수원인 블루카본으로 꼽힌다. 잘피 서식지 복원 프로젝트는 LG화학이 총괄하고, 세부 프로그램 운영은 기후테크 스타트업 땡스카본이 맡는다. 잘피 서식지 복원과 연구 사업은 한국수산자원공단이 담당한다.

여수 대경도 인근에서 잘피를 심는 LG화학 임직원들 모습 /LG화학

잘피 서식지를 조성 중인 곳은 LG화학 여수 사업장과 가까운 대경도 인근 해역이다. LG화학은 올해 11월까지 잘피 5만주를 1차 이식할 계획이다. 동시에 분기별로 어류(유영생물)나 말미잘·게·고둥(저서생물) 등 해양 생태적 변화를 조사한다.

내년부터는 잘피의 성장 상태와 확산 범위 등을 고려해 잘피 2만주를 추가로 심는다. 오는 2026년이 되면 잘피 군락지는 축구장 14개 크기인 10ha 규모까지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프로젝트에서는 잘피가 자연스럽게 군락을 이루고 퍼질 수 있도록 종자 활용 기술 연구를 진행한다. 여수 바다 생태에 가장 적합한 모종을 알아보기 위해 한국수산자원공단(FIRA) 남해본부 시설에서 실내 파종도 추진할 예정이다. 민간기업 주도로 잘피 생태 연구가 이뤄지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LG화학은 향후 지역 상생과 협업을 위해 여수시 주요 기관장들과 간담회를 진행하기도 했다. 여수시도 잘피 서식지 복원 프로젝트를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LG화학 신학철 부회장은 “LG화학은 지속가능성을 선도하는 톱 글로벌 과학기업(Top Global Company)으로 한발 앞서 업계를 이끌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허정윤 기자 zelkova@metroseoul.co.kr

YouTube 유튜브〈메트로신문〉 동영상 제공

기아, 모빌리티 직업 체험관 개관… “미래 산업 인재에 영감”

어린이 대상 전동화 모빌리티 소개
드라이빙트랙 등 체험 공간 마련

기아는 어린이 직업 체험 테마파크 ‘키자니아 서울’에서 ‘모빌리티 직업 체험관’ 개관식을 가졌다고 31일 밝혔다.

기아가 새롭게 준비한 키자니아 서울 모빌리티 직업 체험관은 기아의 브랜드 체험 공간으로 어린이들에게 전동화 모빌리티에 대한 친밀도를 높이고자 다양한 체험 활동을 제공할 예정이다.

키자니아는 총 22개국(멕시코영국일본 등)에서 전 세계 1억 명 이상이 경험한 글로벌 어린이 직업 체험 테마파크로 국내에는 서울과 부산에서 운영 중에 있다.

기아 키자니아 ‘모빌리티 직업 체험관’ 개관식에서 관계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어린이 눈높이에 맞춘 기아 모빌리티 직업 체험관에는 ▲운전면허시험장 ▲자동차 연구소 ▲드라이빙 트랙 등의 체험 공간을 갖췄으며, 각 공간에서 다양한 활동을 하며 재미있게 전동화 모빌리티를 경험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운전면허시험장에서는 실제 운전 환경과 유사하게 연출된 가상 운전 기기를 통해 운전 요령 및 교통안전 교육을 받을 수 있으며 교육을 마친 어린이들에게는 키자니아 전용 운전면허증이 수여된다. 자동차 연구소에서는 브릭으로 나만의 맞춤형 조립 자동차를 만드는 등의 체험을 하며, 어린이들이 직접 자동차 연구원이 되어 볼 수 있는 공간으로 이루어져 있다. 또 드라이빙 트랙은 미래 도심을 형상화한 드라이빙 체험 공간으로, 키자니아 운전면허증을 취득 후 기아 전동화 카트를 직접 운전하며 첨단 주행 편의 기능 및 전기차 충전 등 전동화 차량 관련 특징을 쉽고 재미있게 느껴볼 수 있는 공간으로 구성되어 있다.

기아 관계자는 “어린이들에게 생소할 수 있는 전동화 모빌리티에 대해 쉽고 재미있게 경험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기획했다”며 “즐겁고 유익한 체험 활동들을 통해 어린이들이 새로운 영감을 얻고, 훗날 미래 모빌리티 산업의 인재의 꿈을 키워 나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양성운 기자 ysw@

곽노정 하이닉스 사장, 대학 강단 오른다

내일 고려대서 특별 강연 진행

곽노정 SK하이닉스 대표이사 사장(사진)이 고려대학교에서 특별 강연을 갖는다.

고려대학교는 오는 2일 오후 5시 고려대 자연계 캠퍼스 과학도서관 대강당에서 곽노정 SK하이닉스 사장을 초청해 ‘메모리 반도체의 Vision과 인재 육성’이라는 주제로 특별 강연을 진행한다고 31일 밝혔다.

고려대 재료공학과를 졸업하고 고려대 대학원 재료공학 석사, 박사를 취득한 곽노정 SK하이닉스 사장은 SK하이닉스의 전신 현대전자에 입사한 후 줄곧 SK하이닉스에서 근무했다. 곽노정 SK하이닉스 사장은 SK하이닉스의 첨단공정 개발과 제품 양산을 주도, 디램과 낸드플래시 등 메모리 반도체 미세공정 개발에 많은 기여를 한 인물이다.

이번 특별 강연에서 곽노정 SK하이닉스 사장은 단순한 전자 부품을 넘어 인류의 미래를 결정짓는 가치가 된 반도체의 비전에 대해 이야기할 예정이다.

이번 행사는 고려대 공과대학 설립 60주년을 기념하여 기획된 행사로 이해근 고려대 공과대학장은 “세상의 가르침과 지혜를 겸허히 받아들이며, 다가오는 공과대학 60년의 희망찬 미래를 설계하고자 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고려대는 2021년 3월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핵심 인재를 육성하고자 SK하이닉스와 협력해 반도체공학과를 신설했다.

/이현진 기자 lhj@

귀뚜라미, ‘KCPI’ 우수기업 선정

〈한국소비자보호지수〉

온열가전 부문 최고점 획득

귀뚜라미가 한국능률협회컨설팅이 발표한 ‘2023년 한국의 소비자보호지수(KCPI)’에서 온열가전 부문 3년 연속 우수기업에 이름을 올렸다.

한국의 소비자보호지수에서 온열가전 부문 우수등급을 획득한 기업은 지난 2021년 처음 조사부터 올해까지 귀뚜라미가 유일하다.

귀뚜라미에 따르면 ‘소비자보호 체감 영역(70%)’과 ‘소비자보호 실태 영역(30%)’으로 구성된 KCPI 세부 조사항목 전 부문에서 온열가전 부문 최고점을 획득했다.

/김승호 기자

인사

◆ **산업통상자원부** ◇국장급 승진 △재생에너지정책관 정경록 △수소경제정책관 박찬기

부음

▲김상운씨 별세, 김상풍(뉴스1 광주전남 대표)씨 형제상, 김재환(영광열병합발전 사장)씨 부친상 = 31일 오전 7시, 전남 영광종합병원 장례식장 1호실, 발인 11월 2일 오전 9시 30분. 061-350-8044.

▲노복선씨 별세, 이근철·이범철(벡스코 경영본부장)·이경상(부산교통공사 궤도부장)씨 모친상 = 30일, 부산시민장례식장 603호, 발인 11월 2일 오전 6시, 장지 대전현충원. 051-636-4444

함께 성장하며
행복을 나누는 금융

어린이들 **누구 하나**
대한민국 **어디 하나**
빠짐없이 행복하도록 –

하나금융그룹 100호 어린이집 건립 프로젝트

어린이가 있는 곳이라면 어린이집이 있어야 하기에
하나금융그룹은 대한민국 방방곡곡
어린이들의 내일을 담는 어린이집을 짓고 있습니다

• 53호 홍천시동 하나어린이집 (23년 9월말 기준 78개소 건립완료)

하나금융지주 · 하나은행 · 하나증권 · 하나카드 · 하나캐피탈 · 하나생명 · 하나손해보험 · 하나저축은행
하나자산신탁 · 하나대체투자자산운용 · 하나에프앤아이 · 하나벤처스 · 하나펀드서비스 · 하나금융티아이 · 핀크

하나금융그룹

즐거워서 아픈 여행길

이규성의 전원에 산다

10월 마지막 주말, 고속도로엔 나들이객으로 북적였다. 심지어는 휴게소 화장실마저 긴 줄이 늘어설 정도로 발 디딜 틈조차 없었다. 대개 관광버스로 움직이는 단체여행객들, 나이 지긋한 노인들이 많았다. 모두들 단풍철 막바지 야유회를 떠나느라 활기 넘쳤다.

좀전 나는 마을회관에서 주민들과 막 관광버스에 오른 터였다. 우리처럼 이리 많은 사람들이 마을단위의 여행을 하는건가. 그도 그럴 것이 관광버스 전면 유리창에는 마을지명이 붙어 있어 오늘 만큼은 국가적인 행사같다는 생각도 들 지경이다.

우리 마을에서는 네번의 행사가 있다. 봄·가을 야유회, 여름 삼계탕 먹는 날, 겨울에는 척사대회를 한다. 이번 가을 야유회에는 예전보다 참여가 적었다. 관광버스 두대에 가득찰 정도로 였는데 이번엔 한대를 다 채우지 못했다. 우리 애들이 유치원생일 무렵 이 여행에 참여한 게 아득하기만 하다.

그날 빠지지 않는게 있다. 배웅객이다. 특히 선거철일 경우 출마자들이 일찍 나와 인사도 하고 음료수 상자도 실어주곤 했다. 올핸 그들이 없어 다행이다. 다만 조합장, 읍장, 마을이장협의회장이 마을 야유회를 배웅했다. 인삿말도 그저 잘 다녀오라고 간단한 덕담에 그쳤다. 야유회 경비는 송전탑 및 상수원 보호권역 지원금에서 나온다. 야유회 경비를 허용한 이유가 경제 후방효과 때문인 것으로 여겨진다.

버스에 오른 사람은 30여명, 코로나 이전보다 열명쯤은 줄어든 것 같다. 참여자들은 주로 80대 노인, 최고령은 95세 할머니 그리고 세살짜리 아이 한명은 부모를 따라 나와 귀여움을 독차지했다. 일부는 처음 보는 이도 있다. 아마도 근래 이곳으로 주거를 옮긴 이들이겠으나 모두 노인이다. 마을 가구수가 50여호인 것에 비해서는 적은 편이다. 사실 마을에는 주소만 있는 전입자들이 열가구가 넘는다. 무슨 사정인지는 모르나 그들은 '유령'이나 마찬가지다.

버스에 올라서자 부녀회, 청년회원들은 모두에게 김밥, 음료, 과일 등을 나눠주고 인사를 건냈다. 부녀회장과 청년회장은 60대 초반, 노인회장은 80대 중반. 그들은 마을 일을 도맡아 한다. 도시 직장인이라면 은퇴할 나이지만 여기서는 그저 어린 청년일 뿐이다.

여행길은 서천 갈대밭, 금강하구, 새만금 방조제, 선유도로 이어졌다. 버스 안에서 노래를 부르고 관광춤을 췄다. 어떤 노래가 나올 때는 버스가 떠나가도록 합창을 하기도 했다. 노인들은 노래나 장고 등을 배우고 여러 취미생활도 한다. 그런 일상 중 하루 함께 하는 하룻짜리 여행은 내게도 다시 못 올 날이다. 그래서 햇빛도 바람도 바다와 파도도 싱그럽고 투명했다.

마을 이장은 "며칠전 노인회장과 야유회를 상의할 때 야유회를 잘 다녀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노인회장께서 이번이 마지막 여행이라는 말을 듣고 그런 맘이 들었다"고 했다. 야유회 때마다 세상을 떠나 못 보는 이웃들이 생겨서 한 말이다. 빈자리를 나도 공감한다. 60대가 청년인 동네, 어린 아이 보기가 무척 귀한 세상에서는 그 말뜻을 다들 안다. 그래서 함께 흥을 나누려고 더 노래하고 춤 춘다.

우리들의 풍경, 아이를 낳지 않는 시절 노인으로 살기란 더 적적할 따름이다. 오늘 만큼은 그 적적함을 잊고자하는 이들과 함께 해서 즐겁고도 아팠다.

/건설부동산부 선임기자 peace@metroseoul.co.kr

부산엑스포, 28일 남았다

기자 수첩
최 빛 나
〈유통&라이프부〉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 가장 큰 심혈을 기울인 2030년 엑스포 유치국가를 정하는 프랑스 파리 국제박람회기구(BIE) 총회가 이달 말 열린다. 본부에서는 182개 회원국 투표로 정해진다.

한달도 남지 않은 가운데 우리나라에서는 민관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막바지 총력을 다하고 있다.

현재 부산은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 이탈리아 로마와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유치전 당시에는 승산이 없을 줄 알았지만 돌연 중동 지역 무력 충돌 사태로 승산이 있다는 의견이 우세하다.

엑스포는 대한민국 경제에 큰 원동력을 가져다 줬을 뿐만 아니라 국격까지 높인 행사다. 윤석열 정부가 지방시대위원회 출범 이후 가장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는 게 부산엑스포 유치다. 무려 대통령실에 부산엑스포 유치전을 전담하는 미래전략기획관과 산하에 미래정책비서관실을 두고 모든 정책적 역량을 총결집하고 있다.

하지만 과거 국가의 위상을 올린 엑스포와 현재의 엑스포의 전반적인 분위기는 사뭇 다르다. 부산엑스포 유치에 성공하더라도 뒤따라오는 다양한 과제들이 많다.

국가 경제력도 생각해야 한다. 올해 6월까지 국개 채무액이 600조원에 다다른다. 이번 엑스포를 통해 부채액을 줄일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엑스포를 오래 연구해 온 전문가들은 엑스포같은 국제적인 행사가 오히려 '낭비'의 행사로 전락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2012년 여수엑스포, 2018년 동계올림픽이 이를 방증한다. 여수 올림픽은 개최 직후 적자만 100억원 대를 넘긴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판은 깔아졌다. 유치가 성공해 한국에서 엑스포를 개최하게 되면 현 시점 가장 중요한 건 혁신을 위한 엄청난 추진력과 에너지다. 그렇기 위해서는 정부, 관련부처, 기업 등 전방위적으로 엑스포 성공에 몰입해야 한다.

과감함도 필요하다. 그러려면 국가, 정부기관이 경제적인 최대의 효과를 내기 위한 최선의 방법을 국민들에게 정확하게 전달해야 한다.무엇을 보여줄 수 있는지 어떻게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알려야 한다.

대전엑스포를 준비할 당시 보여줬던 적극적인 정부기관의 모습과 권위에 의존하지 않고 위험을 감수 할 수 있는 과감함 말이다. 37년 동안 3번이나 엑스포를 개최한 대한민국의 국격이 글로벌 시장에서 인정받는 유일한 기회다. 자, 28일 남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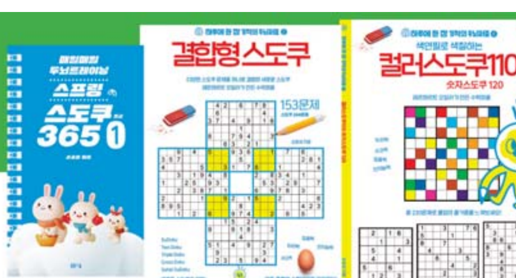
/vitna@

매일매일 두뇌트레이닝 생각한힘 스도쿠365

문제풀이: 3X3 스도쿠 X는 가로,세로,3X3박스에 1부터 9의 숫자가 대각선 회색 9칸에 1부터 9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푸는 퍼즐입니다.

	8	2	6				3	
					8		9	
				9				4
8						4	2	
	6	4						3
6				8				
	1		9					
	2				6	5	7	

4		8	5			3		9
		3						
7				1			5	6
								7
		2				5		
3								
2	9			3				1
						7		
1		7			2	6		5



문제출제:손호성
새로운 고난이도의 월드퍼즐을 즐겨보세요
http://www.argo9.com

할인도서

4	1	8	5	2	6	3	7	9
5	6	3	9	4	7	1	2	8
7	2	9	3	1	8	4	5	6
6	4	1	2	5	3	9	8	7
9	8	2	6	7	4	5	1	3
3	7	5	8	9	1	2	6	4
2	9	6	7	3	5	8	4	1
8	5	4	1	6	9	7	3	2
1	3	7	4	8	2	6	9	5

9	8	2	6	4	1	7	3	5
7	4	6	3	5	8	2	9	1
1	5	3	7	9	2	6	8	4
8	9	1	5	6	3	4	2	7
3	7	5	4	2	9	8	1	6
2	6	4	8	1	7	9	5	3
6	3	7	2	8	5	1	4	9
5	1	8	9	7	4	3	6	2
4	2	9	1	3	6	5	7	8

오늘의 운세

11월 1일 (음 9월 18일) http://www.saju4000.com

쥐 — **36년생** 해뜨기 직전이 가장 어두운 법. **48년생** 원숭이띠, 뱀띠의 도움으로 거래가 무사히 성립. **60년생** 오늘 집안청소로 분위기를 바꾸자. **72년생** 좋은 것을 포기하고 마음이 아프다. **84년생** 가랑비에 옷 젖는 줄 모르고 지출.

소 — **37년생** 결혼은 둘이 했지만, 인생은 어차피 혼자 가는 여행. **49년생** 거울은 결코 혼자서는 웃지 않는다. **61년생** 가족의 도움으로 일을 성공적으로 마무리. **73년생** 지도에도 없는 길을 간다. **85년생** 술자리에서 실수하게 된다.

호랑이 — **38년생** 독단적인 일처리로 원망을 듣는다. **50년생** 아쉬워도 포기하니 마음은 편하다. **62년생** 초심으로 돌아가서 일을 처리해야. **74년생** 순풍에 돛단배 가듯이 순조로운 하루가 되겠다. **86년생** 좋은 차를 마시며 여유를 즐긴다.

토끼 — **39년생** 포기하겠다는 생각이 들 때가 성공이 눈앞. **51년생** 집으로 가는 길이 편안하지 않다. **63년생** 산들바람이 부니 일이 잘 풀린다. **75년생** 제살이 아프면 남의 살도 아프다는 것을. **87년생** 가지 못한 길에 아쉬움을 두지 마라.

용 — **40년생** 걱정만 하고 실행은 하지 않는다. **52년생** 모심으러 갈 때는 장화는 신어야 한다. **64년생** 태양이 떠 있는 한 꿈을 버리지 마라. **76년생** 푸른색은 쪽에서 나왔지만 쪽빛보다 푸름. **88년생** 주변 없어 기죽지 말고 일을 찾자.

뱀 — **41년생** 너무 깊게 생각하지 마라. **53년생** 자식이 새로운 인연을 만나니 흡족한 마음. **65년생** 호감이 가는 이성의 유혹이 있다. **77년생** 한참 젊어도 방광 비뇨기 계통 질병을 살펴보라. **89년생** 이끼가 끼지 않으려면 부지런히 노력.

말 — **42년생** 신장 질환의 위험성이 있는지 건강검진을 받아 보자. **54년생**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가니 의견통일이 우선. **66년생** 어디서 부는 바람이 근심을 걷어 간다. **78년생** 중요한 연락이 온다. **90년생** 믿은 만큼 좋은 결과가 온다.

양 — **43년생** 어항 속의 물고기 신세처럼 답답한 하루. **55년생** 위기를 대비하여 비상금을 모으자. **67년생** 기다려도 기회는 오지 않으니 스스로 개척. **79년생** 친구와 대립이 생기니 조심. **91년생** 가는 사람도 소중한 사람이니 귀하게 여겨라.

원숭이 — **44년생** 다시 일어설 능력이 있다. **56년생** 아랫사람과 의견충돌을 주의. **68년생** 되로 주고 말로 받는 날이니 말과 행동을 조심하라. **80년생** 매사가 귀찮고 모든 것이 심드렁한 날. **92년생** 가진 것이 없어도 평소 지닌 실력이 있으니 재기된다.

닭 — **45년생** 천 리 길도 한걸음부터이니 다시 할 일을 찾자. **57년생** 배우자의 의견을 따르는 것이 신상에 이롭다. **69년생** 욕심이 지나치니 견제를 받는다. **81년생** 겉모양만 화려한 것을 동경. **93년생** 변화에 흘러가는 대로 내버려 두는 것이 좋다.

개 — **46년생** 꿈이 있다면 늙지 않는다. **58년생** 사람이 하는 일이니 실수가 있을 수 있다. **70년생** 가지 많은 나무에는 바람 잘 날이 없다. **82년생** 학습은 단기간의 결과물이 아니니 평소에도 노력으로 준비를. **94년생** 인연을 만나니 세상이 꽃동산이다.

돼지 — **47년생** 해亥날이니 원행을 금하자. **59년생** 나이 든다는 것이 때론 고맙기도. **71년생**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는데. **83년생** 결심이 사흘을 지나면 굳어지게 되니 기다려보라. **95년생** 평범한 사람이라는 장삼이사를 받아들여야.

김상회의 四季

스트레스 잘 받는 것도 팔자에

경제적으로는 괄목할만한 성장을 이뤘지만 각박해진 정서와 심화된 경쟁 빈부의 격차 등 스트레스에 여러 요인이 산재해 있다. 게다가 일상이 된 소셜미디어에는 여기저기 여행 간 곳의 풍경 모습과 팬시한 음식들 사진 등 각자 얼마나 행복한 순간들을 향유하고 있는지를 불특정 다수의 사람에게 알리고 싶어 난리가 난 모습들이다. 즐겁게 떠난 여행에서도 돌아오면 다시 일상이다. 충분한 휴식과 레저로 재충전을 하여 다시금 에너지 있는 일상을 살아가려는데 왠 부정적인 생각이냐고 반문하실 분들도 있겠지만 현재 우리나라의 자살률은 세계 1위다.

발전을 이루어 삶의 질이 높아진 것만큼 그에 비례하여 스트레스 지수 역시 높아졌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극심한 스트레스 해소법은 무엇보다 마음을 편하게 갖는 것인데 추천되고 있는 방법은 바로 명상이다. 종교적 이유가 아니더라도 명상이 주는 이익은 감탄할 만하다. 작게는 심신의 안정이요, 크게는 윤회에서 벗어날 수 있는 존재론적 문제까지 해결할 수 있다. 어느 종교에서나 어느 수행 단체에서나 명상 또는 선(禪)은 중요한 기본적 요소이다. 사주명리학에서 특히 스트레스에 취약한 구조가 있다. 팔자의 구성에 목화토금수 중 한 가지 오행五行이 많은 경우 또는 없는 경우 신살 중에 귀문살과 도화살이 있는 경우 비겁(나의 일간과 같은 속성의 오행)이 왕한 경우가 해당한다. 더하여 대운과 세운이 길신이나 희신으로 작용하지 않는 경우이다. 일주에 해당하는 십이운성이 쇠(衰)나 묘(墓)라면 그 강도는 더욱 강해진다고 해석한다. 오행이 치우치다 보니 조울증등 감정의 기복이 심한데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낙담하지는 말자. 원인을 알면 그에 대한 대처방안과 방편이 있다는 것이 자연의 법칙이기도 하기에.

'김상회의 사계'에서는 애독자를 위해 전화·방문상담을 해드립니다.

김상회 역학연구원02) 533-8877 / www.saju4000.com

metro 메트로미디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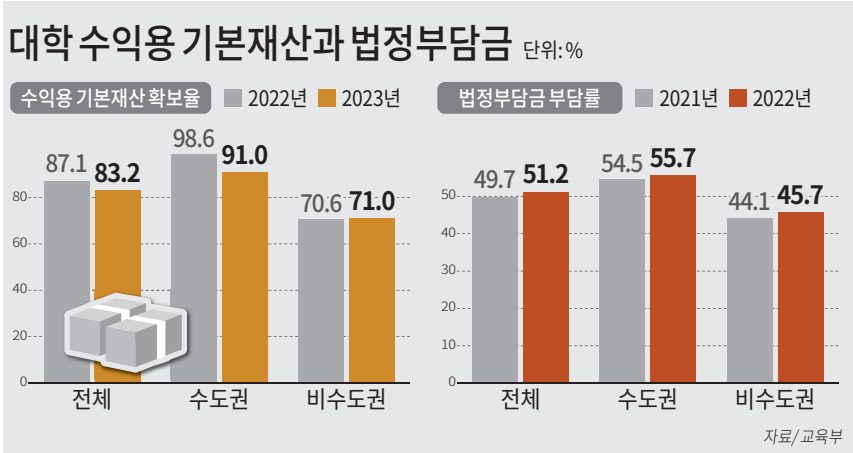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TEL:02)721-9800, FAX:02)730-1551

발행·편집인	이 장 규	편집국장	김 승 중
인 쇄 인	중앙일보(주)		
광고문의 / 독자센터	02)721-9851,9826 / 02)721-9861		
일간 메트로	서울 가00206 2002년5월28일 제5300호		
일간 메트로경제	서울 가50111 2017년3월09일 제1404호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카드 안 돼요"… 대학 기숙사, 154곳 '현금 일시불'만 받아

카드납부 가능 기숙사 50곳 수준
수수료 때문 기숙사비 오를 가능성
정부, 카드납부·현금분납 등 독려



국내 4년제 대학 10곳 중 6곳은 오로지 '현금 일시불'로만 기숙사 비용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카드로 납부받을 경우 카드 수수료가 더해져 기숙사비가 오를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학생과 학부모 부담을 줄이기 위해 현금 분할이나 카드 납부를 늘려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또 사립대 학교법인이 교직원 사학연금, 국민연금 등을 부담하는 법정부담금은 대학 2곳 중 1곳이 그 부담을 학교에 떠넘기는 것으로 파악됐다.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가 31일 '2023년 10월 대학정보공시'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52개 4년제 대학 기숙사 중 61.1%인 154곳이 기숙사비를 '현금 일시불'로만 납부받는 것으로 집계됐다.

63.1%던 지난해보다는 소폭 줄었지만, 여전히 과반수 대학이 오직 '현금 일시 납부'로만 기숙사비를 받고 있다. 카드 납부가 가능한 기숙사는 50개교로 전체 19.8%를 차지했으며, 현금을 분할해 납부할 수 있도록 한 대학 기숙사는 76곳(30.2%)에 불과했다.

전문대 기숙사는 '현금 일시불' 비율이 4년제 대학보다 더 높았다. 전체 124곳 중 79.8%인 99곳이 현금만 받고 있으며, 지난해 97곳에서 올해는 2곳 더 늘어난 수치다.

카드로 납부받을 경우 수수료가 더해져 기숙사비가 올라 학생·학부모 부담이 늘 수 있다는 게 교육부 측 설명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카드로 납을 받을 경우 카드 수수료인 1.5% 정도 기숙사비가 올라갈 수 있다"라며 "여신전문금융업법을 통해 (대학에) 영세 수수료율을 적용하면 0.5%까지도 내려갈 수 있는데, 금융위원회와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현금 분납 활용률이 낮은 것은 학생 선호도가 높지 않기 때문으로 보인다"라며 "정부는 카드 납부나 현금 분납 방식을 독려하지만, 아직 현장이 적극적이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2023년 기숙사 수용률은 22.8%로 23%던 지난해보다 0.2%p 낮아졌다.

대학 법인의 법정부담금 부담률은 51.2%로 2021년보다 1.5%p 늘었지만, 여전히 과반수 법인이 그 부담을 대학에 전가하고 있었다.

법정부담금이란, 사립대학 교직원의 퇴직수당을 포함한 사학연금이나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고용보험 등을 납부할 때 대학 법인이 부담하는 비용이다.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등에 따라 법인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예외조항에 따라 '일부 또는 전부를 교비회계에서 부담'하는 등 학교에 떠넘길 수 있다.

등록금 동결과 코로나19 대응 및 여파로 학교 재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법인이 책임져야 할 비용마저 대학 본부가 부담하고 있던 셈이다.

사학법인의 대학 지원 원천인 '수익용 기본재산'의 확보율은 83.2%로 87.1%던 2022년보다 3.9%p 감소했다.

특히 수도권대학 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율은 한 해 사이 7.6%p 하락해 91%를 나타냈다. 단, 비수도권 대학은 71.0%로 전년보다 0.4%p 상승했다.

대학에서 전임 교원 수가 맡는 강의 비율은 4년째 감소했다. 올해 2학기 4년제 대학의 전임교원 강의 담당 비율은 64.8%로 지난해 2학기(65.9%)보다 1.1%p 낮아졌다. 전임교원 강의 비율은 2019년 67.8%에 이어 2020년 66.7%, 2021년 66.3%, 2022년 65.9%를 기록하며 올해까지 4년 연속 감소했다.

/이현진 기자 lhj@metroseoul.co.kr

서울 출근길 '동행버스' 노선 4개 추가

이달 6일부터 노선 운행 다각화
"노선 지속적으로 확대할 예정"

서울동행버스. /서울시

서울시는 대중교통 수단 부족과 장시간 출근으로 어려움을 겪는 수도권 주민들을 위해 11월 6일부터 맞춤형 출근버스인 '서울동행버스'의 노선을 확대한다고 31일 밝혔다.

시는 지난 8월 21일부터 화성 동탄~강남역(서울01번), 김포 풍무~김포공항역(서울02번) 두 개 노선에서 서울동행버스를 운영하고 있다.

두 달 만에 이용객 1만여명을 돌파하는 등 큰 호응에 힘입어 서울동행버스 노선을 확대하게 됐다고 시는 설명했다.

이번에 시가 추가하는 노선은 ▲파주시 운정지구를 출발해 합정역을 거쳐 홍대입구역까지 운행하는 '서울03번' ▲고양시 원흥지구에서 시작해 화전역(항공대학교 동문)과 고양시 덕은지구를 지나 가양대교를 건너 가양역까지 가는 '서울04번' ▲양주시 옥정지구를 출발해 도봉산역까지 운행하는 '서울05번' ▲광주시 능평동에서 시작해 강남역까지 가는 '서울06번' 총 4개다.

서울동행버스 중 간선버스 요금 1500원을 적용받는 서울02번(김포시 풍무동~김포공항역), 서울04번(고양시 원흥지구~가양역)과 서울05번(양주시 옥정지구~도봉산역)을 이용하는 시민들은 내년 1월부터 '기후동행카드' 사용시 교통비를 절약할 수 있다.

서울03번(파주시 운정지구~홍대입구역)과 서울06번(광주시 능평동~강남역)은 서울01번(화성시 동탄~강남역)과 동일하게 광역버스가 운행되는 노선으로, 서울시 광역버스 요금 3000원을 적용받게 된다.

시는 앞으로도 경기도 및 각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서울동행버스 노선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김현정 기자 hjk1@

경기, 하남~이천 '봉화길' 이달 11일 개통

'개통식 및 걷기축제' 경기 광주서 개최

경기도와 경기문화재단 경기옛길센터가 11일 광주시 청석공원에서 하남부터 이천을 잇는 역사문화 탐방로 '경기옛길 봉화길' 개통식을 연다.

앞서 도는 2013년부터 조선시대 실학자 신경준 선생이 집필한 도로고(道路考)의 육대로(六大路)를 토대로 길을 걸으며 역사와 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역사문화 탐방로 '경기옛길'을 조성 추진, 지난해 10월 모두 복원한 바 있다.

도는 경기옛길이 도민의 여가 활동처로 관심을 받음에 따라 경기옛길 육대로와 별도로 역사와 문화를 즐길 수 있는 도보 길을 추가하기로 했다.

올해 2월부터 추진돼 이번에 개통하는 봉화길은 조선시대 김정호가 편찬한 '대동지지(大東地志)'에서 구획하고 있는 한양과 지방을 연결한 10대로 중 봉화로(奉化路)를 기반으로 역사적 고증과 현대적 재해석을 거쳐 조성했다.

당시 봉화로(奉化路)는 조선시대에 수도인 한양에서 광주, 이천, 충주를 지나 태백산 사고(太白山史庫)가 있던 경상도 봉화 지방을 연결하며, 역대 조선 왕조의 실록(實錄)과 왕실족보인 '선원보'(璿源譜)가 옮겨지던 길이다. 노선이 거의 직선에 가깝고 기복이 적고 장애물이 없어 '소의 이동'이 보장되는 우로(牛路)로 활용되기도 했다.

도가 복원한 봉화길은 하남~광주~여주~이천을 지나며, 길이는 138km에 달한다. 광주향교, 남한산성, 이천 의병전적비, 설봉공원, 영릉, 설성산성 등 다양한 명소를 품고 있다.

/경기=김대의 기자 dykimi@

고려대 지속발전연구소, 'ASCN' 개최

한국그린캠퍼스협의회와 공동 주관

고려대학교 지속발전연구소는 한국그린캠퍼스협의회와 오는 3일 고려대 하나스퀘어 멀티미디어룸 일원에서 아시아지속가능캠퍼스(ASCN 2023)를 개최한다고 31일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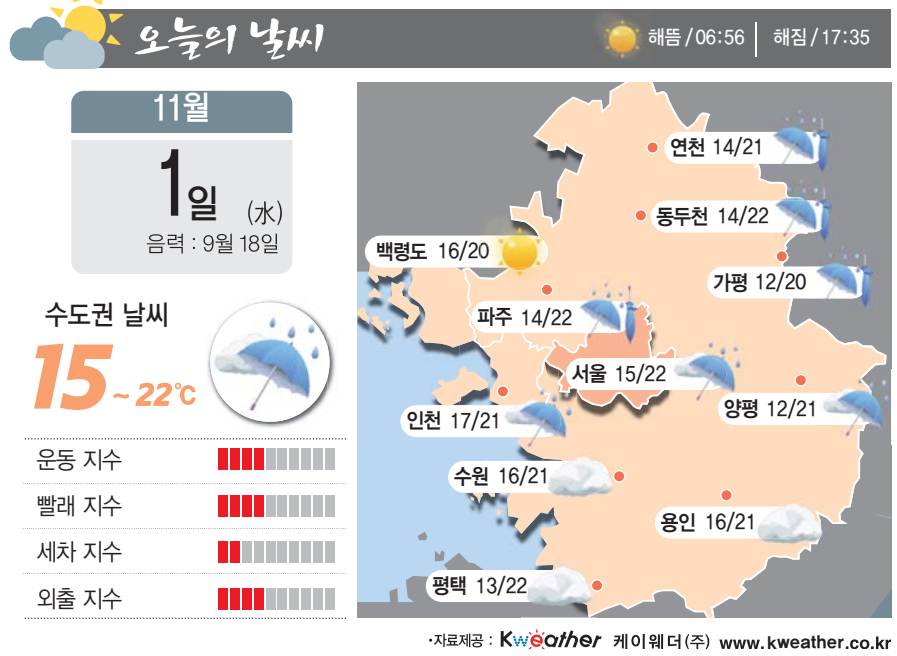
ASCN 2023은 고려대 KU-KIST 에너지환경대학원·탄소중립특성화대학원 주최, 지속발전연구소, 오정리질리언스연구원, 한국그린캠퍼스협의회 주관으로 열린다. 한국을 비롯, 일본, 중국, 태국 등 4개국 대학이 함께 지속가능한 캠퍼스 및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결성된 네트워크로, 지난해 일본에 이어 올해는 고려대에서 열리게 됐다.

올해 행사는 한국, 일본, 태국 등 약 70여 명의 학생, 교직원들이 온·오프라인으로 참석한 가운데 이뤄진다.

이은희 한국그린캠퍼스협의회 이사장의 개회사, 김동원 고려대 총장의 축사, 조명래 전 환경부 장관의 기조강연을 시작으로 지속가능성과 관련한 다양한 주제를 두고 각 기관 대표의 성과 발표와 토론, 학생들의 경진대회로 이뤄질 예정이다.

행사를 주관하는 홍승관 고려대 KU-KIST 에너지환경대학원·탄소중립특성화대학원장은 "최근 들어 더욱 주목받는 지속가능한 성장에 걸맞는 대학의 역할을 논의하는 이번 행사에서 소기의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현진 기자 lhj@



버스티비 yap TV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

▲인도, "G20 정상회의, 11월22일 화상으로 개최"
▲중동 주둔 미군·연합군, 17~30일 23차례 공격받아 /사진 뉴시스

▲美 "지금 휴전은 하마스 이득"… 北→하마스 지원 견제도
▲세계은행 "이·팔 전쟁 등으로 유가 157달러까지 상승 가능성"

▲일본은행, 2023·24년 물가전망 상향 조정 '모두 2.8%' /사진 뉴시스
▲日도쿄전력, 후쿠시마 오염수 3차 해양 방류 준비 시작

2002년 5월 31일 창간 독자센터 : (02)721-9861

metroseoul.co.kr

metro®

Life

제5300호 2023년 11월 1일 수요일

은행권
고금리 미끼로
수신 경쟁
08

편안한 잠 위해
식품업계
숙면제품 선봬
L1

참사현장 채운 추모물결… '기억의 힘'으로 안전한 사회를

되살아나는 서울

⑭ 용산구 '10·29 기억과 안전의 길'

작년 10월29일 밤. 서울 용산구 이태원에 핼러윈 축제로 수많은 인파가 몰렸다. 해밀톤 호텔 서쪽에 있는 폭 3~4m, 길이 40m의 좁은 골목길로 사람들이 밀려들었다. 세계음식문화거리에서 이태원역으로 내려가려는 사람과, 그 반대 방향으로 올라가려는 이들이 맞부딪혀 압사 사고가 발생해 159명이 사망했다. 부상자 수는 부정확하다. 경찰은 196명, 검찰은 294명, 행정안전부는 320명이 다쳤다고 했다. 각 기관마다 집계 기준이 달라 이렇게 발표한 것이라고 하는데, 뒤죽박죽인 통계 수치는 이태원 참사 대응에 관계 기관들의 손발이 얼마나 안 맞았는지를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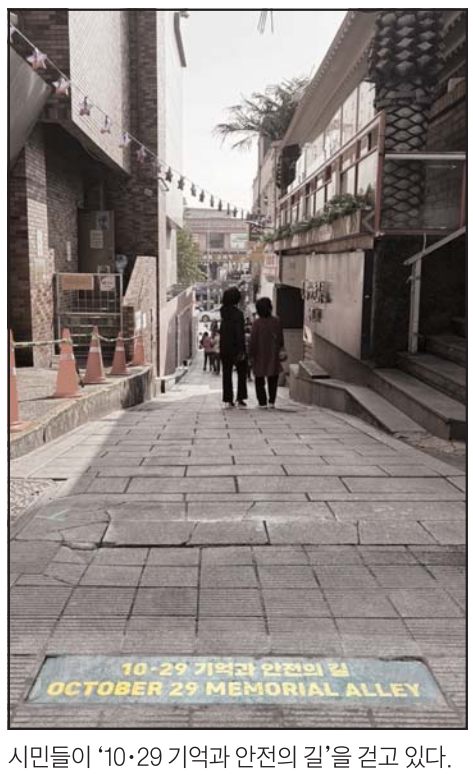
참사가 일어난 지 약 1년 만인 지난 10월26일 사고 현장에 '10·29 기억과 안전의 길'이 조성됐다. 이 공간은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와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의 요청으로 용산구청 참사대책추진단이 설치한 희생자 추모공간이다.

지난 10월 30일 오후 한 청년이 '10·29 기억과 안전의 길'에서 피해자들을 추모하고 있다. /김현정 기자

이태원 참사 1년만에 추모공간 조성
골목엔 디지털 안내판 3개 설치

미완성 형태의 '기억과 안전의 길'
모두가 안전해질 때 비로소 완성

추모의 벽 빼곡히 메운 포스트잇엔
미안한 마음, 진상 규명 약속 전해



시민들이 '10·29 기억과 안전의 길'을 걷고 있다.

◆눈물과 탄식 가득한 추모공간

지난 10월30일 오후 '10·29 기억과 안전의 길'을 찾았다. 지하철 6호선 이태원역 1번 출구로 향하는 길엔 '핼러윈데이 혼잡이 예상되오니 귀가시 인근 역 이용 바랍니다'라는 안내문이 붙어 있었다. 추모공간은 이태원역 1번 출구 앞에 위치한 해밀톤 호텔과 이태원로 173 사이에 마련됐다.

길의 입구 바닥엔 '우리에겐 아직 기억해야 할 이름들이 있습니다'라는 문구가 새겨졌다. 보라색 '추모의 벽'에는 시민들이 남긴 포스트잇이 빼곡하게 붙어 있었다. 벽의 오른쪽 귀퉁이엔 세월호 리본 모양의 손잡이가 달린 꽃바구니가 놓였다. 보라색 장미와 국화, 튤립 등이 가득한 꽃바구니 옆에는 1인용 책상 하나가 있었다. 책상 위엔 포스트잇, 펜, 스카치테이프가 담긴 3단 수납함과 누군가 색종이로 접어놓고 간 학알들이 놓였다.

시민들은 희생자들에게 줄 작은 선물을 추모의 벽 앞에 두고 갔다. 감자칩, 에너지바, 초콜릿우유, 젤리, 아직 얼음이 녹지 않은 아이스 아메리카노 등이 국화 꽃다발과 소주병 사이사이에 놓여 있었다.

'10·29 기억과 안전의 길'에는 주황색과 보라색이 반반 섞인 별들이 매달린 조형물이 걸렸다. 주황색은 핼러윈 축제와 안전이라는 의미를, 보라색은 밤하늘과 애도, 독특함이란 뜻을 지녔다고 한다.

추모공간 옆에는 하얀 빌보드(디지털 안내판) 3개가 설치됐다. 첫 번째 빌보드엔 "당신이 서 있는 이곳 〈10·29 기억과 안전의 길〉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기억해야 할 얼굴들, 부르지 못한 이름들이 남아 있기 때문입니다"라며 "아직 부르지 못한 이름을 새기고 누구나 안전하고 존엄하게 이 길을 걸을 수 있을 때 비로소 완성될 것입니다"라는 말이 쓰여 있었다.

작품을 만든 권은비 미술가는 "창작자로서 미완성의 결과물을 내놓는다는 것은 흔치 않은 일이다. 그러나 우리 사회는 아직 이태원 참사를 둘러싼 희생자, 구조자, 유가족, 지역 상인, 주민들의 이야기를 제대로 듣지 못하고 있다"면서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 제정되고 책임 있는 사람들이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할 때 이 문장은 달라질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두 번째 빌보드에는 반짝이는 윤슬의 모습이, 세 번째 디지털 안내판에는 물 위에서 손가락으로 어딘가를 가리키는 사람이 사진으로 찍혀 있었다. 이날 '10·29 기억과 안전의 길'을 방문한 시민들은 저마다의 방식으로 희생자를 추모했다. 양복을 갖춰 입은 한 청년은 추모의 벽 앞에 한참을 쪼그려 앉아 고개를 숙이고 있었고, 과 잠바를 걸친 대학생은 멀찌감치 서서 조용히 눈물을 훔쳤다. 얼결에 이곳을 지나가게 된 시민들은 사람들이 몰려 있는 걸 보고 다가와서는 추모의 벽에 붙은 포스트잇에 적힌 편지를 읽다가 갔다.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하나

'10·29 기억과 안전의 길'을 찾은 시민들은 추모공간에 어떤 말을 남기고 갔을까. "많은 것들이 너무 늦은 것으로 느껴집니다. 이보다는 나은 세상에 여러분과 제가 함께 살아있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적어도 이태원 거리를 걸은 것이 죽을 이유가 될 수는 없습니다. 이태원 거리를 걸은 것이 잘못일 수도 없습니다. 많은 것들이 부당하고 성숙하지 못한 것으로 느껴집니다. 부디 더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세상이기를, 죄 없는 사람들이 고통받지 않는 세상이기를", "세월호 이후로도 변화를 이끌지 못한 어른들 때문에 여러분들을 보냈습니다. 더 이상은 이러한 희생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막아주지 못해서 미안해요. 좀 더 적극적으로 민원을 넣었어야 했는데. 이상하다고 생각하면서 전화 한 통화하고 말았어요. 안전하게 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노력할게요", "얘들아. 나는 운이 좋아서 살아남았어. 남은 인생. 너네의 한을 풀어줄 수 있는 세상 만들도록 노력할게. 왜 경찰이 배치되지 않았는지, 영정과 위패도 없이 분향소를 차렸는지. 미안하다. 부디 그곳에선 평안하길", "일 년이 지나 왔습니다.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이제라도 힘이 되어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특별법 제정을 위해 함께하겠습니다", "행복한 시간을 함께하고 싶었을 뿐인데 여기 이곳에는 나만 있다는 것이 미안합니다" 시민들은 참사 책임자를 대신해 희생자들에게 사과했다. 그리고 재발 방지 대책 마련과 진상 규명을 약속했다. 모두 정치인들이 유가족에게 해주지 않은 것들이었다.

/김현정 기자 hjk1@metroseoul.co.kr

버스티비 yap TV 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

▲고흐 '별이빛나는 밤', 잠실나들목서 전시 /사진 뉴시스

▲메시, 8번째 발롱도르 수상 …김민재 최종 22위

▲애니 '그대들은 어떻게 살것인가', 공개 엿새만에 100만명 돌파

▲마약 투약 혐의, 지디 6일 경찰 출석… 이선균은 4일 재소환

▲인도 발달장애 소년 작가 아미탄쉬, 국회 의원회관서 특별전

▲'임윤찬 스승' 손민수, 내달 28일 롯데콘서트홀서 독주회 /사진 뉴시스